

# 예술가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9 vol.331

07

새로운 감동, 다채로운 재미, 깊이를 더한 품격  
(재)부산문화회관 2019-20시즌 프로그램

유림 박물관 기행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의  
보물창고 '빈 미술사박물관'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네? 저 친구는 개런티가 없다고요?"  
오페라 '코지 판 투테' 오지랴 대소동

케버스토리

(재)부산문화회관 2019-20  
시즌 프로그램 본격 가동





# 오페라 <봄·봄> & <아리랑 난장>



## 오페라



오페라 '봄·봄'이 문화모임을 지원합니다!

R석·S석에 한해

단체 10인이상 **20% 할인**

가족 3인이상 **30% 할인**

오페라 '봄·봄'이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성공을 기원합니다!

A석·B석에 한해 **80% 특별할인**

A석 ~~20,000~~ → **5,000**

B석 ~~10,000~~ → **2,000**



소리, 음악을 만나 웃다!

오페라 '봄봄'! 드라마보다 재밌습니다.

2019.7.13(토) 3:00pm, 7:30pm (총 2회 공연)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총예술감독 | 안지환, 연출 | 김태웅, 지휘 | 정금련, 오영감 | 박정민, 길보 | 전병호, 순이 | 한경성, 안성택 | 김향은  
전통연희단 꼭두쇠, 그랜드챔버오케스트라

주최 | 그랜드오페라단 후원 |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협찬 | 정우학여객 KYOBO 교보생명

예매처 |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그랜드오페라단 (051-853-2341)

입장권 | R석 50,000 / S석 30,000 / A석 20,000 / B석 10,000 공연안내 및 예매 | 051)853-2341 www.grandopera.or.kr

※ 가족 3인 이상 예매시 30% 할인(R석, S석에 한함)

※ 오페라단으로 전화 예매시 10% 할인, 단체 10명 이상 20% 할인

※ 본 공연은 2019년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작가 스포클레스 Sophocles 계구성·연출 김지용 무대디자인 황기선 작곡 피아노 연주 안현미 조명디자인 조세원 의상디자인 박선미 분장디자인 이기원 음악감독 민 안무 홍유민 드라마틱그라피움 무대제작감독 유 무대감독 정준서 기획 배정희 홍보 박기현 포토디자인 유나키도디자인 배우감독 손건우 연출 감독 김은희 연출 배정희 미술감독 서민기 연출 이희원 이희원 이현주 강현준 장미원 최하나 안승민 황창기

올어라  
운명이여

견뎌라 인간들이아

이 차가운 죽음  
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생명의 시간이 오리라

그 때 또 한 걸음  
나아가라

# 테베3부작

오이디푸스 King Oedipus

콜로누스의 오이디푸스 Oedipus at Colonus

안티고네 Antigone

평일 19:30 토요일 17:00 2019.7.18 목 - 7.20 토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OPERA PICNIC

GALA CONCERT

7월 21일(일) 오후 6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테너  
신상근



소프라노  
박소영



바리톤  
허종훈



베이스  
김대영



제작 | WE CLASSIC

예매처 | INTERPARK

공연문의 | 070-4190-1289



The 5<sup>th</sup>

# 을숙도 오페라 축제

The 5th Eulsukdo Opera Festival

2019.7.6.(토)~7.27.(토)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라 트라비아타	7. 6.(토) 오후 3시, 7시	노블아트오페라단
코지 판 투테	7.13.(토) 오후 2시, 6시	경상오페라단
마술피리	7.20.(토) 오후 2시, 6시	국립오페라단
Amo Ergo Sum (갈라오페라 테마콘서트)	7.27.(토) 오후 5시	부산로알필하모니오케스트라



## 아름다움은 영원한 기쁨

편집위원회 출범을 알리며

시인, 본지 편집위원장 **동길산**

✉ dgs1116@hanmail.net



A thing of beauty is a joy forever. 영국 서정시인 키츠의 시에 나오는 구절이다. 중학교 영시 수업시간 처음 접하곤 오랫동안 입에 달고 다녔다. 그냥 좋았다. 사춘기와 맞물려 그 무렵 아름다움에 이끌렸다. 내 생애 처음 서점에서 시집을 샀고 내 생애 처음 혼자서 미술 전람하며 연주회를 찾았다. 부산시민회관 미전에서 봤던 내 또래 여자아이 흰옷 초상화가 주던 감동은 지금도 기억에 선연하다.

아름다움에 이끌리면서 나도 아름다워지고 싶었다. 보이는 데도 아름다워지고 싶었고 보이지 않는 데도 아름다워지고 싶었다. 거울을 보는 횡수가 늘었고 밤을 꼬박 새워 시에 젖어 들었다. 그때 내가 살던 곳은 범어사 아랫동네 팔송. 새벽 세 시 반이면 범어사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렸다. 종소리가 내 사춘기 시에 스며들던 솔한 새벽들. 나는 눈물이 젖어졌으며 세상을 보는 눈이 그렇그렁해졌다.

그렇그렁한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서 생각이 많아졌다. 옹고 그림의 경계가 무뎠고 높고 낮음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어떤 때는 옹았으나 낮았고 어떤 때는 글렸으나 높았다. 세상이 뿌영게 보였고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것마저 뿌영게 보였다. 뿌영게 보이는 유리창을 옷소매 끝으로 문지르면서 나는 사춘기를 벗어났고 하루 하루 처음에서 멀어졌다.

아름다움은 뭘까. 솔직히 말하자면 나이가 든 지금도 뿌영다. 아침저녁 다르게 보이고 어제오늘 다르게 보인다. 어떤 때는 새벽 공기 밀면서 서서히 나아가는 범어사 종소리 같고 어떤 때는 종소리 밀어

내어 잠들지 않은 이를 다독이는 새벽 공기의 파장 같다. 외롭게 홀로 울리는 종소리도 아름답고 세상과 함께하도록 종소리 밀어내는 새벽 공기의 파장도 아름답다.

본지 <예술에의 초대>가 편집위원회 제도를 도입한다. 1992년 창간한 이래 처음이다. <예술에의 초대>는 통권으로 따지면 330호가 넘는 기념비적인 공연예술 전문지다. 2019년 5월 편집위원회 첫 회의를 했고 준비 과정을 거쳐 하반기 시작을 알리는 이번 호부터 정식으로 출범한다. 각자의 분야에서 식견을 갖춘 예술인이 원팀이 되어 시민 눈높이도 맞추고 전문가 눈높이도 맞추려고 한다. 첫 회의에서 편집위원 일동은 그것을 재미와 깊이라는 표현으로 함축했다. 시민 눈높이는 이미 높아졌다고 믿고 실제로 그렇기에 재미와 깊이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믿는다.

본지가 편집위원회를 도입한 이유는 딱한 가지다. 아름다워지고 싶기 때문이다. 보이는 아름다움,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이 이 책의 독자인 부산시민과 문화예술인에 스며들어 오늘보다 나은 내일, 여기보다 나은 저기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편집위원회로 이어졌다. 예술은 두 가지다. 개성을 앞세우는 예술이 있고 소통과 공감을 앞세우는 예술이 있다. 때로는 재미있게 때로는 깊이있게 그 둘을 담고자 한다. 부산시민과 문화예술인 편달을 기다린다. 따끔하면서 따뜻한 편달이 편집위원회를 이끌어 가는 가장 큰 힘이다.





#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7** 2019 July  
월간문화예술정보지



부산문화회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2019년 7월호 통권 331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이용관

편집인 황해순

편집위원 동길산(위원장), 권은영, 이상현,

정두한, 정봉석, 채영희, 홍동식

홍보마케팅팀장 서정환

편집 정복엽

발행일 2019년 6월 25일

디자인·제작 디자인글꼴

**06** COLUMN  
아름다움은 영원한 기쁨  
- 편집위원회 출범을 알리며

**08** SCHEDULE  
7월 공연캘린더

**12** COVER STORY  
(재)부산문화회관 2019-20  
시즌 프로그램 본격 가동

**20** BACKSTAGE OPERA  
오페라 '코지 판 투테'  
오지랴 대소동

**22** MUSEUM OF EUROPE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의  
보물창고 빈 미술사박물관

**26** TRAVEL WITH YOU  
충절의 고장 진주로 떠나는  
초여름 여행

**32** PREVIEW

**40** ISSUE  
제14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제2회 해외아동청소년예술축제

**44** REVIEW

**52** PROGRAM GUIDE  
프로그램 가이드

**63** NEW BOOK  
새로 나온 책

**64** COLUMN  
극장장의 손 편지

**66** BSCC NEWS  
(재)부산문화회관 소식



# 7

2019 JULY

##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A SCHEDULE OF  
PERFORMANCES

**대** 대극장 **중** 중극장 **침** 챔버홀  
**야** 야외광장 **사** 사랑채극장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http://www.bscc.or.kr)를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SUN	MON	TUE
<p><b>공연</b></p> <p>부산문화회관은 7월 29일(월)부터 8월 5일(월)까지 무대점검기간으로 전 공연장에 공연이 없습니다.</p> <p>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00)</p> 	<u>1</u>	<u>2</u>
<p><u>7</u></p> <p>제2회 BDF 부산국제무용콩쿠르 10:00, 13:00, 18:00 <b>대</b> (사)부산국제무용제조직위원회(868-7881)</p> <p>벨라보체 합창단 제6회 정기연주회 17:00 <b>중</b> 초대/벨라보체 합창단(010-7516-2077)</p> <p>이일세 첼로 독주회 'Beethoven I' 17:00 <b>침</b>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레아(442-1941)</p> <p><b>◇</b>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어린이 안전체험 뮤지컬 '도와줘요 안전맨' 11:00 <b>사</b>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53)</p>	<p><u>8</u></p> <p>제2회 BDF 부산국제무용콩쿠르 10:00, 13:00, 18:00 <b>대</b> (사)부산국제무용제조직위원회(868-7881)</p> <p>인제대학교 백병원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음악회 19:30 <b>중</b> 전석 2만원/UKO(988-3087)</p>	<p><u>9</u></p> <p>예술동행_에나드리 '아리랑 로드' 10:30 <b>중</b> 에나드리(010-4002-9979)</p> <p><b>◇</b>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어린이 안전체험 뮤지컬 '도와줘요 안전맨' 11:00 <b>사</b>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53)</p>
<p><u>14</u></p> <p><b>◇</b>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어린이 안전체험 뮤지컬 '도와줘요 안전맨' 11:00 <b>사</b>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53)</p>	<u>15</u>	<u>16</u>
<p><u>21</u></p> <p>오페라 갈라 콘서트 '한 여름밤의 오페라 피크닉' 18:00 <b>중</b> 전석 3만5천원 위클레식(070-4190-1289, 010-2842-0248)</p> <p><b>◇</b>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어린이 안전체험 뮤지컬 '도와줘요 안전맨' 11:00 <b>사</b>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53)</p>	<p><u>22</u></p> <p>아트뱅크코레아 초청 '소리나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19:30 <b>중</b>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레아(442-1941)</p>	<p><u>23</u></p> <p>장정운 무용 35년 기념공연 19:30 <b>중</b> 초대/장정운(200-7822)</p> <p><b>◇</b>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어린이 안전체험 뮤지컬 '도와줘요 안전맨' 11:00 <b>사</b>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53)</p>
<p><u>28</u></p> <p>제17회 아코르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7:00 <b>대</b> 무료/아코르청소년오케스트라(010-7797-1008)</p>	<u>29</u>	<u>30</u>
<p><b>◇</b>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어린이 안전체험 뮤지컬 '도와줘요 안전맨' 11:00 <b>사</b>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53)</p>		



**3**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어린이 안전체험 뮤지컬 '도와줘요 안전맨'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53)

**4**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어린이 안전체험 뮤지컬 '도와줘요 안전맨'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53)

**5**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3회 정기연주회 '부지휘자의 첫번째 음악회' 19:30  
 대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장수상회' 19:30  
 중 7만원·5만원·3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어린이 안전체험 뮤지컬 '도와줘요 안전맨'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53)

**6**

제2회 BIDF 부산국제무용콩쿠르 10:00, 13:00, 18:00  
 대 (사)부산국제무용제조직위원회(868-7881)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장수상회' 15:00  
 중 7만원·5만원·3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어린이 안전체험 뮤지컬 '도와줘요 안전맨'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53)

**10**

제30회 이견음악회 '베를린 필하모닉 이견양상블' 20:00  
 대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함)  
 (주)이견창호(032-760-0898)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어린이 안전체험 뮤지컬 '도와줘요 안전맨'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53)

**11**

2019 제36회 부산음악콩쿠르 시상식 및 수상자 연주회 16:00  
 중 무료/부산MBC(760-1093)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어린이 안전체험 뮤지컬 '도와줘요 안전맨'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53)

**12**

부산예술고등학교 2019 무용정기공연 19:30  
 대 무료/부산예술고등학교(010-3550-0848)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어린이 안전체험 뮤지컬 '도와줘요 안전맨'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53)

**13**

제21회 부산교문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비제, 고흐 그리고 아를' 15:00  
 대 무료/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605-5113)

그랜드오페라단 오페라 '봄봄' 소설, 음악을 만나 웃다! 15:00, 19:30  
 중 5만원·3만원·2만원·1만원/그랜드오페라단(853-2341)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어린이 안전체험 뮤지컬 '도와줘요 안전맨'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53)

**17**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어린이 안전체험 뮤지컬 '도와줘요 안전맨'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53)

**18**

◆ 부산시립극단 제65회 정기공연 '테베 3부작: 오이디푸스, 콜로누스의 오이디푸스, 안티고네' 19:30  
 중 전석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25)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어린이 안전체험 뮤지컬 '도와줘요 안전맨'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53)

**19**

◆ 부산시립극단 제65회 정기공연 '테베 3부작: 오이디푸스, 콜로누스의 오이디푸스, 안티고네' 19:30  
 중 전석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25)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어린이 안전체험 뮤지컬 '도와줘요 안전맨'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53)

**20**

◆ 부산시립극단 제65회 정기공연 '테베 3부작: 오이디푸스, 콜로누스의 오이디푸스, 안티고네' 17:00  
 중 전석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25)

김수진 귀국 피아노 반주 리사이틀 19:30  
 챔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어린이 안전체험 뮤지컬 '도와줘요 안전맨'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53)

**24**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1회 정기연주회 김정수 예술감독 취임축하공연 '예향대동' 19:30  
 대 1만원·5천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4)

2019년 부산 아마추어 클라리넷 앙상블 정기 연주회 19:30  
 중 무료/부산 아마추어 클라리넷 앙상블(010-3583-2810)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어린이 안전체험 뮤지컬 '도와줘요 안전맨'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53)

**25**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어린이 안전체험 뮤지컬 '도와줘요 안전맨'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53)

**26**

2019년 브니엘 무용 발표회 19:30  
 대 초대/브니엘예술고등학교(010-7585-6336)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_2019 여름 춤 축제 '날 잡아봐라~' 19:30  
 중 무료/부산시립무용단(607-3121~2)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어린이 안전체험 뮤지컬 '도와줘요 안전맨'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53)

**27**

이안오케스트라 특별연주회 '2019 TV속에 빠지다' 15:00  
 대 초대/이안오케스트라(010-4817-9645)

유나이티드 코리아안 유스 오케스트라 19:30  
 중 전석 1만원/유코 유스 오케스트라(010-4125-4335)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어린이 안전체험 뮤지컬 '도와줘요 안전맨'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53)

**31**

**전시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빛의 화가들'展 (미디어아트로 만나는 인상주의 거장들)  
 6월 8일(토)-9월 29일(일)  
 일반 1만2천원, 청소년 9천원, 어린이 7천원  
 (재)부산문화회관 607-6170

◆ 관람시간  
 ※ 오전 10:30~오후 7:30(오후 6:30 입장마감, 월요일 휴관)  
 ※ 정기회원 30% 할인(본인 포함 4매까지 가능)  
 ※ 매일 마지막주 금요일 문화쿠폰데이 50% 할인





# 7

## 2019 JULY

### 부산시민회관

BUSAN CITIZEN'S HALL  
A SCHEDULE OF  
PERFORMANCES

**대** 대극장 **소** 소극장 **야** 야외광장  
**전** 전시장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http://www.bscc.or.kr)를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SUN	MON	TUE
<p><b>연립</b></p> <p>부산시민회관은 대극장 내진보강 및 개선공사로 12월까지 대극장 공연이 없습니다.</p> <p>문의 부산시민회관(630-5200)</p> 	<p><u>1</u></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반려동물전 '너는 나에게' 10:00~18:00 <b>전1,2</b>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u>2</u></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반려동물전 '너는 나에게' 10:00~18:00 <b>전1,2</b>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u>7</u></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반려동물전 '너는 나에게' 10:00~18:00 <b>전1,2</b>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u>8</u></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반려동물전 '너는 나에게' 10:00~18:00 <b>전1,2</b>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u>9</u></p> <p>연극 '작전명:C가 왔다' 15:00 <b>소</b> 초대/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010-4447-2600)</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반려동물전 '너는 나에게' 10:00~18:00 <b>전1,2</b>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u>14</u></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반려동물전 '너는 나에게' 10:00~18:00 <b>전1,2</b>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u>15</u></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반려동물전 '너는 나에게' 10:00~18:00 <b>전1,2</b>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u>16</u></p> <p>2019 교보노블리에 광화문 콘서트 19:30 <b>소</b> 초대/영앤윌섬(주)(02-720-3933)</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반려동물전 '너는 나에게' 10:00~18:00 <b>전1,2</b>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u>21</u></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반려동물전 '너는 나에게' 10:00~18:00 <b>전1,2</b>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u>22</u></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반려동물전 '너는 나에게' 10:00~18:00 <b>전1,2</b>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u>23</u></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반려동물전 '너는 나에게' 10:00~18:00 <b>전1,2</b>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u>28</u></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반려동물전 '너는 나에게' 10:00~18:00 <b>전1,2</b>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u>29</u></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반려동물전 '너는 나에게' 10:00~18:00 <b>전1,2</b>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u>30</u></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반려동물전 '너는 나에게' 10:00~18:00 <b>전1,2</b>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WED	THU	FRI	SAT
<p><b>3</b></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반려동물전 '너는 나에게' 10:00~18:00 <b>전1·2</b>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b>4</b></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반려동물전 '너는 나에게' 10:00~18:00 <b>전1·2</b>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b>5</b></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반려동물전 '너는 나에게' 10:00~18:00 <b>전1·2</b>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b>6</b></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반려동물전 '너는 나에게' 10:00~18:00 <b>전1·2</b>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b>10</b></p> <p>연극 '작전명:C가 왔다' 11:00 <b>소</b> 초대/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010-4447-2600)</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반려동물전 '너는 나에게' 10:00~18:00 <b>전1·2</b>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b>11</b></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반려동물전 '너는 나에게' 10:00~18:00 <b>전1·2</b>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b>12</b></p> <p>2019 '샤이니스타를 찾아라' 부산울산 지역 예선 13:00 <b>소</b> 부산광역시문학회연합회(554-0159)</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반려동물전 '너는 나에게' 10:00~18:00 <b>전1·2</b>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b>13</b></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반려동물전 '너는 나에게' 10:00~18:00 <b>전1·2</b>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b>17</b></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반려동물전 '너는 나에게' 10:00~18:00 <b>전1·2</b>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b>18</b></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반려동물전 '너는 나에게' 10:00~18:00 <b>전1·2</b>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b>19</b></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반려동물전 '너는 나에게' 10:00~18:00 <b>전1·2</b>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b>20</b></p> <p>부마민주항쟁 40주년 순회공연 '거룩한 양복' 18:00 <b>소</b> 무료(14세 이상 입장가능) (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715-1785)</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반려동물전 '너는 나에게' 10:00~18:00 <b>전1·2</b>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b>24</b></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반려동물전 '너는 나에게' 10:00~18:00 <b>전1·2</b>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b>25</b></p> <p><b>◆</b>(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제2회 해외아동청소년예술축제 '하늘에서 떨어진 해와 달 이야기' 11:00, 14:00 <b>소</b> 3만원·2만원(36개월 이상 입장 가능)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반려동물전 '너는 나에게' 10:00~18:00 <b>전1·2</b>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b>26</b></p> <p><b>◆</b>(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제2회 해외아동청소년예술축제 '에그-션 히어로' 11:00, 14:00 <b>소</b> 전석 3만원(36개월 이상 입장 가능)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반려동물전 '너는 나에게' 10:00~18:00 <b>전1·2</b>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b>27</b></p> <p><b>◆</b>(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제2회 해외아동청소년예술축제 '에그-션 히어로' 11:00, 14:00 <b>소</b> 전석 3만원(36개월 이상 입장 가능)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반려동물전 '너는 나에게' 10:00~18:00 <b>전1·2</b>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b>31</b></p> <p><b>◆</b>(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제2회 해외아동청소년예술축제 '이상한 이웃' 11:00 <b>소</b> 3만원·2만원(5세 이상 권장)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반려동물전 '너는 나에게' 10:00~18:00 <b>전1·2</b>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 COVER STORY

커버스토리



Season Program

새로운 감동, 다채로운 재미, 깊이를 더한 품격

### (재)부산문화회관 2019-20 시즌 프로그램 본격 가동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예비 시즌제를 도입한 (재)부산문화회관이 2019-20 본격적인 시즌 프로그램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올해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되는 (재)부산문화회관 2019-20 시즌 프로그램은 47편의 기획공연과 19편의 부산 시립예술단 공연 등 총 66편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017년 재단 출범 이후, 충실히 내실을 다져온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립예술단은 이번 시즌제를 통해 다양한 기획과 제작, 새로운 신작과 레퍼토리 발굴을 본격적으로 시도한다. 여기에 장르별 균형을 갖춘 프로그램,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다채로운 작품, 지역을 품고 세계를 아우르는 예술적 지평의 확대를 관객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갈 예정이다.

#### 시즌프로그램 문의 및 예매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 ARS 1번 공연기획팀
- ARS 2번 교향악단/합창단
- ARS 3번 무용단/국악관현악단/극단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051)630-5200

- ARS 1번 문화사업팀

※ 평일 09:00~18:00까지 문의 및 예매 가능

## BSCC 2019-20 시즌 프로그램

### 맛있다, 재미있다 우리 삶의 시즌닝!

공연기획팀장 강선옥

‘시즌(season)’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바캉스 시즌, 영국 프리미어리그 시즌, 2019 F/W 시즌 서울패션위크, 미드 <왕좌의 게임> 시즌 8 등. 짐작컨대, 이 ‘시즌’이란 단어에는 볼거리가 있고, 놀거리가 있고, 핫한 그 무엇인가가 꿈틀거리고 있을 것 같지 않은가? 그렇다. ‘시즌’에는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집중적으로 포진되어 있다. 오프 시즌(off-season) 동안 쉬고 있던 우리의 감각과 촉수를 한꺼번에 자극할 다양한 재미의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것이다. 시즌닝(seasoning)이라는 단어에서 보듯 시즌에는 ‘양념을 치다’라는 뜻도 있으니, 극장에서의 시즌 역시 관객들이 입맛에 따라 골라먹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가득한 산해진미의 밥상이 차려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극장에서의 ‘시즌제’란

극장에서 ‘시즌제’의 개념은 공연을 올리는 시기와 쉬면서 준비하는 시기를 구분해, 순환구조로 프로그래밍 하는 공연

장의 운영 전략을 의미한다. 더불어, ‘시즌 프로그램’이란 특정 공연장에서 일정한 기획 목표와 방향에 따라 사전에 확정된 공연작품의 목록과 일정을 말한다. 공연장에서는 미리 준비하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고, 관객의 입장에서는 일정 기간 내에 마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 눈에 보며 미리 공연 관람을 계획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극장에서 시즌제와 병행해 채택하고 있는 ‘패키지 할인 예매제’를 통해, 좋은 좌석을 할인된 가격에 선점할 수 있다는 것도 시즌제가 관객들에게 주는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일 것이다.

#### 시즌 공연, 축제, 예술교육으로

##### 전문 공공 공연장의 포트폴리오 완성

올해 상반기 18편의 공연 프로그램으로 예비 시즌을 도입한 (재)부산문화회관은 하반기를 맞아 본격적인 2019-20 시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17년 재단 출범 이후, 충실히 내실을 다져온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립예술단이 ‘새로운 감동, 다채로운 재미, 깊이를 더한 품격’을 모토로 보다 다양한 기획과 제작, 새로운 신작과 레퍼토리 발굴을 본격적으로 시도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부산을 중심으로 기성과 신진예술가를 아우르는 공연예술 페스티벌까지 포함함으로써, 그동안 다양하고도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사랑받아 왔던 ‘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아카데미’와 더불어 시즌 공연, 축제, 예술교육으로 집약되는 전문 공공 공연장으로서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자 한다.

NT 라이브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







위 || 빈 필하모닉 멤버 앙상블 아래 || <시아와 친구들: 트레저 헌터즈>

### 음악 중심에서 장르별 균형으로

올해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되는 (재)부산문화회관 2019-20 시즌 프로그램은 47편의 기획공연(페스티벌 참여작 포함)과 19편의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등 총 66편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한나 &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Pf. 임동혁)> 등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의 음악뿐만 아니라, 프랑스 최고의 안무가 앙졸랭 프렐조카주의 관능적인 모던발레 <프레스코화>, 영국 국립극장(National Theatre)의 연극을 스크린으로 만나는 'NT 라이브'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배치했다. 이를 통해, 장르별 균형 있는 지역 공연예술의 진흥을 유도하고 관객들이 더 깊고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과 관계 맺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소극장 라이브 뮤지컬의 명불허전 <지하철 1호선>, 크리스마스 가족 관객을 위한 국립발레단의 스테디셀러 <호두까기 인형>, 어린이 관객을 위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시아와 친구들: 트레저 헌터즈>, '조선의 아이돌' 이희문의 <겨침없이 얼씨구> 등도 다양한 관객들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내한공연 5회 연속매진을 기록한 '빈 필하모닉 멤버 앙상블'의 <신년음악회> 역시 특유의 전통적인 음색과 부드럽고 풍부한 연주 스타일로 부산 지역 관객들에게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의 음악적 감동과 신년 분위기를 그대로 전할 것이다.

### 기획에서 제작까지, 부산을 담다

이번 시즌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부산문화회관이 지역 공연예술계의 역량을 결집해 시도하는 자체 제작 프로젝트이다. 본격적인 제작과 우수 레퍼토리 발굴을 목표로 하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오는 9월 연극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무대에 오를 예정이며, 10월에는 '부산오페라 위크(Busan Opera Week)'에 발맞추어 오페라 <리골레토>가 관객들을 초대한다. 부산연극제에서 3차례 연출상을 수상한 바 있는 부산시립극단 김지용 예술감독의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주요 배역진들과 함께 부산 연극 특유의ダイナミック한 힘이 배인 셰익스피어 정치 비극의 진수를 보여줄 것이다. 한국인 최초로 이탈리아 살레르노 베르디 극장에서 데뷔한 이의주 연출가가 부산 지역 최고의 성악가들과 함께 선보일 <리골레토>는 극적인 밀도감과 함께 베르디 오페라 특유의 음악적 긴장과 조화를 선사할 것이다.

### 기성과 신진까지 아우르는 공연예술 페스티벌

본격적인 시즌제와 더불어 (재)부산문화회관은 기성과 신진 예술가를 모두 아우르는 자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부산 지역 관객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가들에게 보다 활발한 예술 활동의 장과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용홀인 챔버홀 개관 3주년을 맞아 8월에 개최되는 <2019 부산문화회관 챔버 페스티벌>은 '노부스 콰르텟', '슈투트가르트

페가소스 현악4중주단' 등 국내외 유수의 앙상블이 참여하는 화려한 라인업으로 실내악의 향연을 펼친다. 12월에는 전 공연예술 장르를 망라한 공모를 통해 부산 지역 차세대 예술인들의 활약상과 실험적인 작품 경향을 일별할 수 있는 <부산 신진예술인 페스티벌-넥스트 제너레이션 부산(Next Generation BUSAN)>도 개최할 예정이다.

### 다양한 스펙트럼의 부산시립예술단 시즌 공연

신임 예술감독들의 취임과 함께 전열을 정비하며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부산시립예술단의 2019-20 시즌 프로그램도 눈부시다. 먼저, 창의적인 프로그래밍 감각의 최수열 상임지휘자가 이끄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오슬로 필하모닉 수석 호른니스트 김홍박과의 협연 <프렌치 호른>(9월), 뒤셀도르프 심포니의 수석 첼리스트 김두민과의 협연 <부산 신사>(10월)를 선보인다. 또한, 11월에는 오르가니스트 신동일 연세대학교 교수와의 협연 <아홉, 열, 열하나>를 통해 국내 최초로 시도한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전곡 사이클 프로젝트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부산시립극단은 오는 12월,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자기만의 색깔로 풀어내는 양지웅 연출가와 만나 동서양의 경계와 시대를 가로지르는 새로운 <오텔로>를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 수석지휘자, 안무가 선정을 위한 '거장들의 다채로운 무대 프로젝트'

예술적 스펙트럼의 확장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합창단의 '거장들의 다채로운 무대 프로젝트'도 주목해야 한다. 3개 시립예술단체의 수석지휘자 및 안무가 선정을 위해 각 장르별 거장들의 객원지휘, 또는 객원안무로 구성되는 이번 시리즈에서 김인재, 이기선, 아드리안 슈타나케(Adrian Stanache) 등의 지휘자가 참여하는 부산시립합창단 공연이 6월 말부터 11월까지 3차례 펼쳐진다. 또한 김종욱, 박상후, 진성수, 문형희 지휘자 등이 참여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공연이 오는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4차례, 그리고 이정윤, 김수현 안무가가 참여하는 부산시립무용단 신작공연이 오는 11월과 내년 3월 각각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 시즌 패키지 할인 = 착한 가격 + 좋은 좌석의 완벽한 조합

자, 조선시대 왕실의 12첩 반상을 능가하는 (재)부산문화회관 2019-20 시즌 프로그램의 맛깔 나는 다양한 메뉴를 다 확인하였는가? 그렇다면 이제 이 진수성찬을 맛볼 시간과 장소를 예약할 차례다. 시즌제의 또 다른 묘미는 내 입맛에 맞는 공연을 묶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패키지 할인 예매! 부산문화회관의 이번 시즌 프로그램은 음악, 무용, 연극 등 장르별 패키지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 최고의 공연만 묶은 '명품 패키지', 어린이와 가족 관객을 위한 '키즈 패키지', 부산시립예술단의 객원 마스터즈들의 공연을 묶은 '거장 패키지' 등 다양한 구성을 통해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예매가 가능하다. 부산문화회관(Tel. 051-607-6000/ARS 1번)으로 전화하시라. 윈스톱 예매 서비스에, 미리 선점하는 좋은 좌석은 패키지 예매의 덩이다.

착한 가격에 잘 차려진 밥상. 이제 수저를 드는 일만 남았다. 입 안 가득 퍼질 시즌제의 참맛을 음미하는 것은 오로지 당신의 몫. 막이 오름과 동시에 극장이 주는 안전한 어둠 속에서, 일상을 넘어 또 다른 시간과 공간을 만나는 당신의 삶은 한층 더 새롭고 풍요로워질 터이니, 들뢰즈(G. Deleuze)의 말처럼 '감동은... 겪는 사람 밖으로 넘쳐나는 생성'이므로 말이다.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새로운 감동, 다채로운 재미, 깊이를 더한 품격  
**(재)부산문화회관 2019-20 시즌 프로그램**

**연극**



**9.7** (토) 3:00pm | 문화회관 중극장  
**소극장 라이브 뮤지컬의 명불허전**  
 <지하철 1호선>  
 R 30,000 / S 20,000



**9.19** (목)~**22** (일) | 문화회관 중극장  
 목·금요일 7:30pm, 토·일요일 4:00pm  
**셰익스피어 정치 비극**  
 <율리우스 카이사르>  
 R 30,000 / S 20,000



**10.6** (일), **11.10** (토) 2:00pm, 6:00pm  
 | 문화회관 중극장  
**영국 국립극장의 공연을 라이브로 만나다**  
 NT Live  
 <프랑켄슈타인>,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All Seats 20,000



**20.2.15** (토), **2.29** (토) 2:00pm, 6:00pm  
 | 문화회관 중극장  
**영국 국립극장의 공연을 라이브로 만나다**  
 NT Live  
 <헤다 가블러>,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턴은 죽었다>  
 All Seats 20,000



**페스티벌**



**8.14** (수)~**30** (금) | 문화회관 챔버홀  
 평일 7:30pm, 주말 및 공휴일 5:00pm  
**2019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All Seats 20,000



**12.26** (목)~**31** (화)  
 | 문화회관 대극장, 중극장, 챔버홀, 시민회관 소극장  
**2019 부산 신진예술인 페스티벌**  
 ※세부 일정 및 내용 추후 공지 / 패키지 제외

**무용**



**11.6** (수)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프랑스 최정상 안무가의 관능적인**  
**모던 발레 프렐조카주 발레단**  
 <프레스코화>  
 R 80,000 / S 60,000 / A 40,000



**12.6** (금)~**7** (토) | 문화회관 대극장  
 금요일 7:30pm, 토요일 3:00pm  
**국립발레단의 크리스마스 선물**  
 <호두까기인형>  
 R 80,000 / S 60,000 / A 40,000



**12.13** (금)~**14** (토) | 시민회관 소극장  
 금요일 11:00am, 7:30pm, 토요일 3:00pm  
**어른들이 보는 겨울동화 시리즈**  
 <미운 오리 새끼> (렉처퍼포먼스)  
 (예술감독 이태상)  
 All Seats 20,000

**클래식 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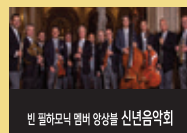
**10.25** (금) 7:30pm | 시민회관 소극장  
**잊혀지지 않는 치명적 유혹의 리듬**  
**남성현악5중주 <볼로시 VOLOSI>**  
 V 50,000 / R 30,000 / S 20,000



**11.14** (목)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장한나X임동혁 첫 만남**  
 <장한나 &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Pf. 임동혁)>  
 V 120,000 / R 90,000 / S 60,000 / A 30,000



**12.3** (화)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세계무대 데뷔 30주년 기념**  
 <백혜선 독주회>  
 R 50,000 / S 30,000 / A 20,000



**20.1.10** (금)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내한공연 5회 연속 전석 매진!**  
 <빈 필하모닉 멤버 앙상블  
 신년음악회>  
 R 70,000 / S 50,000 / A 30,000 / B 20,000



**20.2.15** (토) 5:00pm | 문화회관 대극장  
**스윗 발렌타인데이**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R 70,000 / S 50,000 / A 30,000 / B 20,000

**오페라**



**9.30** (월)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2019 부산 오페라 WEEK 인 콘서트**  
 <세빌리아의 이발사>  
 R 50,000 / S 30,000 / S 20,000

**10.1** (화) 7:30pm | 문화회관 중극장  
**2019 부산 오페라 WEEK 갈라 콘서트**  
 <사랑의 묘약>  
 R 50,000 / S 30,000 / S 20,000

**10.5** (토)~**6** (일) 6:00pm  
 | 문화회관 대극장  
**2019 부산 오페라 WEEK 전막 오페라**  
 <살로메>  
 V 100,000 / R 70,000 / S 50,000 / A 30,000

**10.11** (금)~**13** (일) | 문화회관 대극장  
 금요일 7:30pm, 토·일요일 6:00pm  
**극적인 밀도, 음악적 긴장과 조화,**  
**베르디 최고의 오페라 <리골레토>**  
 V 100,000 / R 70,000 / S 50,000 / A 30,000

**가족 & 어린이**



**8.30** (금) 7:30pm | 문화회관 중극장  
**샌드애니메이션과 함께하는**  
**문학콘서트 <소나기>**  
 R 20,000 / S 10,000



**9.28** (토) 3:00pm | 문화회관 중극장  
**유니크와 샌드아트가 들려주는**  
**<어린왕자 이야기>**  
 R 20,000 / S 10,000



**11.16** (토) 3:00pm | 문화회관 중극장  
**시아와 친구들의 보물원정대**  
 <시아와 친구들 : 트레저 헌터즈>  
 R 20,000 / S 10,000

**마티네**



**8.28/10.2/11.20** (수) 11:00am | 중극장  
**오전에 듣는 오페라 아리아의 향연**  
 <마티네 콘서트 시즌5>  
 All Seats 10,000  
 ※티켓 예매 진행 중(매키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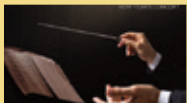
**콘서트**



**12.31** (화) 10:30pm | 문화회관 대극장  
**2019 제야음악회** (객원지휘 여자경)  
 R 30,000 / S 20,000 / A 10,000  
 ※세부 내용 추후 공지 / 패지키 제외



**9.6** (금) 7:30pm | 시민회관 소극장  
**조선의 아이들, 오방신 이희문의**  
 <거침없이 열썬>  
 V 50,000 / R 30,000 / S 20,000



**20.1.21** (화) 7:30pm | 시민회관 소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부산시민회관 새해음악회  
 All Seats 10,000



**20.2.14** (금) - 15 (토) | 시민회관 소극장  
 금요일 7:30pm, 토요일 5:00pm  
**추억의 포크송 <동물원> 콘서트**  
 R 55,000 / S 44,000

**부산시립예술단 수석지휘자·안무자 선정 공연 시리즈**  
 '거장들의 다채로운 무대 프로젝트' 패키지



**6.28** (금)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합창단 제175회 정기연주회**  
 <전쟁과 평화 - 6월의 기억>  
 (객원지휘 김인재)  
 All Seats 10,000



**9.26** (목)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합창단 제176회 정기연주회**  
 <자연을 노래하다>  
 (객원지휘 이기선)  
 All Seats 10,000



**11.19** (화)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합창단 제177회 정기연주회**  
 <세계를 품다>  
 (객원지휘 Adrian Stanache)  
 All Seats 10,000



**8.22** (목)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2회 정기연주회**  
 <마스터 피스 in 부산>  
 (객원지휘 김종욱)  
 R 10,000 / S 5,000



**10.31** (목)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3회 정기연주회**  
 <공존(共存): 자연 그리고 인간>  
 (객원지휘 박상후)  
 R 10,000 / S 5,000



**12.24** (화)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4회 정기연주회**  
 <Odyssey : 긴 여정>  
 (객원지휘 진성수)  
 R 10,000 / S 5,000



**20.2.25** (화)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5회 정기연주회**  
 <서으로 가는길>  
 (객원지휘 문형희)  
 R 10,000 / S 5,000



**11.28** (목)~**29** (금)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무용단 제80회 정기공연**  
 <南風 - South Breeze>  
 (객원안무 이정운)  
 All Seats 10,000



**20.3.19** (목)~**20** (금)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무용단 제81회 정기공연**  
 <Odyssea FE2020b>  
 (객원안무 김수현)  
 All Seats 10,000

**부산시립예술단**



**9.27** (금)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4회 정기연주회**  
 <프렌치 호른>  
 (지휘 최수열, 호른 김홍박)  
 R 20,000 / S 15,000 / A 10,000 / B 5,000



**10.25** (금)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5회 정기연주회**  
 <부산 신사>  
 (지휘 최수열, 첼로 김두민)  
 R 20,000 / S 15,000 / A 10,000 / B 5,000



**11.22** (금)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6회 정기연주회**  
 <아름.열.열하다.>  
 (지휘 최수열, 오르간 신동일)  
 R 20,000 / S 15,000 / A 10,000 / B 5,000



**11.29** (금) 7:30pm | 문화회관 챔버홀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실내악 공장>  
 All Seats 10,000



**12.4** (수) 9:00pm | 문화회관 중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심야음악회>  
 All Seats 10,000



**12.19** (목)~**20** (금)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7회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  
 R 20,000 / S 15,000 / A 10,000 / B 5,000



**20.1.16** (목), **1.17** (금)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8회 정기연주회**  
 <2020 신년음악회>  
 R 20,000 / S 15,000 / A 10,000 / B 5,000



**20.2.14** (금) 7:30pm |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9회 정기연주회** (지휘 아드리앙 페뤼송)  
 R 20,000 / S 15,000 / A 10,000 / B 5,000



**12.12** (목)~**14** (토) | 문화회관 중극장  
 목·금요일 7:30pm, 토요일 5:00pm  
**부산시립극단 제66회 정기공연**  
 <오델로> (객원연출 양지웅)  
 All Seats 10,000



# Package Ticket

패키지 티켓 오픈

6.27 (목)

오후 2시

2019-20  
BSCC

## 명품 패키지

- 명품 공연 5편 동시 구매 시 30% 할인
  - 명품 공연 3편 동시 구매 시 20% 할인
- 명품 1. 잊혀지지 않는 치명적 유혹의 리듬 남성현악5중주 <볼로시 VOLOSI>  
명품 2. 프랑스 최정상 안무가의 관능적인 모던 발레 프렐조카쥬 발레단 <프레스코화>  
명품 3. 장한나X임동혁 첫 만남 <장한나 &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Pf. 임동혁)>  
명품 4. 세계무대 데뷔 30주년 기념 <백혜선 독주회>  
명품 5. 국립발레단의 크리스마스 선물 <호두까기인형>  
명품 6. 내한공연 5회 연속 전석매진! <빈 필하모닉 멤버 앙상블 신년음악회>  
명품 7. 스위트 발렌타인데이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 \* 최고등급 V+R 교차 예매 가능

## 연극 패키지

- 연극 공연 2편 동시 구매 시 30% 할인
- 연극 1. 소극장 라이브 뮤지컬의 명불허전 <지하철 1호선>  
연극 2. 셰익스피어 정치 비극 <율리우스 카이사르>
- Ⓜ 60,000 > 42,000   Ⓞ 40,000 > 28,000

## NT Live 패키지

- 4편 동시 구매 시 50% 할인
  - 2편 이상 동시 구매 시 20% 할인
- NT Live 1. <프랑켄슈타인>  
NT Live 2.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NT Live 3. <헤다 가블러>  
NT Live 4.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텐은 죽었다>

## 음악 패키지

- 음악 공연 5편 동시 구매 시 30% 할인
  - 음악 공연 3편 이상 구매 시 20% 할인
- 음악 1. 잊혀지지 않는 치명적 유혹의 리듬 남성현악5중주 <볼로시 VOLOSI>  
음악 2. 장한나X임동혁 첫 만남 <장한나 &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Pf. 임동혁)>  
음악 3. 세계무대 데뷔 30주년 기념 <백혜선 독주회>  
음악 4. 내한공연 5회 연속 전석매진! <빈 필하모닉 멤버 앙상블 신년음악회>  
음악 5. 스위트 발렌타인데이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 \* 최고등급 V+R 교차 예매 가능

## 오페라 패키지

- 오페라 공연 4편 동시 구매 시 40% 할인
  - 오페라 공연 2편 이상 구매 시 30% 할인
- 오페라 1. 2019 오페라 WEEK 인 콘서트 <세빌리아의 이발사>  
오페라 2. 2019 오페라 WEEK 갈라 콘서트 <사랑의 묘약>  
오페라 3. 2019 오페라 WEEK 전막 오페라 <살로메>  
오페라 4. 극적인 밀도, 음악적 긴장과 조화, 베르디 최고의 오페라 <리골레토>
- \* 최고등급 V+R 교차 예매 가능

## 무용 패키지

- 무용 공연 3편 동시 구매 시 20% 할인
- 무용 1. 프랑스 최정상 안무가의 관능적인 모던 발레 프렐조카쥬 발레단 <프레스코화>  
무용 2. 국립발레단의 크리스마스 선물 <호두까기인형>  
무용 3. 어른들이 보는 겨울동화시리즈 <미운오리새끼>(렉처퍼포먼스)
- Ⓜ 180,000 > 144,000   Ⓞ 140,000 > 112,000   Ⓐ 100,000 > 80,000

# SEASON PROGRAM

## 패키지 문의 및 예매

### ■ 가능시간

평일 09:00~18:00

### ■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ARS ① 공연기획팀

ARS ② 교향악단  
합창단

ARS ③ 무용단  
국악관현악단  
극단

### ■ 시민회관본부 문화사업팀

051)630-5200 (ARS ①)

## 멤버 페스티벌 패키지

- 페스티벌 공연 10편 동시 구매 시 40% 할인
- 페스티벌 공연 5편 이상 동시 구매 시 30% 할인
- 페스티벌 공연 3편 이상 동시 구매 시 20% 할인

## 키즈 패키지

- 어린이 공연 3편 동시 구매 시 50% 할인  
어린이 1. 샌드애니메이션과 함께하는 문학콘서트 <소나기>  
어린이 2. 유니크와 샌드아트가 들려주는 <어린이왕자 이야기>  
어린이 3. 시아와 친구들의 보물원정대 <시아와 친구들 : 트레저헌터즈>  
⑧ 60,000 → 30,000    ⑤ 30,000 → 15,000

## 부산시립예술단 수석지휘자·안무자 선정 공연시리즈

### '거장들의 다채로운 무대 프로젝트' 패키지

- 공연 7편 동시 구매 시 50% 할인
- 국악 공연 4편 동시 구매 시 40% 할인
- 합창 공연 3편 동시 구매 시 40% 할인
- 무용 공연 2편 동시 구매 시 40% 할인  
거장 1. 부산시립합창단 제175회 정기연주회(객원지휘 김인재)  
거장 2.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2회 정기연주회(객원지휘 김종욱)  
거장 3. 부산시립합창단 제176회 정기연주회(객원지휘 이기선)  
거장 4.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3회 정기연주회(객원지휘 박상후)  
거장 5. 부산시립합창단 제177회 정기연주회(객원지휘 Adrian Stanache)  
거장 6. 부산시립무용단 제80회 정기공연(객원안무 이정윤)  
거장 7.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4회 정기연주회(객원지휘 진성수)  
거장 8.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5회 정기연주회(객원지휘 문형희)  
거장 9. 부산시립무용단 제81회 정기공연(객원안무 김수현)

## 부산시립예술단 자유패키지(총 10개)

- 교향악단 특별공연 및 2020년 공연, 극단 공연 등 3편 동시 구매 시 30% 할인
- 예술단 공연 2편 이상 동일등급 동시 구매 시 20% 할인  
\* 2019년 교향악단 공연 제외

## 자유 패키지

- 문화/시민회관 공연 5편 이상 동시 구매 시 30% 할인
- 문화/시민회관 공연 3편 이상 동시 구매 시 20% 할인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제외

## 패키지 구매 시 유의사항

- 패키지 예매는 전화예매만 가능합니다.
- 모든 패키지는 동일좌석등급으로 선택 가능합니다.(동일공연 중복선택 불가)
- 모든 패키지 상품은 묶음 상품으로 개별취소는 불가합니다.
- 모든 패키지 상품은 구성공연 첫 공연 시작 이후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패키지 취소는 첫 공연 전날 오후 5시까지 가능 / 전화취소만 가능  
\* 단, 첫 공연이 일요일 또는 월요일일 경우, 그 전주 금요일 5시까지 취소 가능
- 패키지 구성공연의 상황에 따라 패키지 예매가 조기매진 될 수 있습니다.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 “네? 저 친구는 개런티가 없다고요?” 오페라 ‘코지 판 투테’ 오지랴 대소동

## 이의주의 100자 스토리 ‘코지 판 투테’

해군 장교 페란도와 굴리엘모는 자신들의 애인 도라벨라와 피오르딜리지 자매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을 거라는 확신 속에 철학자 알폰소와 내기를 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상대방을 향하게 되면서 한바탕 소란이 있게 되고, 알폰소는 착한 마무리로 서로에게 더 충실하자고 하며 막이 내린다.

오페라 ‘코지 판 투테’  
(2018년 국립오페라단)



필자가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중) 음악원에서 오페라 연출로 재학 중이던 당시에는 실기와 실습 위주의 교육방침 덕분에 실제 공연의 무대 제작에 많이 참여할 수 있었다. 특히 방학기간 동안에는 여러 곳에서 조연출, 무대감독 그

리고 소극장 연출까지 많은 작품들이 쇄도하곤 했다. 한예중 전문사(대학원) 과정에 입학했던 2000년, 밀레니엄 학번이었던 필자는 이미 여러 번 글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1993년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공연이었던 ‘카르멘’ 때부터 제작진으로 참여했으니 군복무 기간이 있기는 했지만 8년차 스태프로 알게 모르게 이 바닥에 많은 인맥이 쌓이면서 늘 끊임없이 작업 참여요청을 받았다. 사실 지금이나 예전이나 경험있고 푹푹한 스태프를 구하기란 어려웠고, 특히 무대감독이나 조연출은 연출자에게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시 한예중 전문사 연출 전공자는 인기가 많았다. 게다가 한 기수에 1~2명밖에 없으니 수급난은 더욱 어려웠을 터...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개회식, 독립기념관 개관식, 광복 50주년 기념식 그리고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개·폐회식,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개·폐회식은 물론 대통령 취임식 등 셀 수 없이 많은 국가적 대형 문화행사를 연출했던, 그러나 안타깝게 체장암으로 작고한 유경환(1941-2004) 감독님의 수석감독 출신으로, 당시 드물게 여성 무대감독은 물론 연출로도 활동을 한 장윤경 감독님은 나에게 연출가가 되기 위해서는 가수들과 직접적으로 동선 실습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하며 모차르트의 오페라 ‘코지 판 투테’의 협력 연출과 무대감독을 맡겼다. 나는 장윤경 감독님을 통해 직, 간접적으로 전설의 유경환 감독님을 알게 되었고, 사실상 동선을 굿는 스킬을, 그것도 직접적으로 베테랑 성악가와 작업을 할 수 있었다. 한예중 전문사에 들어가기 이전 해에 이미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코지 판 투테’의 무대감독으로 데뷔했으나, 그때는 당시 국립오페라단 단장님이었던 박수길 한양대학교 명예교수님의 한글어 번역이었고, 이번에는 원어 공연으로 하는 것이었기에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었다. 그것도 다 이 분 덕분이었다. 무대감독 데뷔 당시 나를 많이 도와준, 세종문화회관 무대팀과 무대감독이 아직도 생각이 난다. 그때가 벌써 20년 전이니 세월 참 잘 간다.

한 가지 여담을 이야기 하자면 그때 무대감독 일이 너무 재

미었고 신났고, 사실 폼 났다. 내가 바라던 무대에서 무전기를 들고 지시하는 그 직책이 정말 멋있어서 연출을 하지 말고 전문 무대감독을 할까 했는데, 장윤경 감독님이 내게 “연출가로 성장하려면 꼭 무대감독을 거쳐야 하지만 내가 너한테 무대감독의 기회를 주는 이유는 꼭 무대감독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라 하시며 “하지만 무대감독이 워낙 매력적인 작업이니 잘 생각해, 근데 너는 연출이 맞을거야. 네 적성에”라고 하셨다. 오페라 연출가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각 파트별로 스태프 경험을 해야 하는데 내 견해로는 우선 무대 공연 소품 담당 ⇨ 무대 제작 ⇨ 의상 담당 스태프를 거쳐 분장 ⇨ 조명(조명의 경우는 스포트라이트 잡는 경험이 꼭 필요) ⇨ 자막(수정 교정 작업은 물론 실제 공연에서 운용), 그리고 조연출로서 동선 관련 작업, 여기에 특히 연기와 안무에 대한 부분을 습득하는 등 연출부 경험을 최소 5~8년 정도 하고 난 후 극장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꼭 무대감독이라는 관문을 3~5년 정도 거쳐야 비로소 연출이라는 분야로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원어로 하는 ‘코지 판 투테’를 한글로 알고 있었지만, 새롭게 텍스트 공부를 하면서 가장 먼저 작품 전체를 통째로 외워버렸다. 그렇게 작품의 분석과 음악적인 결합을 연구하며 성악가 선생님들과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다. 일을 시작하지 며칠 후 당시 경험이 많은 조연출이 투입되었는데 나보다 연배가 위었다. 일을 하며 밥도 같이 먹고, 광장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재료도 사러 다니고, 군대 얘기도 하는 중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개런티 얘기가 나왔는데, 나는 연출님이 불러서 공식적으로 오페라단에서 계약을 하고 투입된 케이스고, 그 조연출은 (스태프들이 부족한 것을 안 캐스트) 성악가 선생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일을 하게 된 것이다. 나는 정확하게 얼마의 보수를 받게 되는 것이 정해져 있었고, 그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보다 더 경험 많고 일도 많이 하는데 페이가 없더니!’ 하며 난 흥분하기 시작했다. 조연출은 내게 신경쓰지 말라고 했지만, 난 의협심에 불타 하루는 연습이 끝나고 연출가에게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 “왜 이분은 개런티가 책정이 안 되어 있죠? 같은 스태프들끼리 이러면

안 되죠?”하며 연출가에게 그 조연출을 데리고 가서 따지기 시작했다. 사실 오페라단의 예산은 국립이나 사립 오페라단이나, 지금이나 예전이나 뻥하고 미래의 흥행을 보장할 수 없기에 특히 당시 사립단체는 ‘나중에 잘 되면 많이 챙겨줄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연출가는 내게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자, 자 의주야,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하시면서 내게 눈짓으로 나의 흥분을 진정시키는데 나는 “연출님! 왜 저희 앞에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은 안하시고, 따로 얘기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왜 따로 얘기해요? 지금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제게 링크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 좋아하시는 거예요? 링크 그만하세요!!!” 나의 이 얘기에 어이없어 하는 연출가의 그 표정이 선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웃픈 현실이다. 무대의 감동을 전해 주기 위해 뒤에서 불철주야 열심히 뛰는 스태프들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다음날, 연출가는 나를 따로 불러서 담배를 한 모금 빨았다가 뱉으시며 차분하게 타이르기 시작하였다. “의주야, 나 역시 그의 처우에 대해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냐, 내가 부른 스태프는 아니지만 정 안되면 내 개런티에서 주려고 했었지. 하지만 일을 하다보면 너와 관계되지 않은 부분, 특히 돈 문제에 관해서는 서로 얘기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야. 굳이 네가 관여할 필요없는 부분으로 상대방에게 다른 생각을 할 여지를 주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배려가 아니야”라고 아주 다정하게, 그러나 냉정하게 말씀하셨다. 이 놈의 오지랖! 굳이 내가 간섭할 필요 없는 명백한 오지랖이었다. 당시 나는 공연 후 그 조연출이 돈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몇 년 후 다시 그를 만났을 때 웃으며 그때 고마웠다고 한 것을 보면 일이 잘 해결되었던 것 같다.

나는 이 일 이후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물론 나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자로서는 아니지만 가끔은, 어떠한 경우는 알고 고하지 말고 아는 척 하지 않고 슬쩍 지나가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무대는 관객에게 쉽고 배려를 주는 곳이니까.



# MUSEUM OF EUROPE

유럽 박물관 기행



##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의 보물창고 빈 미술사박물관

글·사진 김성민 부산대학교 외래교수, 유로자전거나라 교육팀장

- 1 빈 미술사박물관 전경
- 2 빈 미술사박물관 맞은편에 위치한 빈 자연사박물관
- 3 오스트리아 빈 전경

### 클래식음악의 대중화

요즘 클래식 공연(성악)을 가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프로그램의 대중화를 들 수 있겠다. 15년 전만 하더라도(필자가 외국으로 유학가기 전) 성악가나 합창단이 무대 위에서 뮤지컬이나 대중가요를 부르는 것을 볼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정규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앙코르 공연에서 한 곡 정도는 꼭 듣게 된다. 일부 보수적인 클래식 애호가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만 연주자들 입장에서는 청중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면 반응이 없으니 이런 현상을 무조건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우리나라에도 S음대의 P교수가 1989년에 대중가수와 음반을 냈을 때,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지만, P교수가 속해있던 오페라 단체에서는 격이 떨어진다고 P교수를 퇴출시켰다는 이야기가 있다. 클래식 음악은 격이 있고 대중음악이 격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아마 상공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으로 인한 중산층이 클래식 음악을 누리기 전이었던 고전시대나 바로크 시대를 생각하고 말한 것 같은데, 과연 과거의 그 생각이 현대 사회에서도 통용되어야 하는지는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매우 위험한 표현이지만 지금 BTS가 대중음악을 한다고 격이 떨어진다고 누가 과연 말할 수 있을까?(오해하지 말기를 필자는 BTS를 좋아한다)

### 빈 미술사 박물관

오스트리아 빈은 예로부터 합스부르크 가문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된다. 합스부르크 가문은 선제후 자격으로 독일연맹체를 이끌었고 전쟁이 아닌 혼인정책을 통해 플랑드르 지역(지금의 벨기에, 네덜란드)과 스페인까지 다스리게 된다. 르네상스 시대 군주였던 카를 5세(Karl V, 1500~1556) 이후 합스부르크 가문이 다스리던 스페인과 오스트리아는 각각 아들과 남동생에게 분할되어 각자의 길을 걷게 되는데,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은 중앙 유럽에서 무역의 중심지이자 이슬람 세력을 막는 첨병 역할을 하며 발전하게 된다. 원래 합스부르크 가문의 예술 수집품들은 인스부르크 근처



1



2



3



유럽 박물관 기행

암브라스성, 뉘른베르크, 아퀴스그라나에 나누어져 보관되었는데, 나폴레옹의 위협을 느낀 왕가는(나폴레옹은 문화재를 훔쳐가는 것으로 유명했다) 1차로 빈 벨베데레 궁전에 모든 예술품을 모으게 된다. 이후 1848년 프란츠 요제프 황제는 낡고 도시의 확장을 막는 오래된 성벽을 허물고 거대한 순환도로(Ringstrasse)를 만들며 공공건물들을 지었는데, 예전 왕가의 궁전으로 사용되던 호프부르크 궁전의 맞은편에 거대한 두 개의 박물관 건물을 짓게 된다. 첫 번째 건물에는 과학박물관이 들어서고 두 번째 건물에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미술사박물관이 들어서게 된다.

1891년 공식적인 개관을 한 빈 미술사박물관은 유럽 전역을 통치했던 합스부르크 가문의 컬렉션 대부분을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그림뿐만 아니라 고대 이집트와 로마시대의 조각부터 다채로운 작품들이 보관되어 있고, 모든 작품을 보려면 반나절 정도는 필요하다. 바로크 시대의 거장 루벤스, 렘브란트 작품과 (진주 귀걸이 소녀로 유명한) 페르메이르 등 플랑드르 지역 화가들의 작품들을 다수 소장하고 있는데 합스부르크 가문이 플랑드르 지역을 다스렸던 역사를 알면 쉽게 이해가 된다. 특히 살아생전 농민들을 많이 그렸던 피터르 브뤼헬(Pieter Brueghel 1525?~1569)의 작품이 가장 많이 소장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작품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4 피터르 브뤼헬 '농민의 결혼식'

5-6-7 '농민의 결혼식' 부분 장면



농민 화가 피터르 브뤼헬(Pieter Brueghel, 1525~1569)

네덜란드를 다스리던 합스부르크의 프란츠 에른스트 대공은 생전에 브뤼헬의 작품을 높게 평가하고 구매했는데 덕분에 빈 미술사박물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브뤼헬의 작품을 소유하고 있다. 피터르 브뤼헬은 500년 전 사람들이 잘 그리지 않았던 농민들을 그렸던 화가로 유명하다. 그림이 그려질 당시, 일명 격조 높고 배운 사람들 사이에서, 농민들은 가장 비천한 계층으로 여겨졌다. 특히 하루하루의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농민들의 모습은 소수의 권력층 사이에서는 일종의 조롱거리였는데 그런 이유 때문인지 당시 음식을 먹는 모습을 그린 작품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농민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 장면을 표현한 브뤼헬의 '농민의 결혼식'은 정말 특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가난한 농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창고 같은 곳에서 결혼식 파티가 진행되고 있다. 사선으로 배치된 테이블을 통해 활기찬 모습이 전해진다. 보온을 목적으로 밖에서 썼던 모자들을 여전히 다 쓰고 있는 것은 창고가 얼마나 추운지 알 수 있다. 가운데 벽에는 초록색 천과 종이 관으로 소박하게 꾸민 부분이 있는데 그 앞에 신부로 보이는 여인이 있고 그 오른쪽으로 신부의 어머니와 유일하게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은 신부의 아버지가 있다. 작품을 보면 모두들 허겁지겁 음식을 먹고 있는데 특히 작



8 빈 분리파 전시관 정면  
9 빈 미술사박물관 내부



폼 가운데 붉은 옷과 흰 바지를 입고 있는 배고픈 약사가 보잘 것 없는 스프를 보고 입을 벌린 채 쳐다보는 모습이나 감상자와 가장 가까운 부분에 앉아서 누군가에게 얻은 큰 모자를 쓰고 다 먹어버린 스프가 아쉬워서 손가락을 빨고 있는 어린 소녀의 모습은 우습기도 하면서 슬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작품은 우스꽝스러운 농민들의 모습만 표현한 것이 아니다. 테이블 가장 오른쪽을 보면 음식을 쳐다보지 않고 대화에 열중하는 두 남자들이 있는데 작품 속에서 유일하게 배가 고프지 않아 보이는 이들의 복장을 보면 당시 비교적 부유한 삶을 살았던 성직자와 계급이 높은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브뤼헬은 자신의 작품 대부분에서 소위 격 떨어지는 농민들의 모습을 그렸지만 그 속에는 시대를 풍자하는 날카로운 메시지가 담겨 있었고, 이런 이유로 지금은 그 누구도 브뤼헬을 하찮은 농민이나 그렸던 격이 떨어지는 화가라고 말하지 않는다.

**수준 낮은 예술, 수준 높은 예술**

필자가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할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의 독창회에 간 적이 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오페라 아

리아를 기대하고 갔으나, 독창회 프로그램 대부분은 내가 고등학교 때 불렀던 가곡들이었고 심지어 대중가요가 섞여 있어 조금 실망했었다. 하지만 공연이 시작되자 대가의 목소리를 통해 음악이 전해지는데, 내가 경험했던 그 어떤 연주회보다 수준 높은 공연이었다. 그 이후로 필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예술은 그 자체로 평가를 받아야하며 어떤 기준으로 수준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알게 되었다. 과연 세상에 격이 떨어지는 예술이 있을까? 그 기준은 누가 결정하는 것일까? 18세기 오스트리아 빈에서 철저한 대중성을 가지고, 두 쌍의 남녀가 스와핑을 할 뻔했던 내용을 오페라로 만든 모차르트를 누가 격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까? 빈 미술사박물관에서 조금만 걸으면 빈 분리파전시관(Secession)이 있다. 100년 전, 새로운 예술을 주장했던 그들의 정신이 건물 앞에 적혀있는데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적용되는 것 같다.

*'Der Zeit ihre Kunst, Der Kunst ihre Freiheit'*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예술을, 예술에는 자유를)



테마가 있는 여행

## 충절의 고장 진주로 떠나는 초여름 여행

낮 시간이 1년중 가장 길다는 하지(夏至)를  
일주일 여 앞두고 초여름의 기운이 완연하던  
지난 6월 14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과 떠나는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 1 진주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진주성
- 2 영남 제일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누각 '축석루'
- 3 진주도심을 가로지르는 남강
- 4 최초의 임진왜란 전문 역사박물관인 국립진주박물관
- 5 남강댐이 내려다보이는 남강댐 물문화관



6월에 떠나는 테마여행지는 진주성 대첩의 영웅 김시민과 왜장을 안고 남강에 몸을 던진 의기(義妓) 논개의 구국혼이 서려있는 충절의 고장 진주. 평일 출근길임에도 막힘없이 달리는 버스 안에서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에 대한 설렘으로 정기회원 가족들의 정답이 계속 이어진다.

두시간 여를 달려 처음 도착한 곳은 진주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진주의 성지 진주성. 진주성의 실질적인 정문이자 주 출입문으로, 진주성의 북쪽에 자리한 공북문(拱北門)에 도착하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문화유산해설사가 회원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오랜만에 찾은 진주성은 잔뜩 찌푸린 흐린 날씨에도 답사온 관광객들로 북적거렸다.

외적을 막기위해 삼국시대부터 조성된 진주성은 특히 선조 25년인 1592년 왜군 2만이 침략해오자 이에 맞서 김시민 장군이 이끄는 3,800여명의 군사와 백성들이 힘을 합쳐 물리친,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진주대첩이 일어났던 곳이다. 이 곳에는 진주의 상징이자 영남 제일의 명승인 축석루를 비롯해 논개가 순국한 바위인 의암(義巖), 논개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당인 의기사(義妓祠),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전공을 새긴 전공비, 진주성 내문의 관문이자 진주성에 현존하는 최고의 건물인 영남포정사, 진주성을 방어하던 포진지인 포루 등 역사적인 유적지가 남아있다.

지난 2000년 건립된 김시민 장군의 동상을 거쳐 진주대첩 당시 진주성의 관군과 백성들의 주요 식수원으로 사용됐던 3곳의 우물 중 한 곳을 복원한 진주성 우물을 돌아본 후 진주성을 상징하는 축석루로 발길을 옮겼다. 진주성의 남쪽 벼랑위에 우뚝 솟아있는 축석루는 영남 제일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누각으로, '강 가운데 돌이 우뚝 솟은 바위에 세워졌다고 해서 '축석루(矗石樓)'라 이름 붙여졌다고 한다. 축석루는 전시(戰時)에는 진주성을 지키는 지휘본부였고, 평화로운 시절에는 시인 묵객들이 풍류를 즐기던 명소이자 또 과거를 치르는 고시장으로 쓰이기도 했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축석루에 올라가 앉자 과거 문인들이 남긴 현판과 시판들이 한 눈에 들어온다.





테마가 있는 여행



6·7 냅킨 아트 체험

축석루를 나와서 아래 강변으로 내려가자 논개가 왜장을 끌어안고 투신했던 바위 '의암'이 눈에 들어온다. 바위에는 인조 7년, 진주의 선비 정대룡이 새긴 '義巖'이라는 글자가 새겨져있다. 의암을 둘러본 후 찾아가는 곳은 논개의 영정과 신위를 모신 '의기사'. 논개의 의로운 충절을 기리기 위해 영조 16년에 건립된 사당으로, 충남대학교 윤여환 교수가 그린 논개의 영정이 걸려있다.

진주성에서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곳은 최초의 임진왜란 전문 역사박물관인 국립진주박물관.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한 국립진주박물관은 주변 경관보다 낮으면서도 석탑의 형상으로 되어 있어 경건함이 묻어난다. 임진왜란, 그 7년의 아픈 역사를 품고있는 상설전시실인 '임진왜란살'을 중심으로 박물관을 둘러본 회원가족들은 오전 일정을 마무리짓고 점심 식사를 위해 자리를 옮겼다.

이날의 점심메뉴는 진주 지역에 전해오는 고유한 향토음식인 진주비빔밥. 다른 지역과 달리 진주비빔밥의 독특한 맛은 사골국물로 밥을 짓는 데 있다. 동향색의 둥근 놋그릇과 흰 빛의 밥데, 그리고 다섯 가지의 나물이 어우러져 일곱 가지 색상의 아름다운 꽃모양을 자랑한다 해서 꽃밥 또는 일곱 색깔 꽃밥인 '칠보화반(七寶花飯)'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맛있게 차려진 진주비빔밥으로 든든히 속을 채운 회원가족들은 오후 일정을 위해 남강댐 물문화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물을 테마로 한 남강댐의 홍보관으로, 남강댐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자리한 남강댐 물문화관은 다양한 주제의 전시공간을 갖추고 관람객들을 맞고 있다. 전시관을 둘러본 후 문화관 2층 전망대에 올라서자 파노라마처럼 시원하게 펼쳐진 남강 물줄기가 회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진주 테마여행의 마지막 일정은 냅킨아트를 이용한 소품 제작 체험으로, 남강댐 물문화관 인근에 자리한 물사랑교육농장에서 진행됐다. 냅킨에 그려진 화사한 도안을 잘라 원목판에 붙이자 회원 저마다 개성넘치는 소품이 완성되었다. 완성된 작품을 손에 들고 찍은 단체사진을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마친 회원들은 오랜만에 때맞춰 내리는 반가운 비를 바라보며 부산으로 출발했다.

자연과 역사 속에서 예술체험을 경험할 수 있었던 6월 진주 테마여행. 죽음에 맞서 싸웠던 7만 민관·군의 의로운 넋이 오랫동안 전해져오는 진주성처럼 이번 테마여행도 회원가족들의 즐거웠던 추억여행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들은 신청엽서를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으로 보내주십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 회원 부담)

**| 신청방법 |** 엽서 · 전화 · 홈페이지

**|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607-6073, 6076

## 07 월 테마여행 당첨자

### 신규 회원

김길자(남구 우암로)	진영숙(영도구 해안산책길)	박미혜(해운대구 해운대로)
조금희(남구 용호로)	조정규(남구 신선로)	예영숙(동구 범일로)
옥희선(사하구 다대로)	임옥희(해운대구 대천로)	
최은화(부산진구 동평로)	장병철(동구 망양로)	

### 기존 회원

김민선(남구 분포로)	송덕순(수영구 수영로)	조경란(부산진구 전포대로)
김상희(서구 암남공원로)	이두희(해운대구 재반로)	홍자영(남구 유엔평화로)
김재하(서구 감천로)	이정희(남구 석포로)	
정은영(기장군 산단4로)	임현경(사상구 백양대로)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은 지난 2006년 3월 ‘경주 수학여행 다시가기’로 첫 발을 내딛은 후 여행의 설렘 속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색다른 문화체험으로, 매월 둘째주 금요일이면 정기회원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1월 해뜨는 도시 포항으로 떠나는 겨울여행을 시작으로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 주남저수지 철새탐방(2월), 13주년 기념 다시 떠나는 경주 수학여행(3월), 벚꽃 가득한 진해로 떠나는 근대문화투어(4월), 대구 근대역사 골목투어(5월), 충절의 고장 진주여행(6월), 아리랑의 고장 밀양으로 떠나는 초여름 여행(7월) 등 역사와 자연,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여행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테마여행은 정기회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해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동반 1인과 함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체험비 회원 부담)

그리고 8월에는 여름 폭염을 피하기 위해 테마여행을 진행하지 않으며, 9월 테마여행은 추석 연휴기간을 피해 첫 주 금요일인 9월 6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9 여름 춤 축제  
날 잡아보라~

2019.

7. 26 (금)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특별출연 | 변검(구본진), 힙합(스텝아트컴퍼니)



# Invitation

가온아트홀	1600-1601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51
동래문화회관	550-6611
레몬트리소극장	626-0116
무대공감 전용극장	623-0678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309-4681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성원아트홀	1899-5435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950-6500
소극장 6번출구	625-2117
소민아트센터	991-2200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아트카페 움	557-3369
액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소극장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축제 소극장	070-4211-8879
한결아트홀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AN아트홀 서면	070-4175-9035
BEXCO 오디오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KBS부산홀	620-7181
MBC롯데아트홀	760-1177
SM아트홀	1600-1602

to the Arts



프리뷰



Preview



*Conductor*  
지휘 이민형



*Piano*  
피아노 박정희

# 1

**일시** 7월 5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3회 정기연주회 부지휘자의 첫 번째 음악회


최근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로 취임한 이민형 부지휘자의 지휘로 열리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3회 정기연주회 ‘부지휘자의 첫 번째 음악회’가 7월 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 4월 열렸던 2019 부산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협연자 모집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피아니스트 박정희가 관객과 만난다.

영국 왕실 장학금인 ‘로얄 트러스트’와 런던 어니스트 리즈 재단의 ‘젊은 지휘자 상’을 수상한 지휘자 이민형은 최근 스코틀랜드 왕립예술원의 지휘자 겸 프로그램 어시스턴트로 상주하며 영국 전역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스코틀랜드 왕립예술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민형은 제53회 프랑스 브장송 국제콩쿠르 및 독일 MDR 교향악단 콩쿠르 결선에 진출, 국제무대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민형은 그동안 영국 스코틀랜드 왕립 오케

스트라, 북체코 국립 교향악단, 독일 중앙방송교향악단, 드레스덴 슈타츠 오페레테, 프랑스 로렌 국립 오케스트라, 스웨덴 오로라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등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를 지휘했으며, 2018 통영국제음악제에서는 아시안 작곡가 쇼케이스의 심사위원 및 지휘자로 초청받았다.

첫 무대는 명확한 해석과 음악적 균형으로 강력한 마력을 뽐내며 끊임없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정희의 협연으로 ‘북구의 쇼팽’이라 불리는 그리그의 대표작인 ‘피아노 협주곡’을 들려준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도미, 보스턴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석사학위(MM)와 Graduate Diploma, 론지 음악원에서 Artist Diploma, 보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DMA)를 취득한 박정희는 미국 Anne and Aaron Richmond Competition 1위, Honors Competition 우승 등 다수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현재 동아대학교 조교수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는 박정희는 매년 다양한 레퍼토리로 서울과 부산에서 독주회를 가지고 있다.

이어지는 무대는 이민형 지휘자와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만남을 축하하는 메인무대로, 오늘날 베토벤 ‘운명’, 차이콥스키 ‘비창’과 더불어 명작 교향곡 중 하나로 꼽히는 드보르작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를 들려준다.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연극 '장수상회'


세대를 아우르는 사랑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연극 '장수상회'가 7월 5일과 6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지난 2015년 할리우드 영화 '러블리 스틸'을 리메이크 한 강제규 감독의 동명의 영화를 무대화한 연극 '장수상회'는 2016년 초연 이후 평단과 관객의 호평속에 전국 30개 도시를 비롯해 미국 LA 투어까지 성공시키며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웰메이드 연극으로 자리잡았다.

연극 '장수상회'는 70살 연애초보 '성철'과 그의 마음을 뒤흔든 꽃집 여인 '금님',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연애를 응원하는 사람들까지 첫사랑보다 서툴고, 첫 고백보다 설레고, 첫 데이트보다 떨리는 특별한 러브스토리를 그린 작품이다. 웅통성이라고곤 전혀 없는 까칠한 노신사 성철, 장수상회를 지켜온 오랜 모범 직원인 그는 참전용사라는 자부심은 넘쳐도 배려심, 다정함 따윈 잊은 지 오래다. 장수상회 옆집에 꽃가게를 연 고운 외모의 금님, 통명스러운

공세에도 언제나 환한 미소를 보여주는 소녀 같은 그녀의 모습에 성철은 당혹스러워 하고, 그런 그에게 갑작스레 금님은 저녁을 먹자고 제안한다. 모두의 응원에 힘입어 첫 데이트를 무사히 마친 성철은 어색하고 서툴지만, 금님과 그의 설레는 만남을 이어가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성철이 금님과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금님을 애타게 찾던 성철은 자신만 몰랐던 그녀의 비밀을 알게 되는데...

연극 '장수상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밀을 간직한 로맨스와 가족에 대한 애뜻함을 느낄 수 있는 무대로, 특히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쿨한 연애가 유행이 된 요즘, 서로를 향한 진심과 깊은 배려로 다가서는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전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드라마, 영화 그리고 예능까지 다방면에서 활동 중인 국민 할배이자 최고의 배우 이순재와 신구, 그리고 스크린과 무대를 압도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 온 우리 시대의 여배우 손숙 등 그 어떤 무대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명품 배우들의 연기 향연이 펼쳐진다. 



**일시** 7월 5일 금요일 오후 7:30, 6일 토요일 오후 3:0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Preview

2

프리뷰

Preview

3



일시 7월 13일 토요일 오후 3:00,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B석 1만원 문의 그랜드오페라단 853-2341, www.grandopera.or.kr


## 그랜드오페라단 제49회 정기공연 오페라 봄봄\_소설, 음악을 만나 웃다

그랜드오페라단(단장 안지환)이 창작오페라 ‘봄봄’ 부산 초연 10주년을 기념해 7월 13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다시한번 특별한 무대를 펼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이건용 교수가 작곡 및 대본을 맡아 창작한 오페라 ‘봄봄’은 소설가 김유정이 1935년 발표한 동명의 단편소설을 원작으로, 지난 2001년 국립극장에서 초연된 후 일본 도쿄의 신 국립극장에서 공연되어 호평 받은 바 있다. 가난한 농촌을 배경으로 욕심많은 장인 오영감과 어리숙한 데릴사위 길보 사이의 희극적인 갈등과 대립을 그린 작품으로, 오페라에서는 원작소설의 해학적인 요소에 능청스러운 연기와 캐릭터의 개성과 갈등상황을 극대화하는 음악이 더해지면서 더욱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지난 2010년 부산에서 초연무대를 가졌던 그랜드오페라단의 오페라 ‘봄봄’은 2012년에는 한·중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중국 북경과 상해, 그리고 도쿄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그 이듬해인

2013년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 오스트리아 빈, 이탈리아 밀라노, 체코 프라하 등 서유럽 3개국 5개 도시를 순회하고 2015년에는 밀라노엑스포 문화행사, 2018년에는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문화원 초청으로 자카르타, 바탐 지역에서 순회공연을 가진 바 있다. 특히 그랜드오페라단은 한국 전통적인 소재의 현대 실내 오페라인 ‘봄봄’에 밀양백중놀이와 풍물 판굿, 그리고 민요 ‘아리랑’이 어우러지는 ‘아리랑 난장’을 하나의 줄거리로 접목시켜 한국 전통연희의 가무악희(歌舞樂戲)적인 특성 속에 세계인의 정서적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부산 초연 1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정금련이 지휘하는 그랜드챔버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테너 전병호, 소프라노 한경성, 바리톤 박정민 등 한국을 대표하는 정상급 성악가가 출연, 토속적인 무대와 해학과 풍자를 담은 아리아로 관객들과 만난다. 특히 마당놀이 형식의 ‘아리랑 난장’에서는 전통연희단 꼭두쇠가 출연, 무대와 객석이 하나되는 축제 한마당을 펼친다.

그랜드오페라단은 2022년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에 맞추어 지역의 오페라 인구 저변 확대와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공감대 확산과 오페라 관람을 유도하기 위해 가족 3인 이상 예매 시 30% 할인(R석, S석에 한함), A석과 B석은 80%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티켓 가격을 대폭 낮추었다. 



부산시립극단 제65회 정기공연

## 테베 3부작 : 오이디푸스, 콜로누스의 오이디푸스, 안티고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극작가 소포클레스의 비극 세 작품을  
재구성한 부산시립극단 제65회 정기공연 '테베 3부작'이  
7월 18일부터 사흘간 부산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는 지난 5월, 올해 처음 도입된 전문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선임된 부산 출신의 '연출하는 극작가' 김지용 신임 예술감독의 첫 번째 작품으로 벌써부터 연극애호가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저주받은 운명으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왕비로 삼은 오이디푸스 왕과 그의 딸 안티고네를 통해 운명 앞에 굴복하는 인간의 무력함을 그려낸 소포클레스의 '테베 3부작'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을 통해 소포클레스의 가장 위대한 비극이라고 평가했던 '오이디푸스',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죄를 참회한 뒤 비극적인 삶의 마지막을 보내는 모습을 묘사한 '콜로누스의 오이디푸스', 조

국인 테베를 상대로 싸움을 벌였던 조카 폴리네이케스의 매장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안티고네와 크레온의 대립을 그린 '안티고네' 등 세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이디푸스 왕은 테베에 발생한 역병의 확산을 막고자 인간힘을 쓰지만 역부족이다. 제사장 테이레시아스는 선왕의 살해범을 찾아 단죄하면 신의 분노가 그칠 거라 예언한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 과거 오이디푸스와의 권력다툼에서 패해 변방으로 좌천되었던 크레온이 나타나 오이디푸스를 압박한다. 결국 오이디푸스가 왕위에서 물러나고 그의 아들이자 안티고네의 두 오빠인 폴리네이케스와 에테오클레스는 테베를 장악한 크레온과 새로운 제사장 세미라미스의 계략에 빠져 왕권을 놓고 다투다 모두 죽는다. 결국 왕위를 차지한 크레온은 폴리네이케스를 반역자라 칭하며 장례를 금하고, 이에 안티고네는 반기를 들어 오빠인 폴리네이케스를 매장하려 하는데...

기존 '테베 3부작'을 새롭게 구성한 이번 무대에서 김지용 예술감독은 운명과 자연 앞에 선 인간의 무력함을 절절하게 호소하는 동시에 인간을 속박하는 법과 제도의 맹점을 부각시키고, 그 폐해의 단면을 우리에게 명징하게 제시하면서 다툼과 분열이 만연한 이 시대를 은유하고 관용과 용서, 조화와 배려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일시** 7월 18일-19일 목-금요일 오후 7:30, 20일 토요일 5:0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극단 607-3125



 Preview

4

프리뷰

Preview

5



**일시** 7월 21일 일요일 오후 6:0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3만5천원 문의 위클래식 070-4190-1289, 010-2842-0248

## 오페라 갈라콘서트 한 여름밤의 오페라 피크닉

한 여름밤 펼쳐지는 오페라 명곡의 향연 ‘한 여름밤의 오페라 피크닉’이 7월 21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위클래식 전속 아티스트들이 출연하는 이번 오페라 갈라 콘서트는 지난 1월 오페라 ‘마술피리’의 ‘밤의 여왕’ 역으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하우스에서 성공적인 데뷔 무대를 치른 소프라노 박소영과 2018년 동양인 최초로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역인 ‘로미오’역으로 메트로폴리탄 데뷔 무대를 가진 테너 신상근, 스페인 명문 발렌시아 오페라 극장 솔리스트 출신의 바리톤 허중훈, 독일 바이마르 국립극장 전속 솔리스트로 활동중인 베이스 김대영 등 4명의 성악가가 부산의 음악 애호가들과 특별한 만남을 갖는다. 특히 이번 무대는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큐레이션 오페라 갈라 콘서트로, 위클래식이 선정한 ‘베스트 오페라 10’ 아리아와 함께 국내에서 접하기 힘든 레퍼토리를 엄선, 오페라의 감동을 전한다.

첫 무대는 소프라노 박소영이 구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꿈속에서 살고 싶어라’를 첫 곡으로 오펜바흐 ‘호프만의 이야기’ 중 ‘인형의 노래’를 들려준다. 그동안 미국 메이저 오페라극장 주역으로 활동하며 명성을 쌓아온 박소영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밤의 여왕’으로 캐스팅되면서 완벽한 실력과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밤의 여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어지는 무대는 테너 신상근의 무대로, 레하르 ‘웃음의 나라’ 중 ‘그대만이 유일한 내사랑’, 베르디 ‘리골레토’ 중 ‘여자의 마음’을 들려준다. 뉴욕 메트로폴리탄과 유럽의 명문극장에서 활동중인 신상근은 현재 경희대학교 교수로 있으며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바리톤 허중훈과 베이스 김대영은 로시니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나는 이 거리의 만물박사’, 코른골드 ‘죽음의 도시’ 중 ‘나의 갈망이여, 나의 망상이여’, 그리고 바그너 ‘방황하는 네델란드인’ 중 ‘아가야, 이방인을 환영해다오’, 로시니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소문은 산들바람처럼’을 각각 들려준다. 바리톤 허중훈은 스페인 빌바오 국제성악콩쿠르 1위를 비롯하여 전세계 30개 콩쿠르에서 우승했으며, 베이스 김대영은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활동중이다. 솔로무대에 이어서는 오페라 이종창과 더불어 4명의 성악가가 들려주는 슈베르트 ‘마왕’으로 콘서트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1회 정기연주회 김정수 예술감독 취임축하공연 藝港大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김정수 신임 예술감독의 취임축하 무대로 마련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1회 정기연주회 '예향대동(藝港大同)'이 7월 2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지난 5월 선임된 김정수 신임 예술감독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원을 거쳐 추계예술대학교 국악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많은 국악인들을 배출해낸 국악계의 대부이다. 전통적인 정악어법에 충실하면서도 현대적인 음악을 만들어낸 국악인으로 평가받는 김정수 예술감독은 이번 예술감독 선임과정에서 적임자로 꼽히며 추천위원회의 압도적인 추천을 받았다.

이번 무대에서는 김정수 예술감독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이자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대표 및 상임지휘자로 있는 김성경 객원지휘자를 비롯해 국악계의 내노라하는 연주자들이 무대에 선다.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첫 무대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제45호 대금산조, 제72

호 진도씻김굿 이수자이자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 한국음악양상블 '풍류' 음악감독으로 있는 박환영이 대금 산조 테크닉의 신기원을 이룩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생강류 대금산조를 위한 협주곡 '죽향'을 들려준다. 이어서는 KBS국악대상을 수상하고 서울대학교 국악학과 교수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16호 거문고산조 이수자인 허윤정이 정대석의 거문곡 협주곡 '무영탑'(정대석 곡)을, 중요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이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로 있는 강영근이 '메나리조 주제에 의한 피리협주곡'(이강덕 곡)을 들려준다.

서울대학교 국악학과 교수이자 해금연구회 회장으로 있는 해금주자 양경숙은 '서용석류 해금산조 협주곡'(이준호 곡)으로 관객과 만난다. 이어지는 곡은 가야금협주곡 '신 관동별곡'(백대웅 곡)으로, 난계국악단 예술감독,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로 있는 가야금주자 민의식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신 관동별곡'은 강원도 지방의 민요를 바탕으로 다양한 동서양의 음악어법이 합쳐진 곡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관현악과 현악 4중주, 두 대의 가야금이 연주하는 다중협주곡으로 연주된다. 마지막 곡으로는 판소리 '수궁가' 중 '가자 가자 어서가자'로, 제12회 장흥 국악대제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현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단원으로 있는 소리꾼 박성희의 소리로 들려준다. 🎨



**일시** 7월 24일 수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1층 1만원, 2층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Preview

6

프리뷰



Preview

7

**일시** 7월 24일 수요일 오후 7:30 **장소**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16

##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2019 Summer Fantasy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줄 부산시립합창단의 시원한 음악선물  
 ‘2019 Summer Fantasy’가 7월 24일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에서 펼쳐진다.

매년 여름 주옥같은 국내가요를 풍성한 합창음악으로 들려주는 부산시립합창단의 대표적인 브랜드 공연으로, 그동안 하나의 테마가 있는 특별한 무대로 관객들에게 신선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해왔다. 특히 올해는 여름휴가를 맞아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은 해운대로 공연장을 옮겨 해운대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올해 ‘2019 Summer Fantasy’에서는 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전진의 지휘, 자연주의 포크음악을 지향하는 포크송 가수 추가열의 특별출연으로, 지난 2017년과 2018년 Summer Fantasy 무대의 주인공이었던 가수 이문세, 조용필의 명곡들을 다시한번 들려준다. 부산시립합창단의 전속 작, 편곡자인 최석태를 비롯하여 이소진, 지혜정, 윤경미, 문지은 등 젊은 작곡가들의 참신한 편곡과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인 바이올리니스트 박은영, 기타리스트 황보승, 베이스 기타리스트 김대희, 드럼주자 구명일의 세련된 연주로 대중가요의 품격을 한층 더 살린 합창곡을 선사한다. 1부 첫 무대는 가왕 조용필의 ‘바운스(Bounce)’로 문을 연다. ‘바운스(Bounce)’는 지난 2013년, 조용필이 10년만에 새앨범을 발표해 당시 신드롬을 일으켰던 곡으로 음원차트 1위, 지상파 가요 프로그램 1위 등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으며 그 해 ‘올해를 빛낸 가수’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어서는 ‘단발머리’, ‘고추잠자리’, ‘비련’ 등 조용필의 히트곡을 합창과 남성중창으로 들려주며, 이문세의 ‘이 세상 살아가다보면’, ‘파랑새’, ‘알 수 없는 세상’은 여성중창과 합창으로 관객과 만난다. 2부에서는 1집 앨범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를 통해 중, 장년층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추가열을 초청, 그의 대표곡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를 비롯해 ‘소풍같은 인생’, ‘행복해요’ 등으로 무더운 여름밤을 시원하게 만들어준다. 🎨

##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 2019 여름 춤 축제 ‘날 잡아봐라~’

부산시립무용단이 매년 여름, 지역민과의 대중적 소통을 위해 마련해온 ‘2019 여름 춤 축제’가 7월 26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지난해까지 매년 야외마당에서 펼쳐지던 ‘여름마당춤축제’를 공연장으로 장소를 옮겨 새롭게 선보이는 ‘2019 여름 춤 축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간다.

올해 무대에서는 전래동화 ‘토끼와 거북이’를 재미있는 춤극으로 풀어낸 ‘날 잡아봐라~’를 선보인다. 특히 ‘날 잡아봐라~’는 부산시립무용단이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부산시립무용단의 눈높이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춤추는 동화’에서 선보였던 작품으로, 극적인 이야기 구성과 어린이들도 이해하기 쉬운 춤사위로 공연 때마다 매진사례를 낳았던 작품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춤극으로 새롭게 구성, 관객들과 만난

다. 특히 천극변검(얼굴 색깔이 수시로 바뀌는 중국 전통 예술) 전수자로 중흥무진 활약하고 있는 미술사 구분진과, 스트릿댄스 공연팀인 스텝아트컴퍼니가 함께 출연, 보다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춤극 ‘날 잡아봐라~’는 용궁의 주요 인물들과 미술사의 변검장면이 등장하는 ‘용궁마을’을 시작으로 토끼를 찾아 육지로 떠나는 거북이와 그 여정에서 만난 다양한 동물들과의 만남을 춤사위로 그려낸 ‘토끼를 찾아서 육지로~~’, 토끼를 만나게 된 거북이와 합합 추는 토끼를 만날 수 있는 ‘날 잡아봐라~’, 마침내 토끼와 만난 용왕을 그린 ‘용궁으로~~ 용왕과 거북이의 만남’, 뛰어난 순발력과 재치로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육지로 가는 토끼를 담은 ‘토끼의 꼬~~토끼 다시육지로’, 그리고 ‘은혜 입은 토끼’ 등 6가지 에피소드로 구성, 관객들과 함께 춤추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안무, 구성 | 서정숙(훈련지도자)

출연 | 부산시립무용단 전 단원

특별출연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구분진(변검), 스텝아트컴퍼니



**일시** 7월 26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시립무용단 607-3121~2

 Preview

8



## 제14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달라도 좋아! (We are All Unique!)

전 세계 어린이,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열리는 참여형 영상문화축제 ‘제14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Busan International Kids and Youth Film Festival-이하 BIKY)’가 7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영화의전당과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북구문화빙상센터에서 펼쳐진다.

7.9<sup>화</sup> - 7.15<sup>월</sup>

영화의전당,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북구문화빙상센터  
전석 7천원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조직위원회  
743-7652, [www.biky.or.kr](http://www.biky.or.kr)

미디어의 범람 속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영상문화를 인지시키고 영화를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지난 2005년 프레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첫발을 내딛은 BIKY는 2015년부터는 매년 ‘달라도 좋아(We are All Unique!)’라는 주제로 획일화된 교육, 생활환경에서 벗어나 어린이들의 다양한 영화적 감수성을 표현하고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북구지역에 처음으로 상영관이 생기면서 동부산에 치우쳤던 영화제 참여의 기회를 확대, 북구의 어린이, 청소년들도 가까운 곳에서 영화제를 함께 즐길 수 있게 됐다.

올해 BIKY에서는 전 세계 61개국 176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국내에서 처음 소개되는 프리미어 작품 수도 늘어나 월드프리미어 21편, 아시아프리미어 58편, 한국프리미어 44편으로 총 123편이 이번 영화제를 통해 첫 선을 보인다. 섹션별로는 우선 BIKY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자 공식 경쟁부문인 ‘레디~액션!’을 주목할 수 있다. ‘레디~액션!’은 지난해부터 매년 늘어나는 출품 편수와 어린이·청소년 영화인들의 연령대를 고려해 만 13~15세 청소년 영화인들의 작품을 새로이 구분, ‘레디~액션! 15’를 신설하면서 ‘레디~액션! 12’, ‘레디~액션! 15’, 그리고 ‘레디~액션 18’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올해는 44개국 395편의 작품 중 13개국 40편의 작품이 본선에 올라 관객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레디~액션!’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전 세계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섹션인만큼 그들의 일상과 고민에서부터 꿈과 환상에 이르는 다채로운 주제

◎ 개막작 ‘클레오’





● 폐막작 '파이트 걸'

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각 부문에서 총 4개의 본상 및 특별상이 선정되고 국내 수상자들에게는 차기작 지원사업 응모자격이 주어진다.

비경쟁부문의 8개 섹션 중 '나를 찾아서' 섹션에서는 스스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성장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외에 우리를 둘러싼 현실과 관계들을 영화를 통해 들여다보는 '너와 더불어', 다름을 껴안는 관용을 꿈꾸는 '다름 안에서', 영화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덧입힌 작품들로 구성된 '경계를 넘어서' 등 주제별 섹션에서도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오늘날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제작된 다채로운 영화들을 소개하는 '아시아 파노라마' 섹션에서는 어딘가 색다르게 다가오면서도 마음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들을 소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만나는 '독일 포커스'는 슈링겔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와 괴테문화원, 작센 주지사 공관이 제공한 영화들을 엄선한 섹션으로, 올해도 래퍼토리가 다양한 흥미로운 작품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 국내외 어린이, 청소년들이 제작한 영화로 꾸며지는 '리본 더 비키(ReBorn the BIKY), 여름밤 온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야외상영작으로 마련되는 '야외극장-달빛별빛' 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로 풍성한 축제를 즐길 수 있다. 올해 '야외극장-달빛별빛'에서는 '색다른 시간여행'을 테마로 시간의 비밀을 파헤치고 과거와 미래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애니메이션 세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 영화제에서는 누군가 자신의 자리를 대체할지도 모른다는 어린이의 불안을 유머러스하고도 긍정적인 톤으로 그려낸



● 나를 찾아서 '수네 vs 수네'



● 나를 찾아서 '영양벨!'

스웨덴 영화 '수네 vs 수네', 2차 대전 속의 혼란한 유럽을 배경으로 어렵사리 꿈을 안고 자라나는 한 소녀의 성장기를 현실적이고도 유쾌하게 그려낸 영화 '빌레', 온라인에서의 정체성이 현실 세계의 인간관계만큼 중요해진 요즘 청소년들의 풍속도를 거친 질감으로 그려낸 스웨덴 영화 '탕탕탕!', 그리고 아직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12살 소녀 로미가 이혼과 생계문제로 바쁜 부모 때문에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도와 미용실을 경영한다는 '로미의 미용실' 등이 주목할 만 하다.

한편, 올해 개막식은 7월 9일, 폐막식은 7월 15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개최된다. 네덜란드에서 온 개막작 '파이트 걸(감독/요한 티머스)'은 '격투기'라는 낯선 소재를 통해 한 소녀의 치열한 성장 과정을 그린 작품이며, 7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폐막작으로는 다양하면서도 독특한 표현기법을 통해 영화적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독일 영화 '클레오(감독/에릭 슈미츠)'을 만날 수 있다.

국내 최대 아동·청소년 공연예술축제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가 올해도  
부산에서 개최된다.



##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제27회 해외아동청소년예술축제 (아시테지 in Busan)

올해로 27회를 맞는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는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가 매년 여름 서울에서 개최해온 행사로, 지난 25년간 아동청소년을 위한 연극뿐 아니라 무용극, 음악극, 오브제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워크숍,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30만여 명의 유료 관객과 전 세계 60개국 극단이 참가하며 명실상부 전 세대가 함께하는 문화예술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부터는 ‘해외아동청소년예술축제’라는 타이틀과 함께 그 해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출품작이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으로 무대에 오르면서 부산에서도 세계 최고수준의 아동·청소년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됐다.

‘제27회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가 열리는 기간 중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는 (주)문화공의 샌드아트뮤지컬 ‘하늘에서 떨어진 해와 달 이야기’, 네덜란드 극단 마스 씨어터&댄스의 코믹 마임극 ‘에그~션 히어로’, 이스라엘 극단 네페시 씨어터의 코미디극 ‘이상한 이웃’ 등 세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7.25<sup>(목)</sup> - 7.27<sup>(토)</sup>

오전 11:00, 오후 2:00 ||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7.31<sup>(수)</sup> - 8.1<sup>(목)</sup>

오전 11:00 ||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R석 3만원, S석 2만원(‘에그~션 히어로’ 공연은 전석 3만원, 36개월 이상 입장가능)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2개 공연 이상 동시 예매시 30% 할인

※ 7월 26일 문화가 있는 날 50% 할인

부산시민회관 630-5200, [www.bscc.or.kr](http://www.bscc.or.kr)

◎ 이스라엘 네페시 씨어터 ‘이상한 이웃’





◎ 한국 (주)문화공 '하늘에서 떨어진 해와 달 이야기'



◎ 네덜란드 마스 씨어터&댄스의 '에그~션 히어로' 공연장, 드림랜드에서 공연하는 모습



축제 첫날인 7월 25일에는 부산의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인 (주)문화공이 제작한 샌드아트뮤지컬 '하늘에서 떨어진 해와 달 이야기'가 관객들과 만난다. 해와 달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삶을 생각하게 만드는 감성뮤지컬로, 모래에 그림을 그리는 샌드아트와 이야기를 들려주는 어쿠스틱한 노래, 다양한 오브제를 사용한 배우들의 몸짓이 어우러진다. 국내 1세대 샌드아트디렉터인 최은영 작가가 디렉팅을 맡았으며, 공연이 끝난 후에는 샌드아트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7월 26일과 27일에는 네덜란드 극단 '마스 씨어터&댄스'의 '에그~션 히어로'가 무대에 오른다. 네덜란드뿐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극단 '마스 씨어터&댄스'는 그동안 마임, 음악극, 미디어극(interactive), 서커스극 등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무대와 더불어 상상력으로 가득한 독특한 무대를 선보여왔다. 이번 무대에서도 무대와 소품은 간소하지만 두 배우가 만드는 마법과도 같은 다채로운 마임의 향연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축제의 마지막 작품인 이스라엘 극단 네페시 씨어터의 코미디극 '이상한 이웃'은 평화와 관용에 대하여 그려낸 풍자극으로, 어린이와 어른 모두를 웃음 짓게하는 찰리 채플린 스타일의 코미디극이다. 극단 '네페시 씨어터'는 연극의 창작과 제작을 통해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 차이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자 설립된 후 그동안 20여 작품을 제작했으며, 매년 6회 이상 해외 투어를 가져오고 있다.

## EOPO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남겼나?

### 2019 부산사랑 음악회 / EOPO Chamber Music



◆ .... 예술비평가회장 **탁계석**

외국 농산물이 넘치면서 원산지 표시가 도입되었다. 이제는 익숙해졌다. 첨가물 등 유해성 여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다. 한국식품이 가장 대접을 받는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가.

이번 EOPO 콘서트에서 이것이 핵심이다. 부산 원산지를 자랑할 국제 음악가의 집약이 그것이다. 실제 현장을 본 청중의 감동이 남달랐다는 이야기다. 참으로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간 많은 사람들이 부산을 위해 흘렸던 땀이 씨가 되고, 싹이 되어 꽃을 피운 것이다. 그래서 이날 음악회는 여느 음악회와 다른 경이감(驚異感)을 맛보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EOPO는 어떤 구성인가? 왜 이 음악회를 이렇게 구축하려하였는가? 그것은 부산의 정체성 확인이요 비전의 도약을 위해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새롭게 열리는 동북아의 흐름을 읽고 날개를 펼쳐야 한다는 뜻이다.

오충근 지휘자의 리더십이 '부산사랑 음악회'를 낳았다. 그래서 부산 출신들과 국제적인 활동의 뮤지션들을 한 자리

에 모은 것이다. 이 오케스트라의 만찬(晩餐)은 연주가 훌륭했고 감동적이었다는 리뷰를 훌쩍 뛰어 넘는 의미가 중요하다. 여기에 부산MBC 방송국의 창사 60주년은 커다란 힘을 실어주었다. 예술가들에게 버팀목이 된 것이다. 이 노력들이 '브라보!' 환성으로 터져 나온 것 같다. 첫날 차이콥스키의 작품들을 통해 역량을 하나로 묶어 웅대한 스케일과 에너지가 극장을 가득 채웠을 때 그것은 쉽게 경험하지 못한 예술적 체험이었다.

보는 것은 중요하다. 본 것과 안 본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국제적인 수준을 보고 나면 관객은 선택을 한다. 동시에 이제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되는 것을 본 만큼 더 이상 가르칠 것은 없지 않겠는가. 이튿날 EOPO 챔버뮤직에서도 세상이 달라졌음을 발견했다. 청중이다. 평자는 이들이 부산 문화를 끌어 갈 것이라고 봤다. 음악회장 한번 가지 못했던 마도로스 아버지 시대가 아니라 이들은 고급 청중들이었다. 굶은 날씨에도 객석을 가득 메웠고 악장 사이 박수나 기침 소리 하나 없었다.

전날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한 박지윤의 탁월한 기량은 그

를 단숨에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종신 악장에 앉혔고, 해외뉴스로나 접하던 오케스트라 수석 단원들이 참여한 실내악 음악의 견고함과 팽팽한 긴장은 청중이 모이지 않는다는 실내악에 청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어둠이 여전하다. 세계 오케스트라의 악장은 될 수 있어도, 국내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기는 쉽지 않다. 배워온 실력파들이 머물 곳이 없다. 고인 웅덩이의 존재다. 부산 시민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 그래서 이번 콘서트에 참여한 뮤지션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부산음악사를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바이올린 박지윤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종신 악장, 김재원 스위스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제2악장, 김주영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 비올라 이승원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겸임교수, 첼로 김민지 서울대학교 교수, 베이스 박희철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성민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쿠세비츠키 국제콩쿠르 우승자, 플루트 오신정 인제대학교 교수, 오보에 아오야마 사토키 NHK 심포니 수석, 클라리넷 백동훈 미국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 대학원 졸업, 바순 최영진 도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호른 김홍박 노르웨이 오슬로필하모닉 수석, 트럼펫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트럼본 후지하라 고지로 재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 베이스 트럼본 김유석 서경대학교 교수, 팀파니 김계형 한국예술종합학교 외래교수 등이다. 특히 김재원, 김주영, 백동훈, 최영진은 부산에서 나고 자랐으니 이들 가족들의 기쁨은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이처럼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부산 출신 아티스트들과 톱클래스 오케스트라 악장 및 수석들 국내외 100여명의 연주자가 함께한 음악회가 성공리에 마쳤다. 앞으로 부산을 국제무대에 알릴 새로운 브랜드가 탄생한 것이다. EOPO 유라시아오션필하모닉오케스트라다. 재정과 예산의 뒷받침이

풍족하게 이어진다면 유라시아 횡단(橫斷)의 역사가 감행될 것이다. 속삭이는 현의 파도와 관악기의 포효(咆哮)가 말해주듯 힘이 찬 전진을 해야 한다.

이번 페스티벌 팀을 유럽이나 아시아 등 현지에 파견하여 부산을 빛낼 수도 있을 것이다. 오슬로에 가지 않고도 듣게 된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2악장 김홍박의 호른 소리 역시 잊혀지지 않을 낭만의 꿈인 듯 했다. 밟지 않은 땅, 그러나 반드시 넘어서 가야 할 산, 오케스트라의 새 지평을 연 것이다. 부산을 위한 부산인과 부산 음악가들이 해낸 것이다. 총사령관은 오충근이다.





## 작품을 풍성하게 만드는 위트와 여유

### 제15회 부산국제무용제 AK21 국제안무가육성경연



◆ ..... 춤 비평가, 본지 편집위원 이상현

지난 6월 5일 부산국제무용제 프로그램의 하나로 '2019 AK(Arts Korea)21 국제안무가육성공연'(이하 'AK21')이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열렸다. 'AK21'은 부산국제무용제가 세계적인 춤 작가(안무, 출연) 발굴을 목표로 2009년부터 개최해 왔다. 부산에서 안무가 육성을 전면에 내세운 사업은 'AK21'이 유일하다. 'AK21'은 경연을 통해 국제안무가상(최우수상) 한 팀에게 상금 500만원과 해외 워크숍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참가한 작품들은 '집단 속 인간관계에 대한 성찰'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아무래도 안무가의 연령대가 공동체에서 후배와 제자 그리고 선배와 스승의 중간쯤에 위치하기 때문일 것이다. 첫 무대를 연 손영일 무용단의 '그들만의 광기'(안무 손영일)는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흘러가는 세상을 무력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고통을 다룬다. 손영일은 부산에서 가장 활발하게 경연 무대를 찾아다니는 안무가다. 이 공연 직전에 있었던 부산무용제에도 참가했고, 'AK21' 참가는 이번이 네 번째다. 그가 끊임없이 경연 무대를 찾는 이유는 왕성한 창작 욕구를 표출하기 마땅한 기회가 부산에서는 그나마 경연 무대뿐이기 때문일 것이다. 작품은 시작부터 끝까지

진지함을 놓치지 않는다. 잘 짜인 군무와 손영일의 장점이 살아있는 독무는 긴장을 끝까지 유지하는 가장 큰 덕목이다.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사람들을 제어하려는 장면은 주제가 선명해지는 핵심적 순간이다. 무대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춤꾼들의 가쁜 호흡과 팽팽한 음악으로 가득하고 무기력한 고통이 몰아친다. 역동적 무기력이란 것이 낯설기는 하지만 고통에 비례해 벗어나려는 의지가 절실하다고 본다. 면 이해 못 할 일도 아니다. 하지만 작품이 관객과의 대화라고 할 때 화자의 과한 진지함은 상대를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다. 심각하고 아픈 주제일수록 위트와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대무용단 자유의 '지독한 오후'(안무 이언주)는 확실하다고 믿는 '기억'의 오류를 투명한 입방체로 표현한다. 조금씩 크기 차이가 나는 입방체는 기억의 조각이며 기억의 한계이기도 하다. 입방체를 이리저리 찌 맞추듯이 기억은 얼마든지 편집할 수 있다. 입방체의 투명한 벽은 기억이 실제로 닿지 못하는 한계를 말하고, 그 한계를 뚫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투명한 입방체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소품으로 적절했다. 문제는 입방체의 이동 편의성을 섬세하게 고려하

지 못했다는 점이다. 많은 시간을 입방체를 이동하고 조합하는데 할애하는데, 옮기는 동작은 불편해 보였다는 점이다. 불편함마저 의도한 것이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런 느낌은 받지 못했다. 춤꾼들이 입방체를 움직이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다 보니 정작 춤을 추거나 입방체를 이용한 상징적 장면을 만들 때는 힘들어 보였다. 굳이 소품이 그렇게 크고 무거워야 했는지 의문이 들었고, 만약 이용하기 수월한 소품이었다면 움직임이 분명해지고 진행이 여유로웠을 것이다.

프로젝트 광의 '위로'(안무 박광현)는 위로의 이중성을 드러내면서 진정한 위로에 대해 고민한 작품이다.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여성 무용수의 그로테스크한 몸짓을 통해 위로하는 자의 이중성과 위로를 빙자한 기만적 관계에 노출된 사람의 고통을 표현한 점은 인상적이었다. 또한 2인무에서 춤꾼 사이를 의도적으로 넓게 벌려서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지만 진정한 영향을 주고받지 못하는 괴리감을 표현한 구도도 기억에 남는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관객이 읽어내기에 뚜렷한 요소가 부족해서인지 누구나 공감할만한 주제를 더 선명하게 전달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우리는 좋은 결과, 좋은 관계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싸움을 한다.'(공연 팸플릿 작품 소개글 중) 이동하 댄스 프로젝트의 '관계'(안무 이동하)는 다양한 층위로 얽힌 사회 속 인간관계를 에두르지 않고 다룬다. 개인은 좋은 관계가 주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면서 고군분투한다. 이동하는 '관계'라는 주제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안무로 관객과의 '관계'도 성공적으로 유지한다. 첫 장면부터 무대 한편을 완전히 비워두어 앞으로 그쪽을 지금 상황과 비교하는데 사용할 것이라는 암시를 준다. 모두가 강요된 'yes'를 연거푸 외치는 첫 장면부터 집단적 관계 속에서 고민하는 개인의 분투가 펼쳐진다. 예상대로 처음에 비워두었던 무대 상수 쪽의 이용 빈도가 점차 늘어나고, 후반으로 갈수록 모두가 'yes'를

강요하는 중에도 혼자만의 정화의식을 통해 주체적 관계를 깨닫는 과정이 구체화한다. 이 작품은 주제 전달이 분명하다. 동선과 구도가 군더더기 없이 짜였고, 흐름의 강약 조절이 적절했다. 또한 집단이 강요하는 바와 개인의 성찰을 상징하는 물그릇은 그것의 의미를 관객이 쉽게 알아챌 수 있었다. 마지막에 긴장을 흘트리고 승화시키는 연출은 관객에게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했다.

지난 6월 9일 국제무용제 폐막식에서 'AK21' 결과 발표가 있었다. 필자의 예상대로 이동하 댄스 프로젝트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비록 평가가 갈리긴 했지만 다른 팀도 저마다의 성과 노력이 빛났음은 분명하다. 덧붙일 의견은 작품들의 구성이 팽팽하거나, 산만하거나 아니면 팽팽하고 산만했다는 것 그리고 너무 심각하게 주제를 풀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춤을 추는 쪽이나 관객이나 20분 동안 지속해서 하나의 감정이나 긴장을 유지하기 어렵다. 심각함 속에 보이는 순간적인 유희나 팽팽한 가운데 묻어나는 여유는 작품을 풍성하게 하면서 해석의 지평을 넓히기도 한다. 더구나 경연에서는 작품에 여유가 묻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평가가 갈리기도 한다. 유희와 여유가 작품의 전개과정에서 주제와 감정을 각성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독문학자 장희창 교수의 '고전잡담'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아무리 코너에 몰려도 웃을 줄 아는 인간! 상식의 감옥을 박차고 나오는 담대함!'



리뷰

## 의미있는 장치와 인물

### 연극 '인형의 집 PART2'



◆ ..... 연극평론가, 전 경성대학교 연극학과 교수 **허은**

노르웨이의 극작가 입센의 '인형의 집'이 초연된 것은 지금부터 140년 전이다. 정확히 말해서 1879년 덴마크의 코펜하겐이었다. 아내나 어머니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찾아 허위와 위선뿐인 '인형의 집'을 떠나는 장면으로 막을 내렸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노라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호불호(好不好)가 극명하게 대립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19세기적 상황과 머물러 있었을 당시에 노라가 자아를 찾기 위해 가출한다는 설정은 당시 사회에선 용납할 수 없는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노라는 과감하게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스스로 인형의 집에서부터 탈출을 시도한다.

그 후 15년의 세월이 흐르고 노라는 다시 그녀가 인형의 집이라 불렀던 바로 그 집으로 돌아온다. 15년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노라는 어떻게 변했으며 그의 남편인 토르발트와 그녀가 떠난 후 가정을 지킨 유모는, 그리고 딸 에미는 어떻게 변했을까?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루카스 네이스는 '인형의 집 PART2(2017년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려 한다. 4월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6월 1일에는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공연된 '인형의 집

PART2(김민정 연출)'는 진짜 대화를 못 하는 소통 부재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펼친다.

표면적으로는 한 가정의 파국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극 중에서 보인 그 집과 거실, 그리고 무대 중앙에 버티고 있는 '문'은 이 시대에 우리 사회를 보편적이고 함축적으로 보여 준다. 미니멀리즘을 기본으로 중앙의 문과 몇 개의 의자만으로 구성된 무대는 시각적으로 이 공연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를 쉽게 알게 해준다. 전면 양측에 배치된 두 개의 의자는 등장인물의 감정 상태와 소통의 가능성과 대립에 따라 수시로 재배치되면서 대화의 내용을 뛰어넘는 시각적 언어의 묘미를 살려준다. 더불어 무대 상단에 달린 등장인물의 이름들은 등장인물들이 말할 때마다 화자의 이름이 점등되면서 인물들의 대화, 논쟁, 그리고 일방적 주장을 시각적으로 단순화시켜 관객이 대사의 의미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대사에 대한 집중은 이 공연의 주제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보조적 역할을 함으로써 자칫 지루하거나 통속적이 될 대사를 관객이 깊이 인식하게 하는 데 큰 도움



을 준다. 흔히 활용하는 시각적 표현의 방법이라 할 수도 있지만, 인물의 감정선에 따라 인물 스스로가 소도구(의자)를 재배치하면서 죽어 있는 물체가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 ‘성격’을 표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의자의 미묘한 움직임, 각도의 조절은 소도구가 또 다른 의미에 작품의 긴장감을 지속 화시키는 역할을 효율적으로 해준다.

다시 말해서 무대에 배치된 모든 것들은 무대에 수동적으로 놓인 물체로서의 장식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성을 지니고 스스로 생명을 지니고 하나의 성격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가짐으로써 영상매체가 아닌 공연의 특성을 즐길 수 있게 해준다. 연극이 다른 매체와 다른 특성을 보임으로써 연극의 공연예술로서의 존재가치를 지속적 유지하게 하고 그것이 연극의 생명력을 증거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들 요소와 함께 주류인 배우들 역시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이 요소들을 활용한다. 연기자들의 무대 요소의 활용은 무생물과의 지속적 교감에 의해서 텍스트가 의도적으로 남겨 놓은 빈 공간과 대화 사이에 존재하는 휴지(Pause)를 또 다른 의미의 대사로 만들었다.

전체 연기자들의 대사는 마치 법정의 증언처럼, 혹은 변호처럼 부드럽게 연결된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 속에서 한 번쯤 폭발할 수 있겠다는 긴장감이 보였으면 하는 기대감은 끝까지 기대감으로 마감된 점은 아쉽다. 물론 토르발트가 변호사와의 싸움 뒤에 머리가 다친 모습으로 등장하는 장면부터 노라와의 화해를 통해 재결합의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장면까지 희극적 요소를 배치함으로써 긴장과 이완의 여유를 보여 준 것은 이 극의 건조함이 덜하게 하는 백미라 할 수 있다. 이는 연출과 배우의 역량이 바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라의 딸과 첫 대면에서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보인 어머니(서이숙)와 딸(이경미)의 의미있는 갈등과 대립 형상은 조금 여유를 두면서 진행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긴다. 앤 마리(전국향)는 노라의 변한 모습에 적응하지 못하고, 에미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으며 쌀쌀맞게 대한다. 이 과정에서 세 사람의 감정선이 너무 직선적이어서 ‘인형의 집’ 전편에서 숨겨졌던 노라의 감정보다 정밀하게 표현되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는다.

루카스 네이스는 “‘인형의 집’이 발표됐던 당시 논란이 됐던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이슈들이다”라며 “‘인형의 집 PART2’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변했고 얼마나 변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남녀라는 존재의 평등함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작가의 궁금증이나 의도를 인형의 집 PART2를 통해 연출을 맡은 김민정 역시 작가의 이러한 의도에 충실하기 위하여 흐트러짐 없는 연출력을 보여 주었다.

잘 이해하였고, 잘 보여주었고, 잘 구성된 연극이었다. 무대 장치나 연기자의 감정선을 제외한다면 ‘인형의 집’이 처음 공연되었을 당시의 이른바 웰 메이드 플레이 같은 큰 흠집 없는 작품이었다. 원작자의 작품에 대한 다른 평처럼 입센의 최초작품 ‘인형의 집’의 분위기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 문제를 조용하면서도 진지하게 풀어낸 작품이었다. 그러나 더 욕심을 낸다면 관객이 좀 더 무대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형식적 변화를 과감하게 시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다. 지속적 엿보기 관극의 태도에서부터 적극적 개입을 위한 객석과 무대의 거리 좁히기가 여기에 더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든다. 별 큰 부담 없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곳 이 시간의 연극으로서 과감성을 기대했기에 무난하다는 생각만으로 관극을 접을 수밖에 없다.

## 관객에게 가깝게 다가가기 부산시립교향악단 미완성음악회

드림원정대 대표, 공연 컬럼니스트 **이상훈**

교향악단 리허설을 본다는 건 분명히 흥미로운 일이다. 특히 애정을 가지고 자기 고장의 교향악단 연주회장을 정기적으로 찾는 팬에게는 종종 그러하다. 어떻게 우리 지휘자가 단원들이랑 소통하는지, 그리고 연습하면서 사운드가 어떻게 향상되어가는지를 엿볼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클래식 음악에 문외한이라고 하더라도 오케스트라가 완성되어가는 일련의 과정은 지휘자가 수 십명의 각기 다른 소리를 내는 악기를 이끌어가는 과정이기에 간혹 경영과도 비유되기도 하며, 잠시나마 지휘자의 소통과 리더십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다. 이는 축구 국가대표팀이나 유명 축구클럽의 감독과도 비슷해서 승부

에서 좋은 결과를 낸 감독들의 리더십은 언론에서 종종 회자되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 연습과정은 쉽게 노출되지도 않을 뿐더러 마주하기는 더욱 어렵다. 축구에서 게임만이 중계가 되듯, 오케스트라 연주 역시 공연이나 음반을 통해서 관객과 만난다. 그래서 리허설 과정을 마주한다는 건 드문 일이며 흥미로운 이벤트이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유명 오케스트라의 연주회 전 날이나 저녁 공연을 앞두고 마티네 형식으로 무대 리허설을 공개하는 일이 종종 있다. 공식적으로 정기적으로 오픈되어 있기도 해서, 실제 공연과 같이 웹사이트에서 예약이 가능하며, 그렇기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무대 리허설을 만날 수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 지휘자가 단원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점검하려고 하는지 엿볼 수 있다. 또한 본 공연을 예매해 놓았다고 하면 리허설 과정은 연주회의 좋은 예습이 되기도 한다.

필자는 해외 유수의 오케스트라의 연습과정을 엿볼 수 있었던 예가 몇 차례 있었는데, 한번은 보스턴 심포니홀에서 열렸던 BSO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다. 마침 새 음악감독으로 선임된 안드리스 넬손스의 정기연주회 날 오전이었는데, 편안한 차림의 지휘자와 단원들이 음악에 대한 서로의 견해를 나누며 악상

제552회 정기연주회 공개 리허설로 진행된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미완성 음악회



을 조율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청중들은 대부분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많았는데, 평일 오전이라는 시간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교향악단의 오랜 팬들이었고 리허설을 듣는 관객들의 분위기 속에서 교향악단 단원들과 지휘자에 대한 애정이 물씬 느껴졌다. 마침 이날은 다른 도시로 이동해야하는 비행일정이랑 겹쳐서 본 공연을 볼 수 없었는데, 당일 오전 오픈된 리허설 공연 덕분에 보스턴 심포니홀과 BSO를 놓치지 않고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데이비드 게펜홀에서 열렸던 뉴욕 필하모닉의 경우는 무대 리허설 성격이었던 터라, 실제 공연의 마지막 연습장면이라 할 수 있었다. 유명 연주자와 오케스트라가 협주곡을 맞추는 시간이었고, 거의 실제 연주와 흡사하게 진행되었다. 그래서일까, US 100\$를 웃도는 공연장 티켓이 부담스러운 학생들이나 젊은 관객들이 곳곳에서 보이는 것도 리허설의 장점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인트 루크(St. LUKE)는 바비칸 인근에 있는 잉글랜드 런던의 교회이다. 하지만 이 곳은 LSO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런치 콘서트와 실내악이 열리는 제어우드 홀(Jerwood Hall)로 리노베이션, 종종 리허설이 열리기도 한다. 필자가 몇 해 전 찾았을 때에는 마침 LSO의 음악감독인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관 편성 없이 현 파트만 가지고 리허설을 하고 있었고 실제 공연장이 아닌 연습실 같은 작은 공간이라 마에스트로의 연습 모습을 눈 앞에서 볼 수 있어서 오래 기억에 남았다.

서두가 길었는데,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제552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중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5번 4악장 ‘아다지에도’를 가지고 본 공연을 이틀 앞둔 6월 12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리허설 무대를 소개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오픈 리허설은 종전에 없었던 시도였기에, 제법 많은 관객들이 리허설 무대를 찾았고, 말러 5번 중 ‘아다지에도’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곡이기에, 나 또한 궁금증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했다. 말러 5번 4악장은 전반적으로 템포가 느린 가운데 긴장감을 놓지 않고 연주해야 해서 좀처럼 쉽지 않다. 그리고 제법 여러 편의 영화 속에 등장해서 대중에게도 익숙한 곡이기에 다가서기 쉽지만 또 그만큼 기대가 커서 완성도를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이 글은 선부르게 곡의 해석이나 완성도를 논의 하는 자리는 아니기에 연주의 내용



보스턴심포니오케스트라 오픈 리허설

을 소재로 이야기 하지는 않으려 한다. 그렇다고 결코 모자라거나 부족해서가 아님도 분명히 해둔다.

옛그제 같은데 벌써 횡수로 3년. 2007년 9월부터 어느덧 21개월 동안 부산시립교향악단을 이끌어난 예술감독 최수열을 정격 연주회가 아닌 리허설 무대에서 만날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 연습을 진행하는 내도록 지휘자와 단원간의 교감이 느껴졌으며, 연출이든 아니든 작품을 완성시키려는 과정이 돋보였다. 리허설을 관객에게 공개한다는 건 한발자국 가까이 다가서는 소통의 방법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감의 다른 표현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단원들과 하는 이야기가 관객에게도 전달되도록 핀마이크를 차고 진행하는 방법도 특히 인상적이었다.

가끔 언론을 통해 듣게 되는, 예술감독으로 최수열 지휘자가 선임되면서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조금씩 변화해가며 성숙해 가는 과정이 팬로서는 반갑고 응원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다. 이틀 뒤인 6월 14일 본 공연에서는 말러 교향곡 5번 외에도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가 협연하는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라단조’와 라벨의 ‘쿠프랭의 무덤’도 일치감치 좌석이 매진되면서 관객들의 기대만큼이나 성숙한 연주회를 보여주었고, 성황리에 연주회를 마쳤다. 더군다나 6월 20일에는 같은 프로그램으로 성남아트센터에서 연주회를 했다고 한다. 부산을 넘어 다른 지역에서 만나는 음악 팬들에게도 감동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한다.



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미디어 아트로 만나는 인상주의 거장들**  
**빛의 화가들展**

**일 시** 6월 8일(토)-9월 29일(일) 전시실  
**입장료** 일반 1만2천원, 청소년 9천원, 어린이 7천원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4매  
까지 30% 할인,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문화  
롭데이 5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170



모네, 고흐, 고갱, 마네, 르누아르, 드가, 세잔 등 인상주의 거장 7명의 320여점의 작품들이 초대형 파노라마 캔버스에 영상으로 펼쳐지는 미디어 아트전 '빛의 화가들'.

인상주의의 예술적 의의와 가치 및 주요 작품들을 비롯해 관객의 움직임에 따라 반응하는 영상을 통해 미디어 아트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 등 6개의 테마별 전시공간으로 구성된다.

- 관람시간/오전 10:30~오후 7:30(오후 6:30 입장 마감, 월요일 휴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 안전체험 뮤지컬**  
**'도와줘요 안전맨'**

**일 시** 7월 2일(화)-9월 8일(일) 오전 11:00  
(월요일 공연없음) 사랑채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24개월 이상 입장가능,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6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53



평화로운 지구에 어느 날 지진이 발생하면서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고 지구를 사랑하는 안전왕자와 친구들은 이 어려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힘을 모으는데...

최근 국내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진 발생시 맞닥뜨릴 수 있는 각종 유형별 위기 순간에 대한 대처 요령을 노래와 춤을 통해 쉽게 배워볼 수 있는 '도와줘요 안전맨'은 2015년 국민안전 안전문화창작뮤지컬 우수상 수상, 2017년 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공연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바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3회 정기연주회**  
**부지휘자의 첫 번째 음악회**

**일 시** 7월 5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로 취임한 이민형이 지휘하고 2019 부산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협연자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피아니스트 박정희가 협연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3회 정기연주회. 지휘자 이민형은 스코틀랜드 왕립예술원 'Royal Trust Award', 런던 어니스트 리즈 재단의 '젊은 지휘자 상'을 수상했다.

- 프로그램**  
그리그/피아노 협주곡  
드보르작/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꽃보다 할배의 로맨스! '장수상회'**

**일 시** 7월 5일 금요일 오후 7:30, 6일 토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장료**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세대를 아우르는 사랑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연극 '장수상회'.

평생 독심을 지키며 살아온 까칠한 노인사 '김성철'과 소녀 같은 꽃집 여인 '임금님'을 통해 사랑앞에서는 나이 불문하고 소년, 소녀가 되는 연애 초보들의 설렘 가득한 모습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국민 할배이자 최고의 배우 이순재와 신구, 그리고 우리 시대의 여배우 손숙 등 그 어떤 무대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대한민국 명품 배우들의 향연이 펼쳐진다.

**제6회 벨라보체 합창단**  
**정기연주회**

**일 시** 7월 7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벨라보체 합창단 010-7516-2077



부산에서 활동하는 아마추어 혼성합창단인 벨라보체합창단의 여섯 번째 정기연주회.

이태리어로 '아름다운 목소리'를 뜻하는 벨라보체합창단은 2014년 1월 창단 이후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부산합창제, 부산시민대합창, 평화물결 2016, 드림콘서트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지휘자 조현수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외 가곡 및 드라마 OST, 뮤지컬넘버, 가요 등 다채로운 곡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 지휘/조현수 ● 피아노/이현주
- 사회/송영호 ● 무용/정희엽, 총명주
- 협연/음 챔버 오케스트라

**이일세 첼로 독주회**  
**Beethoven I**

**일 시** 7월 7일 일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아트뱅크크레아 442-1941



따뜻한 음색과 냉철하고 열정적인 음악성으로 주목받은 첼리스트 이일세 독주회.

올해 음악인생 30년을 맞아 준비한 세 차례 무대 중 첫 번째 무대로, 베토벤의 곡만으로 무대를 꾸민다.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를 최연소로 입학하여 전문연주자과정과 최고연주자과정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이일세는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 부산피아노트리오 멤버, 앙상블 코스모폴리탄 음악감독으로 있으며 동의대학교 겸임교수, 동의대학교 예술영재원 외래교수, 하계 음악 아카데미 Wiener Musik Seminar 교수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피아노/박지은

## 인제대학교 백병원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음악회

**일 시** 7월 8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UKO 988-3087



지난 2006년 소아암, 심장병 등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환자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United Korean Orchestra, U.K.O)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과 함께 마련하는 사랑나눔 음악회.

이번 무대에서는 시카고, 캐리비안 해적, 그리스, 오페라의 유령, 웨스트사이트스토리 등 우리 귀에 친숙한 오페라 넘버 및 OST를 들려준다.

- 지휘/윤상운 ● 해설/윤장미
- 테너/김성진 ● 소프라노/설은경

## 제30회 이견음악회 베를린 필하모닉 이견 앙상블

**일 시** 7월 10일 수요일 오후 8:00 대극장  
**입장료**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함)  
**문의** (주)이견창호 032-760-0898



종합건축자재기업 이견(EAGON)이 지역 사회에 수준 높은 음악을 접할 수 있는 문화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해 온 이견음악회 2019년 무대. 이견음악회 30주년을 맞아 마련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 2016년 방문했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인 로마노 토마시니, 울프강 탈리츠, 야누스 위드지크를 주축으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 현악 실내악단인 카메라타 단원들과 유명 첼발로 솔리스트인 크리스천 리거로 구성된 베를린 필하모닉 이견 앙상블이 출연,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방문했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인 로마노 토마시니, 울프강 탈리츠, 야누스 위드지크를 주축으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 현악 실내악단인 카메라타 단원들과 유명 첼발로 솔리스트인 크리스천 리거로 구성된 베를린 필하모닉 이견 앙상블이 출연,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 제21회 부산교문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비제, 고흐 그리고 '아를'

**일 시** 7월 13일 토요일 오후 3:00 대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3



지난 2006년 교육청 소속 청소년오케스트라로 전국 최초로 창단된 부산교문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부산교문청소년오케스트라는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 조수미와 함께 만드는 작은음악회, 사제동행 콘서트, 부산청소년음악제 초청공연, 부산마루극제음악제 초청연주회, 학생과 시민을 찾아가는 광장음악회 등 다수 무대에 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아를의 여인' 모음곡 제1, 2번과 아르투리안 '트럼펫협주곡', 베버 '클라리넷협주곡 제1번'을 들려준다.

- 지휘/이동신
- 협연/권한나(트럼펫), 성예림(클라리넷)

## 그랜드오페라단 제49회 정기공연 오페라 봄봄\_소설, 음악을 만나웃다

**일 시** 7월 13일 토요일 오후 3:00, 7:30 중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B석 1만원  
**문의** 그랜드오페라단 853-2341, www.grandopera.or.kr



그랜드오페라단(단장 안지환)이 부산 초연 10주년을 기념해 마련하는 창작오페라 '봄봄' 지난 2001년 국립극장에서 초연된 오페라 '봄봄'은 소설가 김유정의 동명의 단편소설을 원작으로, 그랜드오페라단이 지난 2010년 부산 초연무대를 가진 후 중국 북경과 상해를 비롯해 일본 도쿄, 서유럽 3개국 5개 도시, 이태리 밀라노 엑스포 문화행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및 바탐 지역을 순회하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 총예술감독/안지환 ● 연출/김태웅
- 지휘/정금련 ● 사물놀이/전통연희단 꼭두쇠
- 출연/박정민, 전병호, 한경성, 김향은
- 오케스트라/그랜드챔버오케스트라

## 부산시립극단 제65회 정기공연 테베 3부작 : 오이디푸스, 콜로누스의 오이디푸스, 안티고네

**일 시** 7월 18일-19일 목-금요일 오후 7:30, 20일 토요일 5:00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극단 607-3125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극작가 소포클레스의 비극 세 작품을 재구성한 부산시립극단 제65회 정기공연 '테베 3부작'. '오이디푸스', '콜로누스의 오이디푸스', '안티고네' 등 3작품으로, 저주 받은 운명으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왕비로 삼은 오이디푸스 왕과 그의 딸 안티고네를 통해 운명 앞에 굴복하는 인간의 무력함을 그려내고 있다.

를 죽이고 어머니를 왕비로 삼은 오이디푸스 왕과 그의 딸 안티고네를 통해 운명 앞에 굴복하는 인간의 무력함을 그려내고 있다.

- 연출/김지용(예술감독)

## 김수진 귀국 피아노 반주 리사이틀

**일 시** 7월 20일 토요일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문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학사 및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독일을 중심으로 활동하다 귀국한 피아니스트 김수진 반주 리사이틀. 현재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반주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수진은 그동안 다양한 악기의 반주를 통해 연주자들과의 일치된 호흡으로 음악적 교감을 나눠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트럼본주자 주인혜, 바이올리니스트 지상희와 함께 덴마크 작곡가인 조르젠센의 '트롬본과 피아노를 위한 로망스 작품 21', 스위스 출신의 작곡가 슈나이더의 '리듬 인 블루', 미국 작곡가 에와젠의 '트롬본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그리고 슈만의 '바이올린 소나타 제2번'을 들려준다.

이번 무대에서는 트럼본주자 주인혜, 바이올리니스트 지상희와 함께 덴마크 작곡가인 조르젠센의 '트롬본과 피아노를 위한 로망스 작품 21', 스위스 출신의 작곡가 슈나이더의 '리듬 인 블루', 미국 작곡가 에와젠의 '트롬본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그리고 슈만의 '바이올린 소나타 제2번'을 들려준다.

### 한 여름밤의 오페라 피크닉

**일 시** 7월 21일 일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전석 3만5천원  
**문의** 위클래식 070-4190-1289, 010-2842-0248



한 여름밤 펼쳐지는 오페라 아리아의 향연 ‘한 여름밤의 오페라 피크닉’.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 1월 오페라 ‘마술피리’의 ‘밤의 여왕’ 역으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하우스에서 성공적인 데뷔 무대를 치른 소프라노 박소영을 비롯해 2018년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동양인 최초로 ‘로미오’역으로 메트로폴리탄 데뷔무대를 가진 테너 신상근, 스페인 명문 발렌시아 오페라 극장 솔리스트 출신의 바리톤 허종훈, 독일 바이마르 국립극장 전속 솔리스트로 활동중인 베이스 김대영 등 4명의 성악가들이 부산의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1회 정기연주회 김정수 예술감독 취임축하공연

**일 시** 7월 24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1층 1만원, 2층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김정수 신임 예술감독의 취임 축하 무대로 마련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1회 정기연주회.  
 지난 5월 선임된 김정수 신임 예술감독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원을 거쳐 추계예술대학교 국악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많은 국악인들을 배출해낸 국

### 아트뱅크코레아 초청 소리나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일 시** 7월 22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자매 피아니스트 박정희와 박미정이 결성한 소리나 피아노 듀오의 무대.  
 미국 보스턴 유학시절부터 피아노 듀오 연주 활동을 가져온 소리나 피아노 듀오는 2012년 서울에서의 데뷔무대와 2014년, 2016년 아트뱅크코레아 초청무대를 통해 ‘강약의 철저한 대비와 두 사람 사이의 리듬의 조화, 서로의 긴밀한 호흡의 달성으로 최고의 연주를 보여주었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박정희는 현재 동아대학교 교수로 있으며 연주자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박미정 역시 현재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무대에 서고 있다.

### 장정운 무용 35년 기념공연

**일 시** 7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장정운 200-7822



동아대학교 교수로 있는 장정운은 이화여자대학교와 미국 UCLA(안무전공)를 졸업하고 지난 1985년 제1회 개인공연 ‘공간발레의 밤’을 비롯한 34회 개인공연과 서울국제무용제, 전국무용제, MODAFE, BIDE 등 다수 무대를 통해 꾸준한 작품을 선보여 왔다.  
 무용가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을 보여주는 창작춤 ‘모더니스트 modernist’, ‘단조 mono tones’를 통해 창조적 역량과 고유한 순수움직임 양식을 펼쳐보인다.

### 2019년 부산 아마추어 클라리넷 앙상블 정기연주회

**일 시** 7월 24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 아마추어 클라리넷 앙상블 010-3583-2810



초등학교생부터 일반인까지 다양한 계층의 아마추어 클라리넷 연주자들로 결성된 부산 아마추어 클라리넷 앙상블의 무대.  
 부산클라리넷파이어가 운영하는 부산 아마추어 클라리넷 앙상블은 혼자 연습하고 연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모여 화음을 만들고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클라리넷이 주는 감동과 기쁨을 느끼고자 결성된 단체이다.  
 ● 지휘/손호상

악계의 대부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김정수 예술감독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이자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대표 및 상임지휘자로 있는 김성경 객원지휘자를 비롯해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중요제례악, 제45호 대금산조, 제72호 진도씻김굿 이수자이자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 한국음악앙상블 ‘풍류’ 음악감독으로 있는 박환영, KBS국악대상을 수상하고 서울대학교 국악학과 교수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16호 거문고산조 이수자인 허윤정, 중요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이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로 있는 강영근, 서울대학교 국악학과 교수이자 해금연구회 회장으로 있는 양경숙, 난계국악단 예술감독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로 있는 민의식, 제12회 장흥 국악대제전에서 대령상을 수상하고 현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단원으로 있는 소리꾼 박성희가 무대에 선다.

**프로그램**  
 박환영(편곡)/이생강류 대금산조를 위한 협주곡 ‘죽향 정대석/거문고협주곡 ‘무영탑’  
 이강덕/메나리조 주제에 의한 피리협주곡  
 이준호/서용석류 해금산조 협주곡  
 백대웅/가야금협주곡 ‘신 관동별곡’  
 김희조(편곡)/판소리 ‘수궁가’ 중 ‘가자가자 어서가’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  
2019 여름 춤 축제 ‘날 잡아봐라~’**

**일 시** 7월 26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부산시립무용단 607-3121~2



부산시립무용단이 매년 여름, 지역민과의 대중적 소통을 위해 마련해 온 2019 여름 춤 축제. 지난해까지 매년 야외 마당에서 펼쳐지던 ‘여름마당춤축제’를 공연장으로 장소를 옮겨 새롭게 선보이는 무대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이번엔 선보이는 ‘날 잡아봐라~’는 전래동화 ‘토끼와 거북이’를 재미있는 춤극으로 풀어낸 작품으로, 천극변검 전수자로 중흥무진 활약하고 있는 마술사 구분진, 스트릿댄스 공연팀인 스텝아트컴퍼니가 함께 출연, 보다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 안무, 구성/서정숙(훈련지도자)

**이안오케스트라 특별연주회  
2019 TV속에 빠지다**

**일 시** 7월 27일 토요일 오후 3:00 대극장  
**입장료** 초대(초대권은 사전 배부, 잔여석에 한해 당일 매표소에서 교부가능)  
**문 의** 이안오케스트라 010-4817-9645



지난 2014년 11월 1일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정기연주회와 초청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고 있는 이안오케스트라 특별연주회. ‘2019 TV속에 빠지다’라는 테마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 귀에 친숙한 명곡에서부터 평소 접하기 어려운 곡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들려준다. 특히 해설과 함께 주제에 맞는 다양한 영상으로 곡에 대한 흥미를 높여준다.

- 협연/Antonino Mollica(색소폰)

**제17회 아코르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7월 28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아코르청소년오케스트라 010-7797-1108



지난 2002년 9월 창단 이후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며 나눔과 배려를 익히고 있는 아코르청소년오케스트라의 17번째 정기연주회. 아코르청소년오케스트라는 그동안 매주 일요일 연습을 겸한 정기모임과 여름, 겨울음악캠프를 통해 음악적 기량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연주회와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 지휘/박진
- 협연/신재민(클라리넷), 남선아(플루트)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반려동물전 ‘너는 나에게’**

**일 시** 6월 21일(금)-8월 25일(일) 1, 2층 전시실  
**입장료** 무료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00



‘반려’이자 ‘동행’, ‘가족’의 의미로 이미 우리의 삶 깊숙하게 다가와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지역 최고의 설치작가들의 작품으로 풀어낸 반려동물전 ‘너는 나에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본부장 박태성)와 부산동구청(구청장 최형욱)이 함께하는 이번 기획전에서는 방정아, 변대용, 홍원표, 오유경, 이미주, 이지양, 임선이 등 설치작가 7인을 초청, 작가들이 저마다 생각하는 반려동물을 설치작품을 통해 때로는 재미있게, 때로는 진중하게 풀어내며, 2층 전시실에서는 모혜준을 비롯해 지역의 젊은 작가 13명이 참여하는 ‘반려동물 스몰 아트페어’가 열린다.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제2회 해외아동청소년예술축제  
(아시테지 in Busan)**

**일 시** 7월 25일(목)-27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7월 31일(수)-8월 1일(목) 오전 11:00 소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에그~션 히어로’ 공연은 전석 3만원, 36개월 이상 입장가능,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2개 공연 이상 동시 예매시 30% 할인, 7월 26일 문화가 있는 날 50% 할인)  
**문 의** 부산시민회관 630-5200, www.bscc.or.kr



국내 최대 아동·청소년 공연예술축제인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참가작을 부산에서도 만날 수 있는 해외아동청소년예술축제 2019년 무대.

**한국 (주)문화공공 ‘하늘에서 떨어진 해외 달 이야기’**

7월 25일(목) 오전 11:00, 오후 2:00  
해와 달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삶을 생각하게 만드

는 감성뮤지컬로, 모래에 그림을 그리는 샌드아트와 이야기를 들려주는 어쿠스틱한 노래, 다양한 오브제를 사용한 배우들의 몸짓이 어우러지는 샌드아트뮤지컬.

- 작, 연출/이선주
- 샌드아트디렉터/최은영
- 음악디자이너, 작곡, 피아노연주/전현미
- 안무/홍충민

**네덜란드 마스 씨어터&댄스 ‘에그~션 히어로’**

7월 26일(금)-27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경비원이 필요가 없는 한 전시장에 놓여있는 달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지루해 졸릴 때쯤 달걀이 홀연히 사라져버렸다. 대체 달걀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무대와 소품은 간소하지만 두 배우가 만드는 마법과도 같은 다채로운 마임의 향연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코믹 마임극.

- 작, 연출/Willemijn Zevenhuijzen

**이스라엘 네페시 씨어터 ‘이상한 이웃’**

7월 31일(수)-8월 1일(목) 오전 11:00  
불안한 이웃과의 기막힌 공동 육아작전을 통해 평화와 관용을 이야기하는 찰리 채플린 스타일의 코미디극.

- 연출/Roy Segev
- 극작/Roy Segev, Yuval Cohen, Amnon Wolf
- 작곡(음악)/Yuval Mesner

기타공연장

음악 | Music

2019 영화의전당 마티네콘서트  
푸디토리움의 시네마 브런치 시즌 2  
영화, 언더그라운드를 꿈꾸게 하다

일 시 7월 2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영화음악감독 푸디토리움과 함께하는 영화와 영화음악 이야기 '푸디토리움의 시네마 브런치' 두 번째 시즌. 국내 음악계에서 감성 음악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구축한 푸디토리움(김정범)이 진행하는 시네마 브런치 7월 무

대는 강이채, 김거지, 스텔라장 등 시대를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들과 푸디토리움이 함께하는 라이브 콘서트로, 영화 '월스', '어거스트 러쉬', '비긴 어게인', '스타 이즈 본' 등 화제 속 영화음악의 사운드트랙을 그들만의 감성으로 들려준다.

- 피아노/김정범

제5회 을숙도 오페라축제

일 시 7월 6일(토) 오후 3:00, 7:00, 13일(토), 20일(토)  
오후 2:00, 6:00, 27일(토)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문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자연과 오페라의 아름다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오페라축제. 6일(토) 오후 3:00, 7:00 노블아트오페라단 '라 트라비아타' • 입장료/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13일(토) 오후 2:00, 6:00 경상오페라단 '코지 판 투테'

- 입장료/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 20일(토) 오후 2:00, 오후 6:00 국립오페라단 '마술피리'
- 입장료/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 27일(토) 오후 5:00 부산로얄필하모니오케스트라 오페라 갈라콘서트 'Amo Ergo Sum'
- 입장료/전석 1만원

S. Moden 타악양상을 제10회 정기연주회  
타악양상들과 함께하는  
국악창작과 편곡의 세계

일 시 7월 7일 일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S. Moden 타악양상들 010-8408-8192



지난 2010년 타악연주자 송희철을 주축으로 부산, 경남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타악연주자들 창단한 S. Moden 타악양상들의 무대. 특히 국내에서는 처음 연주되는 초연곡들을 통해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하고 있는 S.

Moden 타악양상들은 이번 무대에서 작곡가 오세일, 김정진, 김지은, 김지만의 창작곡을 비롯해 타악연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 출연/송희철, 오세일, 김지만, 김정진, 김지은, 유진, 송학, 김영민, 박찬욱, 윤승환, 임혜민 외

77 콘서트

일 시 7월 7일 일요일 오후 7:07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무료(사전 신청자에 한함)  
문의 (주)사라토가 803-3311, www.saratoga.kr



UN참전국 병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작곡된 UN참전국송의 저변확대를 위해 마련하는 '77 콘서트'.

UN평화기념관에서 후원하고 UN참전국송을 작사한 (주)사라토가 도용복 회장과 연주자로

활동중인 피아니스트 도진아, 플루티스트 도진경, 바이올리니스트 도진미 등 그의 세 딸과 가족들이 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반짝반짝 작은별'로 잘 알려진 프랑스 민요에 도용복 회장이 22개 UN참전국의 국가명을 넣어 작사한 'UN참전국송'과 넬라판타지아, You raise me up, Hey Jude 등 국내외 클래식 명곡과 팝을 들려준다.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7월 10일(수), 17일(수)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3



10일 오페라 갈라콘서트 신라대학교 외래교수이자 효원성악회. 부산솔리스트양상들. 세계음악연구회 회원으로 활동중인 바리톤 최대우, 부산예중어머니합창단, 나사나노합창단 지휘자, 효원성악회, 부산지휘자합창단 회원

으로 있는 바리톤 채범석, 부산예고 강사로 있는 소프라노 박소영, 부산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이수진, 울산시립합창단 수석단원, 아토오페라양상들 단원으로 활동중인 테너 김정권, 동서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는 테너 양승엽이 함께 하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이번 무대에서는 지오르다노 오페라 '안드레아 셰

니에', 도니제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주요 아리아를 들려준다.

- 피아노/안준희(부산반주연구회 회원)



17일 앙상블코스모폴리탄-EURO '東西南北' 첼리스트 이일세를 중심으로 남자연주자들로만 구성된 현악양상을 앙상블코스모폴리탄의 무대.

지난 2010년 서울에서 창단된 후 바로크에서 현대음악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폭넓은 레퍼토리를 들려주고 있는 앙상블코스모폴리탄은 창단연주회(성남아트센터)를 시작으로 부산에서도 수차례 정기연주회를 가져왔으며, MIB(Men in Bach) 시리즈, Amadeus & Rivals 시리즈 등을 통해 관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다.

- 음악감독/이일세 • 악장/안은택
- 바이올린/박완서, 송범석, 진성빈, 성기쁨, 이상엽, 최진영
- 비올라/신유한, 천재현, 정하람
- 첼로/이경성
- 현연/서채원(첼로, 부산동성초등학교 5학년)

### 명 아티스트 시리즈 III 베아트리스 스텔츠 뮐러 내한공연

**일 시** 7월 11일 목요일 오후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3



금정문화회관이 마련하는 2019년 명 아티스트 시리즈 마지막 무대 ‘베아트리스 스텔츠 뮐러 내한공연’.  
8세에 오스트리아 그라츠 영재반 음악대학에 입학하여 일찍이 그 실력을 인정받은 피아니스트 베아트리스 스텔츠 뮐러는 영국 왕립대학의 장학생으로 입학하여 학위를 마쳤으며 프랑스 파리 국립대학에서 대학원과정을 수료했다.

그동안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전 세계를 무대로 연주활동을 펼쳐온 베아트리스 스텔츠 뮐러는 현재 프랑스 파리 에콜 프랑스 데 피아노에서 교수로 있다.

### 조아여성합창단 제4회 정기연주회

**일 시** 7월 13일 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크라우드 펀딩(<https://gachiup.com/gachiup/crowdDetail/idx/54>)으로 예매  
**문의** 박민영 010-3933-1496



지난 2016년 1월, 부산지역 출신의 여성 전문음악인들로 창단한 조아여성합창단의 정기연주회. 다양한 장르의 곡을 여성 특유의 아름다움과 섬세함으로 들려주고 있는 조아여성합창단은 2017년 대국국제합창제, 부산국제합창제 입상에 이어 2018년에는 발리 국제합창경연대회에서 여성합창 부분 최고득점 금메달을 수상했다.

● 지휘/이건륜, 이승현

### 부산시 초등학교 거점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일 시** 7월 17일-18일 수-목요일 오후 7:00  
영학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배아름 010-4817-9645



부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초등학교 오케스트라로,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 민락with오케스트라, 오륙도드림윈드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오케스트라와 더불어 음악전공인, 학부모, 선생님이 함께 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클래식 명곡에서부터 애니메이션 주제곡까지 다양한 곡을 통해 그동안 갖고있던 기량을 선보인다.

● 협연/테너 김지호

### 부산리코더앙상블 제12회 정기연주회

**일 시** 7월 21일 일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초대  
**문의** 강희숙 010-2562-6561



소통하는 리코더앙상블과 음악교육을 꿈꾸는 부산리코더앙상블의 12번째 정기연주회. 부산리코더앙상블은 리코더가 가진 교육적 가치를 확인하고 예술적인 가치를 찾아내기 위해 외국 유명 연주자들과의 꾸준한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서 연주법과 해석법을 익히며 기량을 쌓아오고 있다.

- 리코더/강희숙(리더), 박선숙, 최유미, 곽윤희, 김현숙, 최유리, 손윤서, 김은비
- 첼로/이재성 ● 챔발로/손보현
- 타악기/최원탁 ● 테너/황현한
- 찬조출연/부산주니어리코더앙상블

### 유니세프와 함께하는 기금조성음악회

**일 시** 7월 24일 수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광민정 010-3069-9777



여름과 겨울 두차례 열고 있다.

- 성악/박서진, 윤혜빈, 이민혁, 이효서, 이정윤, 최준혁
- 피아노/류소정, 유규현, 김주원, 최지인, 이신희
- 바이올린/박지현, 노예림

T&J Entertainment와 음악 전공자들이 유니세프 기금조성을 위해 매년 열고 있는 특별한 무대.

나눔을 실천하는 연주자들에게는 동기부여와 함께 관객들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하는 무대로, 매년 방학기간인

###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2019 Summer Fantasy

**일 시** 7월 24일 수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16



매년 여름 주옥같은 국내가요를 풍성한 합창음악으로 들려주는 부산시립합창단의 대표적인 브랜드 공연으로, 특히 올해는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은 해운대로 공연장을 옮겨 해운대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올해 무대에서는 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전진의 지휘, 포크송 가수 추가열의 특별출연으로, 지난 2017년과 2018년 Summer Fantasy 무대의 주인공이었던 가수 이문세, 조용필의 명곡들을 다시 한번 들려준다.



기타공연장

### 문화네트워크 음악풍경 제7회 짜장콘서트

**일 시** 7월 25일 목요일 오후 7:00(오후 6시부터 짜장면 먹기) 음악풍경 연습실  
**입장료** 참석비 1만원(사전 예약)  
**문의** 음악풍경 987-5005



문화네트워크 음악풍경이 마련하는 이색 무대로, 콘서트가 열리기 한시간 전인 6시 근처 중국집에서 연주자와 관객이 함께 짜장면을 시식하고 공연 뒷풀이를 통해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마련한다. 7월 무대에서는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테너 양승엽, 피아니스트 양진경이 출연,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으로 관객과 만난다.

### 국민연극 라이어 1탄

**일 시** 5월 31일(금)-9월 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KNN시어터  
**입장료** 전석 3만원(예매시 평일 1만9천원, 주말 2만 2천원, 학생 50% 할인)  
**문의** (주)디오르콜씨어터컴퍼니 664-7880



1999년 초연 이후 누적 관객 600만명을 돌파한 국민연극 '라이어 1탄'. 평범한 택시기사 존 스미스가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2명의 부인 메리와 바바라를 두고 철저한 이중생활을 하는 내용으로, 기막힌 거짓말을 통해 속고 속이는 인간사를 통쾌하게 풀어냈다. 특히 빠른 전개와 더불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속에 예측할 수 없는 반전으로 단순한 코미디극을 뛰어넘는 흥미진진함을 선사한다.

● 출연/왕정현, 임승현, 염지호, 고동우

### 2019 제2회 해운대 마린 컬처 클래식 뮤직 콘서트

**일 시** 7월 25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초대  
**문의** 해운대 마린 컬처 010-6573-7635



지난 2018년, 공연 문화예술의 발전과 해양과 관광을 뛰어넘는 해운대구의 문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가져온 해운대 마린 컬처의 2019 클래식 뮤직 콘서트.

올해로 두 번째로 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각계 각층의 추천을 받아 선출된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출연, 수준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 출연/이지윤, 조숙경, 임재홍, 전진주, 강미사, 김대영
- 해설/강주영

### 연극 '날라리 마형사'-부산

**일 시** 6월 6일(목)-8월 18일(일) 평일 오후 5:00, 7:30, 토요일 오후 3:00, 5:30, 8:00, 일·공휴일 오후 2:30, 5:00, 7:30(월요일 공연없음)  
**입장료** 전석 3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세상에서 제일 예리한 형사의 코믹 잠입수사극 '날라리 마형사'. 좌천될 위기에 놓인 마형사는 연출가 맹가진 살인사건에 의문을 가지고 '극단 연병연(연기를 병적으로 사랑하는 모임)'에 막내단원으로 잠입에 성공한다. 마형사는 허당미를 발산하며 연출가 맹가진과 여러 사건으로 얽히고 설친 단원들을 수사하기 시작하는데, 과연 날라리 마형사는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

● 출연/왕정현, 임승현, 염지호, 고동우

## 연극 | Play

### 코믹극 보잉보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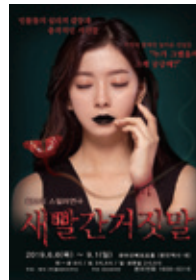
**일 시** 5월 16일(목)-8월 25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3:30, 6:3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입장료** 전석 3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지난 2001년 초연 후 현재 400만 관객을 돌파한 국가대표 코믹극 '보잉보잉'. 매력적인 바람둥이 조성기는 3명의 스튜디오스와 동시에 연애중이다. 어느날 조성기의 시골친구 순성이가 성기를 찾아오고 하필 그날 비행일정이 꼬이면서 애인들이 하나둘씩 찾아오는데... 순진남 순성기와 도우미 옥희가 조성기를 도와서 고군분투하지만 과연 이들은 이 엄청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 심리스릴러 연극 새빨간 거짓말

**일 시** 6월 6일(목)-9월 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부산메트로홀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주)플레이 더 부산 1600-0316



등골 오싹한 짜릿한 공포로 오감을 자극시켜 줄 스릴러연극 '새빨간 거짓말'. 직업, 환경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주인공 이유리는 어느 날 날카로운 흥기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되고 범인 색출에 나서면서 주변인 모두가 그녀에게 복수를 꿈꾸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연극 '새빨간 거짓말'은 탄탄한 스토리와 예측불가능한 전개 속에 실트없이 조여오는 긴장감으로 관객들에게 차원이 다른 공포감을 선사한다.

● 출연/왕정현, 임승현, 염지호, 고동우

## 2019 대한민국 소극장 열전

**일 시** 6월 25일(화)-7월 13일(토)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7월 13일 오후 4:00)  
공간소극장, 일터소극장

**입장료** 전석 3만원(통합권 10만원, 예매시 30%, 청소년 40% 할인)

**문의** 공간소극장 611-8518, 일터소극장 635-5370



부산의 극단 어니언 킹을 비롯해 극단 빈칸(전주), 극단 한울림(대구), 프로젝트그룹 커튼콜(대전), 극단 푸른연극마을(광주), 문화창작 집단 공터다(구미), 극단 도모(춘천) 등 전국 7개 도시에서 활동하는 지역극단들이 지역 간의 교류 활성화와 관객들의 보다 다양한 공연관람을 위해 마련한 '2019 대한민국 소극장열전'.

**부산 극단 어니언킹 '오버의스터라이히'**  
6월 25일(화)-27일(목) 오후 8:00 공간소극장

그럭저럭 소시민의 삶을 누리던 젊은 부부 하인츠와 안니가 아이를 갖게 되면서 벌어지는 갈등을 그린 작품.

- 작/프란츠 크샤버 크뢰츠
- 각색, 연출/황미애

**광주 극단 푸른연극마을 '옥주'**  
7월 1일(월) 오후 8:00 일터소극장  
70대 여인 옥주 앞에 나타난 사별한 남편 차만식, 살아 생전 살갑지 못했던 부부는 이전에 못다한 가슴에 맺힌 이야기를 풀어내며 인생의 마지막 역에서 함께 손을 잡고 넘어간다.

- 작/강경은
- 연출/오성완

**전주 극단 빈칸 '콘트라베이스와 플룻'**  
7월 2일(화) 오후 8:00 공간소극장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침없는 그녀 콘트라베이스, 창밖의 빛소리에도 잠 못이르는 예민한 소심녀 플룻,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여자가 동거하면서 겪게 되는 좌충우돌 이야기를 그린 작품.

- 작/하일호
- 연출/홍자연

**구미 문화창작집단 공터다 '타이피스트'**  
7월 3일(수) 오후 8:00 일터소극장  
한 직장에서 40여년 동안 함께 근무한 두 주인공이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한다.

- 작/메레이 쉬스갈
- 연출/황윤동

**대구 극단 한울림 '호야 내새끼'**

7월 4일(목) 오후 8:00 공간소극장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호야와 주변 사람들을 통해 조금은 특별하지만 전혀 특별하지 않은 그들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그려낸 작품.

- 작/김하나
- 연출/정철원

**춘천 극단 도모 '하녀들'**

7월 5일(금) 오후 8:00 일터소극장  
더 높은 곳으로 올라 가고자 하는 인기가 가진 욕망의 민낯과 현대사회의 신계급주의를 엿볼 수 있는 작품.

- 작/장 주네
- 각색, 연출/황운기

**대전 프로젝트그룹 커튼콜 '무림의 고수'**

7월 6일(토) 오후 3:00 공간소극장  
시골여관 '강호장'에 어느날 두 남자가 찾아오면서 펼쳐지는 치열한 삶의 흔적을 그린 작품.

- 작/윤중구
- 각색, 연출/김상규

**대전 극단 호감 '당신이 무슨 색을 좋아했더라...' [초청공연]**

7월 12(금) 오후 8:00, 13일(토) 오후 4:00 일터소극장  
반도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상처를 안고 사는 두 남녀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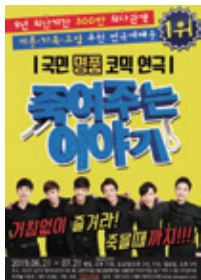
- 작/조광래
- 각색, 연출/정준영

## 연극 죽여주는 이야기

**일 시** 6월 21일(금)-7월 21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5:00 (월요일 공연없음) 성원아트홀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성원아트홀 1899-5435



현대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자살'을 소재로, 죽음을 상품화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서러면 타인의 죽음마저도 눈감아버리는 현실을 풍자하면서 누구에게나 삶은 소중하다는 교훈을 던지는 폭소 블랙코미디극.

신선하고 다양한 상품으로 소비자에게 확실한 '죽음'을 맞게 해주는 자살 사이트가 있다. 사이트 운영자 겸 대표인 닥네임 '안락사' 앞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신비한 여자가 나타나고, 그들의 사연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서로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는데...

## 창작뮤지컬 해운대연가-구름위를 걷는 자

**일 시** 7월 3일-5일 수-금요일 오후 8:00, 6일 토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VIP석 4만원, R석 3만원, A석 2만원

**문의**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해운대만의 독자적인 문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해운대문화회관이 제작, 2016년 11월 초연무대를 가진 창작 뮤지컬 '해운대연가-구름 위를 걷는 자'. '해운대연가-구름 위를 걷는 자'는 '해운대'라는 지명을 최초로 썼다고 알려진 통일신라시대 말기의 뛰어난 문장가였던 고운 최치원 선생의 삶과 그 시대를 다룬 작품으로, 극단 아트레블루선 박정우 대표가 극작과 연출을 맡는 등 출연진은 물론 무대, 의상, 소품 제작까지 부산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웰메이드 부산 뮤지컬'로 호평받은 바 있다.

- 총제작감독/김성모
- 연출/박정우

## 노인가족극 노미오와 줄리엣

**일 시** 7월 5일 금요일 오후 3:00, 7:30, 6일 토요일 오후 2:00, 6:00, 7일 일요일 오후 3:00 북구문화빙상센터 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예매시 25% 할인)

**문의** 극단 해풍 070-7346-7146, 010-9701-0712



지난 2017년부터 북구에서 활동해 온 북구의 유일한 전문극단 '극단 해풍'이 올해 북구문화빙상센터 상주단체로 선정되면서 마련하는 두 번째 무대 '노미오와 줄리엣'.

노인가족극 '노미오와 줄리엣'은 셰익스피어의 고전 '로미오와 줄리엣'의 아름다운 사랑을 모티브로, 원작과는 달리 서로의 자식들이 원수지간인 노년의 사랑을 유쾌한 시선으로 그려내고 있다.

- 작, 연출/이상우(극단 해풍 대표)
- 출연/양진철, 이권아, 서원우, 최현주, 박기림, 이하윤, 김경민, 조민수

기타공연장

년버벌 퍼포먼스 '플라이팬(FLY-PAN)'

일 시 7월 20일 토요일 오후 3:00, 6:30, 21일 일요일 오후 2:00, 5:30 KBS 부산홀
입장료 R석(1층) 6만원, S석(2층) 5만원(36개월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의 (주)화랑엔터테인먼트 1644-5564



보고 듣고 맛보고 즐기는 년버벌 퍼포먼스 '플라이팬(FLY-PAN)'. 러시아를 배경으로, 비빔밥과 불고기가 담긴 한식당 배달원의 피크닉 가방과 불뿔 거래자금이 든 마피아의 가방이 뒤바뀌게 되면서 펼쳐지는 코믹하고 유쾌한 스토리를 담은 '플라이팬'은 다양한 한식재료와 도마, 식칼, 빗자루, 무술검 등으로 만들어 내는 신나는 타악 리듬과 흥겨운 국악, 락 등 박진감 넘치는 사운드에 아크로바틱과 무술로 펼쳐지는 화려한 퍼포먼스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포레스텔라 2집 발매 전국투어 콘서트 Mystique 미스틱- 부산

일 시 7월 6일 토요일 오후 7:00 백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R석 13만2천원, S석 11만원, A석 8만8천원, B석 5만5천원
문의 (주)월드쇼마켓 1566-5490



국내 최초 크로스오버 남성 4중창 프로젝트였던 JTBC '팬텀싱어2'의 우승팀인 포레스텔라가 2집 음반 발매를 기념해 마련하는 전국 투어 콘서트. 뮤지컬배우 배두훈, 화학연구원 출신의 가수 강형호, 테너 조민규, 베이스 고우림 등 4인으로 구성된 포레스텔라는 우승 후 그 이듬해인 2018년 데뷔앨범 '에볼루션'을 발매했으며, 수심차려의 단독 콘서트와 방송, 공연을 통해 국내 크로스오버 그룹으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영화 | Movie

부산예술회관 작은영화콘서트 시민과, 영화로 소통하다 '졸업'

일 시 7월 16일 화요일 오후 4: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무료(15세 관람가)
문의 부산예술회관 612-1372, 628-4371



매월 셋째주 화요일, 한편의 영화를 감상하고 영화에 대한 수다로 소통하는 부산 예술회관 작은영화콘서트 '시민과, 영화로 소통하다' 2019년 6월 상영회. 영화 상영 후에는 시나리오 작가이자 부산영화인협회 서영조 회장이 영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코드들을 소개하며 관객들이 놓친 장면에서 숨어 있던 의미와 이미지를 짚어준다. 7월에는 불안한 미래를 앞둔 주인공의 방향을 통해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뉴아메리칸 시네마의 대표작 '졸업'(미국, 1967년 작, 상영시간 105분, 청소년 관람불가)을 상영한다.

콘서트 | Concert

금정에 반하다! 2019 인디콘서트

일 시 7월 4일-5일 목-금요일 오후 7:30, 6일 토요일 오후 1:00, 3:00,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3



몽환적이고 감각적인 사운드의 5인조 인디팝 밴드 워아더나잇, 폭발적인 가창력과 화려한 무대매너의 몽니, 그리고 밴드 88, 플랫폼 스트레오, 문센트 등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인디밴드 5개팀과 함께 하는 금정문화회관

2019 인디콘서트.
4일(목) 오후 7:30 워아더나잇
5일(금) 오후 7:30 몽니
6일(토) 오후 1:00 밴드88
6일(토) 오후 3:00 플랫폼 스테레오
6일(토) 오후 5:00 문센트

재즈 와인에 빠지다 132번째 콘서트 SHIHO

일 시 7월 12일 금요일 오후 8: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J석 4만원, R석 3만5천원, S석 2만5천원
문의 문화기획단 무대공감 623-0678



국내외 재즈뮤지션들이 출연하는 부산 유일의 상설 재즈콘서트 '재즈 와인에 빠지다' 132번째 콘서트. '재즈 와인에 빠지다'는 그동안 수준높은 재즈 무대와 더불어 무대지기이자 재즈보컬인 윤정의 해설과 뮤지션과의 대화를 통해 관객들을 재즈음악의 세계로 안내해왔다. 세계적인 재즈보컬 SHIHO(시호)의 새 앨범 발매를 기념해 마련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타카나 미야모토와 함께 그만의 파워풀한 목소리와 감각적인 연주로 색다른 무대를 선보인다.

야외 피크닉 콘서트

일 시 7월 18일-19일 목-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야외무대(우천시 소공연장)
입장료 무료(돗자리 필참)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3



뜨거운 여름, 한낮의 무더위를 식힐 시원한 야외 피크닉 콘서트. 첫날인 7월 18일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의 타악기 연주자들로 구성된 제이클랑 퍼커션 앙상블의 시원한 두드림 공연에 이어 보컬리스트 미션 레나타와 스코틀랜드 출신의 재즈 피아니스트 폴커비의 매력적인 듀오무대가 소프라노 곡은선의 진행으로 펼쳐진다. 둘째 날인 19일에는 뮤지컬 '시카고', '루나틱', '맘미미아' 등에 출연하며 국내 뮤지컬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배우 김선경과 여성 타악그룹 '아리타움'의 환상적인 콜라보 무대가 펼쳐진다.



행사 | Event

7월 시네바움 아카데미

**일 시** 매주 월-화요일 오후 7:00, 목요일 오전 10:00  
시네바움-아트홀바움  
**입장료** 1회 1만5천원(한달 수강료 10만원)  
**문의** 시네바움-아트홀바움 010-2774-3455



**1일(월) 오후 7:00** 이부현 교수의 즉문즉답(6) 주제적 삶과 사랑  
 • 강사/이부현(부산가톨릭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교수, 인문학연구소 소장)  
**2일(화) 오후 7:00** 박기철 교수의 이야기 콘서트(9)

빈센트 반 고흐의 흔적도 따라갔던 유럽 중단 기행  
 • 강사/박기철(경성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4일(목) 오전 10:00** 무료아카데미  
지혜와 성찰의 길 論語, 깊게 읽기  
 • 강사/윤산 김수청(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외래교수, 부산가톨릭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위원)

**8일(월) 오후 7:00** 일기로 만나는 비트겐슈타인  
 • 강사/하상필(인제대학교 교양학부교수)  
**9일(화) 오후 7:00** 우주관 오딧세이  
 • 강사/조송현(주웨진 인저리타임 대표,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겸임교수)  
**11일(목) 오전 10:00** 무료아카데미  
지혜와 성찰의 길 論語, 깊게 읽기  
 • 강사/윤산 김수청(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외래교수, 부산가톨릭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위원)



**15일(월) 오후 7:00** 반(反)이기(利己)로서의 정의\_공정성과 타자에 대한 책임  
 • 강사/문성원(부산대학교 철학과 교수)

**16일(화)** 동양의 미학(20) 일본 성담론의 이중성·문란과 관용의 원형

• 강사/안수현(문학박사. 문학평론가. 부산가톨릭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위원)  
**18일(목) 오전 10:00** 무료아카데미  
지혜와 성찰의 길 論語, 깊게 읽기  
 • 강사/윤산 김수청(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외래교수, 부산가톨릭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위원)

**22일(월) 오후 7:00** 인생 같은 영화, 영화 같은 인생(2) 영화, 어느 가족& 기생충 '가족이란...'  
 • 강사/배정우(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 회장, 상담심리학 박사)

**23일(화) 오후 7:00** 대상관계 정신분석 이론과 세익스피어\_문제적 성(性), 희극의 끝으로서의 결혼  
 • 강사/김해룡(영문학박사, 전 한일장신대학교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25일(목) 오전 10:00** 무료아카데미  
지혜와 성찰의 길 論語, 깊게 읽기  
 • 강사/윤산 김수청(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외래교수, 부산가톨릭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위원)

**29일(월) 오후 7:00** 김명우교수의 마음공부(4) 마음 공부와 반야심경  
 • 강사/허암 김명우(철학박사, 불교학자, 동아대학교 교양교육원 전임교수)

**30일(화) 오후 7:00** 무의식과 시각예술(4) 영화, 시&밀양&버닝을 배회하는 '초차아'와 '광기'라는 유형(2)  
 • 강사/강성한(예술학박사,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 전임연구위원)

정두환의 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 거장의 음악\_영화음악 II

**일 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입장료** 무료  
**문의** 정두환 011-574-0423



문화를 통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꿈꾸는 '문화유목민' 정두환이 진행하는 화요음악강좌 '좋은 음악 & 좋은 만남'. '좋은음악&좋은만남'은 지난 2000년 3월 부산문화회관 음악감상실에서 시작된 후 올해 5월 700회 특집 음악회를 가진 바 있다.

**2일(708회)** The Ludlows-제임스 호너  
**9일(709회)** 모던 타임즈-데이비드 라크신  
**16일(710회)** Up!-마이클 지아치노  
**23일(711회)** 레 미제라블-클로드 미셸 쇤베르크  
**30일(712회)** 이달의 책 읽기 '국가란 무엇인가'(유시민 저, 돌베개)

제9회 젊음의 축제

**일 시** 7월 3일-4일 수-목요일 오후 7:3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631-1377, www.bsart.or.kr



지역의 청년예술가들에게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주고자 매년 공동으로 마련하는 젊음의 축제 2019년 무대.

**3일 젊음, 비바체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금관 5중주단 '브이브라스(V-BRASS)'와 국악그룹 트락, 국악그룹 라일락이 함께하는 무대.

**4일 젊음, 樂하다**  
지역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학가요제 본선 무대로, 대상 1명을 비롯해 12명의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김옥균의 힐링클래식음악여행

**일 시**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롯데백화점부산본점 문화센터  
**입장료** 수강료 12만원(3개월)  
**문의** 김옥균 010-6367-0149



MBC 부산문화방송에서 'FM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前MBC PD 김옥균(현재 클래식음악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이 진행하는 클래식음악해설감상회.

**프로그램**  
생상스 '피아노협주곡 2번', 알비노니 '오보에협주곡' 멘델스존 '한여름밤의 꿈', 브람스 '이중협주곡' 엘가 '수수께끼변주곡', 시벨리우스 '바이올린협주곡' 비에니아프스키 '바이올린협주곡', 쇼팽 '녹턴 20번 올림다장조' 비제 오페라 '카르멘',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기타공연장

###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일 시** 9일(화) 오후 7:30, 22일(월) 오후 7:30, 23일(화)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2만원(22일 강좌는 1만5천원)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9일(화) 오후 7:30**  
 음악으로 읽는 인문학  
 스트라빈스키의 음악 가운데 최고의 걸작이자 20세기 음악계에 가장 영향력이 컸던 작품들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발레음악 '봄의 제전'과 함께하는 음악평론가 광근수의 '음악으로 읽는 인문학'.

러시아 안무가 디아길레프의 권유로 작곡한 발레 음악 '봄의 제전'은 '불새', '페트루슈카'와 함께 스트라빈스키의 3대 발레 음악으로, 그리스도교 이전 러시아 이교도의 대지와 태양신에 대한 찬미를 소재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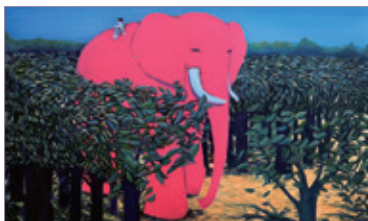
- 강사/광근수(음악평론가)

### 제54회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졸업작품전시회

**일 시** 6월 28일(금)-7월 3일(수)  
 BNK부산은행갤러리  
**문의** BNK부산은행갤러리 246-8975

### 신대준 개인전 리틀 포:레스트[Little For:rest]

**일 시** 7월 24일(수)-7월 31일(수)  
 BNK부산은행갤러리  
**문의** BNK부산은행갤러리 246-8975



**22일(월) 오후 7:30** 색이 삶을 말하다  
 '미술의 눈이 된 색채, 화가를 말하다\_한국추상미술의 거장 김환기 편'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로 한국적 아름다움에 서구 모더니즘을 접목하면서 그만의 예술세계를 확립하고 한국미술의 국제화를 이끌며 세계 미술시장에서도 한국 최고의 작가로 자리한 한국 근현대 미술사의 거장 김환기 화백의 작품과 색채를 만나 보는 '색이 삶을 말하다' 7월 강좌.

- 강사/박미승(떠스널컬러전문가)

**23일(화) 오후 7:30** 음악으로 읽는 인문학  
 • 강사/광근수(음악평론가)

### 제141회 알바트로스 詩낭송콘서트 제6회 거제문화예술제 '찾아가는 시낭송회, 시화전'

**일 시** 7월 20일 토요일 오전 11:00 거제문화예술원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알바트로스시낭송문학협회 010-6367-0149

### 2019 갤러리 을숙도 전시기획 공모선정 특별전시 도시생물도감\_사라지는

**일 시** 7월 5일(금)-7월 24일(수) 갤러리 을숙도  
**입장료** 무료  
**문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22



을숙도문화회관이 부산을 사랑하는 젊고 역량 있는 전시 기획자를 발굴하고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전시기획 공모 선정 특별전.

이번에 선정된 전시기획자 박자현의 '도시생물도감\_사라지는'는 부산의 사라지는 마을을 대상으로 시기마다 달라지는 창들의 모습과 주거모습의 변화 등을 시각 미술로 표현한 전시로, 역동적인 부산의 현재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부산의 사라진 혹은 사라져가는 공간들을 천천히 더듬어 부산의 옛 모습을 추억하며 관람할 수 있다.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6:00

### 전시 | Display

### 디오티미술관 기획전 일상의 경계

**일 시** 4월 5일(금)-7월 28일(일) 디오티미술관  
**문의** 디오티미술관 518-8480

일상 속에서 예술을 발견하고 감상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지향하는 디오티미술관 기획전으로, 그동안 미술관이 수집해 온 소장품들과 작가 우관호, 임창민의 작품을 선보인다.

- 관람시간/오전 11:00~오후 6:00(월요일 휴관)

### 고은사진미술관 부산프로젝트 2019 조춘만 인더스트리 부산

**일 시** 5월 18일(토)-8월 7일(수) 고은사진미술관  
**문의**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7:00(월요일 휴관)

### 영도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김아람 초대전 '능산적 자연'

**일 시** 7월 10일(수)-7월 25(목)  
 영도문화예술회관 선유갤러리  
**입장료** 무료  
**문의**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영도문화예술회관에서는 신진 미술작가 발굴과 활동 지원을 위해 영도문화예술회관이 마련한 'S.N.A. Exhibiti on (Seonyu Novel Artist Exhibition)' 시리즈 스물세번째 전시.

그동안 각기 다른 굵기의 줄에 먹을 묻혀 튀기며 반복적인 선 표현기법으로, 직관과 관찰에 익숙한 동양적인 사유를 반영한 자연을 화폭속에 담아온 김아람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그가 관찰한 자연의 이미지를 선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덩어리로 구성·배치한 작품을 선보인다.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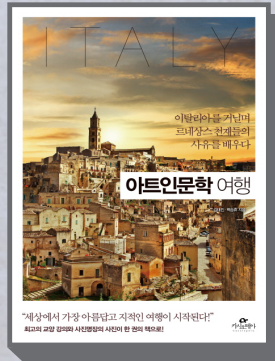
북칼럼니스트 박현주



### 앤티크 수집 미학

박영택 지음 / 마음산책  
352p / 1만6천원

미술평론가로서 수많은 작품을 감상하고 평가해온 박영택 평론가는 소문난 골동품 수집가이기도 하다. 그는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일본 등지의 고미술상가를 직접 돌아 다니며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골동품을 직접 모았다. 그의 아파트와 학교 연구실에는 토기, 백자, 옹기, 서탁, 떡살, 꼭두, 말방울, 민화 등 온갖 골동품이 가득하다. 7년 전에 출간되었던 <수집 미학>이 일상에서 흔히 쓰는 사물을 소개한 책이라면 이번에 낸 <앤티크 수집 미학>은 그간 모든 골동품 가운데 가장 아끼는 60점을 추려 소개했다. 미술평론가로서의 특별한 안목이 이 책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된다. 현대미술평론가인 박영택에게 골동품은 '조형을 보는 안목 훈련'의 대상이자 신선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매개이며, 하나의 거대한 텍스트이다. 박영택은 10여년 전에 우연히 가야시대 토기 잔 하나를 구입했다. 작으면서도 완벽한 조형미를 가진 약 1500년 전의 잔을 만난 후 고미술품을 하나씩 구입하기 시작했다. 골동품이 가진 조형미와 아름다움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던 것이다. 박영택은 미술평론가이기보다 골동품의 매력에 사로잡힌 사람으로서 그 정체에 최대한 깊고 가까이 가려는 마음에서 이 책을 썼다.



### 아트인문학 여행

김태진 지음 / 카시오페이아  
372p / 1만8천원

아트인문학이라는 개념이 그리 낯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트인문학 여행은 예술가의 눈을 빌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아트'와 인간에 대한 폭넓은 진지함을 체험하는 '인문학', 그리고 일상을 벗어난 '여행'을 결합해 세상을 낯설게 보도록 하는 시도이다. 자연, 예술, 여행은 그 모두를 총칭해 인문학이라고 불려도 무방할 것이다. 함께 있을 때 더 빛난다. 예술과 인문학을 접목한 강연으로 화제와 인기를 모았던 김태진의 아트인문학이 이탈리아와 파리를 거쳐 스페인에 이르렀다. 이 책이 스페인 편이다. 프랑스 시인이자 미술평론가인 보들레르를 전공한 미술애호가인 그는 매년 한번 이상 유럽을 찾는다. 직접 발로 누비며 보고 느끼는 문화예술이 3권의 책에 담겨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그는 책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현장 공부를 하고 책으로 다시 기록한다. 스페인 편에서는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스페인의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생생히 전해주는 사진들과 함께 관광 명소, 역사적 사건, 그리고 예술에 얽힌 이야기들을 조화롭고 아름답게 버무려 소개한다. 100여 장에 달하는 스페인의 예술문화 사진, 60여 장의 그림 도판, 80여 장의 스페인 답사 사진이 독자를 스페인으로 데려간다.



### 맛대맛

백석, 채만식 지음 / 가가날  
240p / 1만3천500원

"아,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 희스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습습한 것은 무엇인가/ 겨울밤 쟁하니 익은 동치미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땀추가루를 좋아하고 싱싱한 산팽의 고기를 좋아하고" 백석 시인의 시 '국수' 중 일부이다. "아직 약이 오르지 않은 풋고추를 먹는 향기가 매우 입맛에 좋았다. 오늘 비로소 대문 밖 텃밭에 심은 고추밭에서 연한 풋고추를 따다가 저녁밥에 고추장을 찍어 먹었다. 먹으면서 생각을 했다. 농사란 재미있는 것이라고" 소설가 채만식의 글 '농사' 중 일부이다. 백석의 고향은 평안북도 정주, 채만식의 고향은 호남평야가 가까운 전라북도 군산이다. 두 작가가 다 한국 문학사에 한 획을 그은 큰 봉우리다. 백석의 작품에는 무수한 음식이 등장한다. 고향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을 음식이라는 장치를 통해 시적으로 승화했다. 소설가 채만식은 290여 편에 이르는 소설, 희곡, 수필 등의 작품에서 음식을 세밀하게 묘사했다. 이 책은 음식이 등장한 두 작가의 작품을 소개한다. 북녘의 백석은 '시인의 맛'으로, 남녘의 채만식은 '소설가의 맛'으로 이름을 붙였다. 먹방 프로그램처럼 즉각적으로 다가오는 맛은 아니지만, 문학작품 속에 녹여낸 음식의 맛은 더 깊은 맛이다.



# 극장장의 손 편지

(재)부산문화회관 대표 이용관



## 부산문화회관의 본격 시즌공연

부산문화회관(시민회관 포함)과 부산시립예술단이 60여 편의 '2019-20 시즌공연' 라인업을 6월 27일 공개하였습니다. 시즌 기간은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7개월간 이어집니다.

이번 시즌공연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부산문화회관(시민회관 포함)과 부산시립예술단의 일체감을 높이기 위해 통합 시즌을 구성하고 시민들께 함께 공개합니다. 그 동안 문화회관 기획공연과 시립예술단 공연은 각자 따로 운영을 해 왔고 시즌의 개념도 없었으나, 이번에 본격적인 시즌공연 방식을 도입하면서 통합 운영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홍보와 마케팅도 문화회관 문화예술본부와 예술단 사무국이 힘을 합하게 되므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르별 균형입니다. 문화회관 공연은 그동안 음악 일색이었습니다. 7개 시립예술단 중에도 음악단체가 5개여서 그간 부산문화회관 공연에서 상대적으로 연극과 무용, 국악은 존재감이 매우 작았습니다. 그래서 연극과 무용 공연을 대폭 확대하여 음악과 균형을 이루도록 한 것입니다. 시민들께서도 보다 다양한 예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체제작 공연을 선보입니다. 연극과 오페라, 신진예술가를 위한 페스티벌 등이 그것입니다. 이들은 역량 있는 부산의 연출가와 배우, 성악가, 연주가, 안무가, 무용가 등 지역예술가들을 스타로 육성하기 위한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국악, 합창, 무용단의 예술감독을 선정하는 공연 시리즈도 나란히 공개하였습니다. 이 공연들의 주제는 '부산'입니다. 이로써 '부산문화회관에 부산이 없다'는 그간의 비판에서도 벗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시즌공연제'란 '한 시즌에 벌어지는 모든 공연을 일괄 공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마치 프로야구 시즌경기처럼 말입니다. 시즌공연은 공연장과 예술단체의 '본업 중의 본업'에 해당합니다. 프로야구의 시즌경기가 구단의 본업인 것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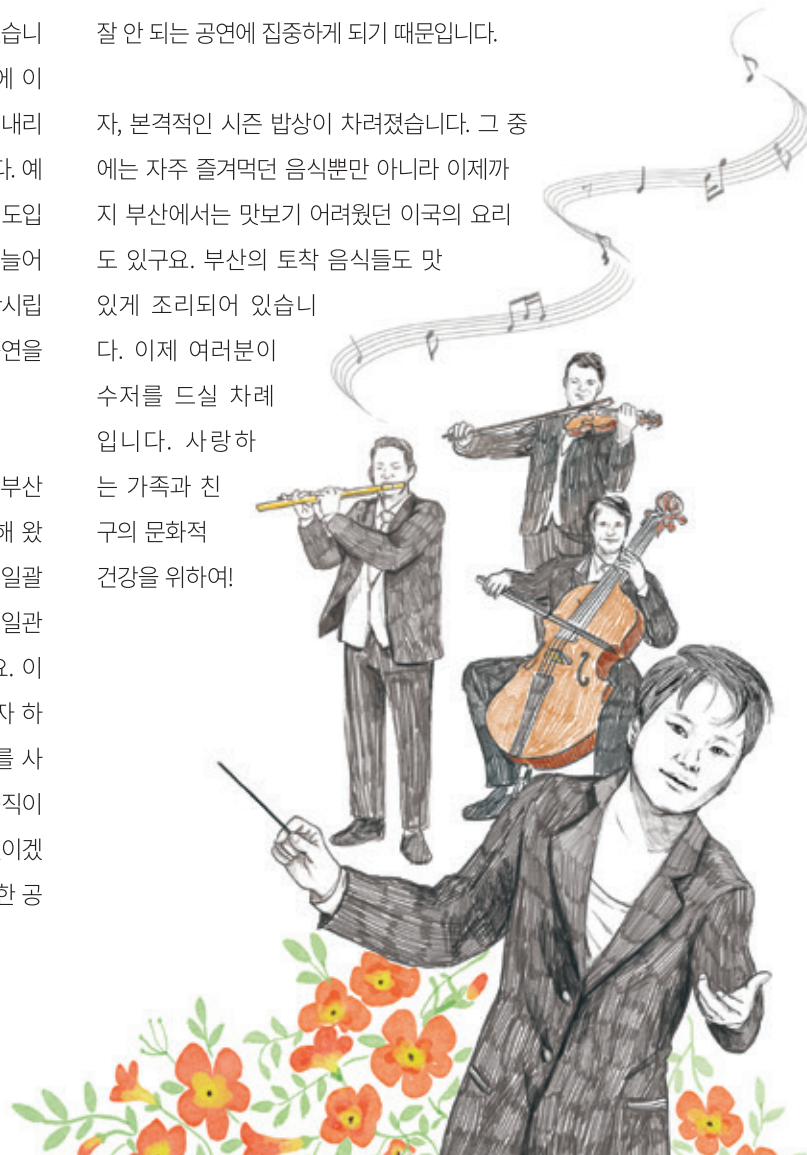
서구에서는 이미 삼백년이나 앞서서 대부분 이 방식을 시작했고, 미국도 육십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이제 겨우 20년도 되지 않았고, 더구나 전국에 보편화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한 시즌의 공연프로그램을 일괄 공개하고 관객들이 그 중에서 좋아하는 공연을 골라서 미리 예매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씩 공개를 하고 그것이 끝나면 다른 공연을 새로 소개하는 식이었지요. 그래서 관객들은 도대체 저 공연장에서는 1년에 어떤 성격의 공연을 몇 편이나 하는지 도무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의 프로그램 운영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근래에 국내에서도 시즌제를 운영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2000년에 LG아트센터가 첫 깃발을 들었고 2003년부터 예술의전당도 2년 동안 시즌제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립극장이 2012년에, 2016년부터는 세종문화회관이 이 제도를 도입하여 좋은 평과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필자가 일했던 부천(2003), 안양(2005)에 이어 대전예술의전당(2013)도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여 내리 7년째 전국 최고의 유료객석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술단체로는 2006년부터 서울시 교향악단이 이 방식을 도입하고 다양한 시리즈 공연을 선보이면서 관객도 몇 배나 늘어나 예술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부산시립 교향악단도 최수열 수석지휘자 부임 이래 1년 치 정기공연을 한꺼번에 공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체 공연을 일괄 공개 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부산 문화회관도 제가 부임한 지난 6개월 동안 이런 준비를 해 왔습니다. 공연장이 성격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사전에 일괄 공개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예술적 지향 또는 정체성을 일관성 있게 보여 주는 데 그만큼 유리하다는 의미를 갖지요. 이에 따라 프로그램 방향을 지지하고 기꺼이 관객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특히 간헐적으로 표를 사던 사람들도 점차 시즌관객이 되고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만큼 공연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겠지요. 종전보다 관객의 규모가 커지는 것은 이 제도를 도입한 공연장들이 이미 경험을 해 온 바입니다.

필자의 체험을 빌어 공연시즌제의 존재의 이유를 더 들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시즌 전체 공연을 한꺼번에 공개하게 되므로 예술적 지향을 잘 드러내면서도 각 작품의 수준을 최대한 높이려고 애쓴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가치가 높아지고 뭔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죠. 프로야구단이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주기 위해 우수선수를 영입하고 혹독한 동계훈련을 치르듯이 말입니다. 관객은 시즌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무엇을 고를까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고 예매를 한 후에는 공연날짜를 손꼽아 기다리죠. 그만큼 공연장과 관객의 관계와 경험을 다양하고 깊게 한다는 말입니다. 또 관객이 늘어난 만큼 재정수입도 올라가고 공연장에서는 관객과 재정에 대한 자신감으로 관객들이 선호하는 공연만이 아니라 새로운 실험이 있는 공연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쓰게 되는 점도 있죠. 한꺼번에 티켓을 오픈하니까 잘 팔리는 공연에는 더 이상 마케팅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고 이런 노력과 비용을 잘 안 되는 공연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본격적인 시즌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그 중에는 자주 즐겨먹던 음식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부산에서는 맛보기 어려웠던 이국의 요리도 있구요. 부산의 토착 음식들도 맛있게 조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수저를 드실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의 문화적 건강을 위하여!



### ◆ 전국 13개 국립 및 광역지자체 공공 공연장 업무협약 체결



전국 13개 국립 및 광역지자체 공공 공연장이 기관 상호간의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문화예술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6월 11일 제주 해비치호텔 아트페스티벌 행사장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부산문화회관을 비롯한 13개 국립 및 광역지자체 공공 공연장 대표들은 협약을 통해 콘텐츠 공동기획 및 공동제작,

관련 정보제공과 인적·물적 교류, 협력 등 공연장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광역지자체 공공 공연장은 대부분 사·도립예술단체를 같이 운영하고 있어, 단체 운영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이 핵심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가한 13개 국립 및 광역지자체 공공 공연장은 부산문화회관과 국립중앙극장, 예술의전당, 경기도문화의전당,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구문화예술회관, 대전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울산문화예술회관, 인천문화예술회관, 제주문예회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은 부산문화회관 주관으로 그동안 지역 간 균형 있는 문화발전의 필요성과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 공연장간의 협력증진 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재)부산문화회관 이용관 대표이사는 “협약을 통해 13개 공공 공연장 상호간의 발전뿐 아니라 지역 간 균형 있는 문화·예술진흥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이를 계기로 지역예술 발전을 위한 협력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지역민들에게 신뢰 받고 사랑받는 공공 공연장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 (재)부산문화회관-국립부산과학관 업무협약 체결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이용관)과 국립부산과학관(관장 고현숙)이 지난 5월 29일 국립부산과학관 회의실에서 문화예술기관과 과학교육기관 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재)부산문화회관과 국립부산과학관은 △ 문화·예술·과학 확산과 플랫폼 조성 △전시·교육 및 홍보마케팅

관련 프로그램의 공동개발 및 인력 교류 △문화사업 및 활동에 대한 상호 홍보 및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 셔틀버스 운행 안내

· 운행시간 저녁시간 : 모든 공연 시간 1시간전/30분전 2회 운영  
※공연 시작시간에 따라 운행시간 변경  
낮시간 : 모든 공연시작 30분전 1회 운영

· 타는 곳 대연역 5번 출구에서 유엔로터리 방향 100m  
※단, 주말 및 공휴일 제외  
공연 종료 후 부산문화회관 주차장 입구 출발 ⇨ 대연역 하차



## ◆ 부산시립교향악단 신임 부지휘자에 지휘자 이민형 선임



영국 왕실 장학금인 ‘로얄 트러스트’, 런던 어니스트 리즈 재단의 ‘젊은 지휘자 상’을 수상한 지휘자 이민형이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부산시립교향악단 신임 부지휘자로 선임됐다.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스코틀랜드 왕립예술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민형은 제53회 프랑스 브장송 국제콩쿠르 및 독일 MDR 교향악단 콩쿠르 결선에 진출하며 국제무대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동안 영국 스코틀랜드 왕립 오케스트라, 북체코 국립 교향악단, 독일 중앙방송 교향악단, 드레스덴 슈타츠 오페레테, 프랑스 로렌 국립 오케스트라, 스웨덴 오로라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등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를 지휘했으며, 2018 통영국제음악제에서는 아시안 작곡가 쇼케이스의 심사위원 및 지휘자로 초청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스코틀랜드 왕립예술원의 지휘자 겸 프로그램 어시스턴트로 상주하며 영국 전역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이민형은 7월 5일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3회 정기연주회 ‘부지휘자의 첫 번째 음악회’를 통해 부산관객과 첫 만남을 갖는다.

## ◆ 석포교회 정기회원 단체가입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정기회원에 단체가입해오고 있는 석포교회가 올해도 정기회원에 단체가입했다.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제도는 그동안 다양한 할인혜택과 부대서비스로 문화생활품의 필수품으로 사랑받으면서 매년 단체가입이 늘고 있다.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그랜드자연요양병원(원장 이재일)도 올해 3월, 병원가족들의 정서합양을 위해 또다시 정기회원에 단체가입한 바 있다.



## ◆ 7월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

평소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 맞춤공연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이 7월에도 부산 전역에서 펼쳐진다.

7월 2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부산여성문화회관 초청공연을 시작으로 국악관현악단, 소년소녀합창단이 부산광역시청, 장애인종합복지관, 학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시민들과 만난다. 이밖에 지난 3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문화가 흐르는 도시철도 공연’은 마지막 주 금요일인 7월 26일 부산도시철도 5개역에서 펼쳐진다.

- 7월 2일(화) 10:00 부산여성문화회관\_청소년교향악단  
‘2019년 제2기 여성문화회관 문화교실 개강식 및 문화공연’
- 7월 2일(화) 11:40 배영초등학교 강당\_청소년교향악단 금관5중주
- 7월 2일(화) 16:00 파크랜드 도서관\_청소년교향악단  
‘파크랜드도서관 개관축하공연’
- 7월 7일(일) 12:00 부산장애인 종합복지관\_청소년교향악단  
‘장애인을 위한 음악회’
- 7월 8일(월) 15:30 분포고등학교 강당\_합창단
- 7월 9일(화) 14:00 부산지방병무청\_합창단
- 7월 10일(수) 14:30 동래원예고등학교 강당\_국악관현악단
- 7월 12일(금) 12:30 부산광역시청 강당\_국악관현악단  
‘문화가 있는 금요일-시민행복콘서트’
- 7월 15일(월) 15:30 용인고등학교 강당\_청소년교향악단  
‘찾아가는 음악회’
- 7월 19일(금) 10:00 동아대학교 다우홀\_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동주여중 음악회’
- 7월 26일(금) 17:00 문화가 흐르는 도시철도 공연

## ◆ (재)부산문화회관 3분기 문화예술아카데미 개강

6월 17일부터 수강생 모집, 7월 3일 개강

차별화된 수준높은 강좌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재) 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아카데미 2019년도 3분기 강좌가 7월 3일부터 새롭게 펼쳐진다.

매 분기마다 다양한 강좌를 개설해온 문화예술아카데미는 이번 강좌에서도 쉽게 접하기 힘든 주제의 인문학, 교양 강좌에서부터 요즘 트렌드에 맞춘 실기강좌, 그리고 이색적인 특강까지 다채롭고 수준높은 강좌들을 만날 수 있다.

우선 인문학·교양 강좌에서는 기존 강좌 외에도 국가별 오페라의 특징과 역사를 짚어보고 대표적인 오페라 작품의 주요 장면들을 영상을 통해 감상해 볼 수 있는 ‘국경을 넘나드는 오페라 여행’, 음악에 영감을 받은 미술, 그림에 영감을 받은 음악을 비교 감상해 보는 ‘음악을 보고 그림을 듣는다’, 중세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음악사를 빛낸 거장들의 주요 작품을 집중 감상하며 음악 속에 깃든 작곡가의 철학을 집중 탐구해보는 이용숙의 클래식 무대 ‘작곡가의 음악과 철학 II’, 시각 커뮤니케이션 예술의 대표로 꼽히는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을 배워볼 수 있는 ‘일러스트 드로잉:나만의 지도 만들기’ 등 참신한 주제와 깊이가 있는 4개의 강좌가 새롭게 신설된다.

부산문화회관만의 차별화된 강좌로 인기를 끌고 있는 실기강좌는 이번 분기에서도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클래식기타, 해금, 가야금, 사물놀이 등 악기에서부터 지휘, 한국무용, 발레, 라인댄스 등 다양한 강좌들이 요일별, 시간대별로 마련되어 있다. 특히 이번 분기에서는 다양한 감정과 느낌을 몸의 움직임을 통해 표현해보는 ‘춤추는 현대무용’이 새롭게 개설된다.

매 분기 흥미로운 주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특강들도 장르별 새로운 주제로 계속된다. 주말인 토요일 오전에 진행되는 단기 음악강좌로 특히 직장인,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있는 ‘세계의

뮤지컬 시즌2’는 7월 6일과 13일 두차례 펼쳐진다. 서로 다른 언어와 시대를 배경으로 제작된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두 편을 비교 감상해보는 시간으로, 6일에는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가, 13일에는 프랑스 뮤지컬 트로이카 중 하나로 호평받는 ‘로미오와 줄리엣-증오에서 사랑까지’를 공연해설가 이상훈의 해설과 함께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또, 지난 특강을 통해 바티칸 박물관과 프라도 미술관,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을 소개했던 유럽문화해설가 김성민은 ‘유럽의 미술관-내셔널 갤러리’를 주제로, 초기 르네상스 회화부터 바로크의 시작,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들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밖에 세계 문화예술의 현장을 마르셀 프루스트의 고전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통해 향유해보는 특별한 시간 ‘소설가 함정임의 여행법-프루스트와 함께 떠나는 문학 여행’, 20세기 현대무용의 흐름을 바꾼 안무가 피나 바우쉬의 삶과 대표적 작품에 대해 춤비평가 이상현과 알아보는 ‘무대 위의 혁명가 피나 바우쉬’, 부산시립극단 김지용 예술감독과 함께하는 ‘셰익스피어 연극 읽기’ 역시 수강생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3분기 문화예술아카데미는 7월 3일 개강하며, 수강생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및 전화, 방문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강의 커리큘럼 및 강사 프로필 등 자세한 내용은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전시교육팀 607-6061-4



# 2019년도 3분기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수강신청 : 6.17(월)부터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온라인 [www.bscc.or.kr](http://www.bscc.or.kr) (아카데미 > 강좌안내 및 접수)

문의 : 전시교육팀 051) 607-6061-4

특 강						
	세계의 뮤지컬 시즌2	7. 6 - 7.13	매주 토(2회)	11:00-13:00	컨퍼런스홀	40,000
	유럽의 미술관 : 내셔널 갤러리	8. 9 - 8.30	매주 금(4회)	10:00-12:00	컨퍼런스홀	80,000
	프루스트와 함께 떠나는 문학 여행	9. 2 - 9.23	매주 월(4회)	19:00-21:00	컨퍼런스홀	80,000
	무대 위의 혁명이 피나 바우쉬	7. 12	금(1회)	10:00-13:00	컨퍼런스홀	20,000
	세익스피어 연극 읽기	9. 2	월(1회)	14:00-17:00	컨퍼런스홀	20,000
인문학 · 교양						
<i>new</i>	국경을 넘나드는 오페라 여행	7. 8 - 8.26	매주 월(8회)	14:00-16:00	컨퍼런스홀	140,000
<i>new</i>	음악을 보고 그림을 듣는다	7. 3 - 9.11	매주 수(10회)	19:00-21:00	컨퍼런스홀	150,000
<i>new</i>	작곡가의 음악과 철학 II 이용숙의 클래식무대	7. 3 - 9. 4	매주 수(10회)	14:00-16:00	컨퍼런스홀	200,000
<i>new</i>	일러스트 드로잉:나만의 지도 만들기	7. 4 - 9.19	매주 목(10회)	19:00-21:00	미술실	180,000 *재료비 포함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초급)	7. 8 - 9. 9	매주 월(10회)	10:30-12:30	강의실	180,000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응용)	7. 8 - 9. 9	매주 월(10회)	14:00-16:00	강의실	180,000
	유혁준의 음악이야기	7. 2 - 9.17	매주 화(10회)	14:30-16:30	컨퍼런스홀	200,000
	Creative 북바인딩(아코디언북)	7. 3 - 9. 4	매주 수(10회)	19:00-21:00	미술실	180,000 *재료비 포함
	레오나르도 다빈치 서거 500주년, 그 이후 원더풀 컬러풀 미술사	7. 4 - 9.19	매주 목(10회)	14:00-16:00	컨퍼런스홀	150,000
	아티스틱 판타스틱 미술사: 현대미술사	7. 6 - 9. 7	매주 토(10회)	14:00-16:00	컨퍼런스홀	150,000
	하이퀄리티를 위한 사진학(포트폴리오)	7. 6 - 9. 7	매주 토(10회)	10:00-12:00	강의실	150,000
	하이퀄리티를 위한 사진학(초급)	7. 6 - 9. 7	매주 토(10회)	15:00-17:00	강의실	120,000
실기 ( 악기 · 무용 )						
<i>new</i>	춤추는 현대무용	7. 4 - 9.19	매주 목(10회)	19:30-20:30	연습실	100,000
	바이올린 A	7. 8 - 9. 9	매주 월(10회)	17:30-19:00	강의실	120,000
	바이올린 B	7. 8 - 9. 9	매주 월(10회)	19:30-21:00	강의실	120,000
	클라리넷 A	7. 8 - 9. 9	매주 월(10회)	17:30-19:00	강의실	120,000
	클라리넷 B	7. 8 - 9. 9	매주 월(10회)	19:30-21:00	강의실	120,000
	해금(중급A)	7. 9 - 9.10	매주 화(10회)	17:30-19:00	강의실	120,000
	해금(중급B)	7. 9 - 9.10	매주 화(10회)	19:30-21:00	강의실	120,000
	사물놀이	7. 9 - 9.10	매주 화(10회)	17:30-19:00	연습실	120,000
	가야금 A	7. 9 - 9.10	매주 화(10회)	17:30-19:00	레슨실	140,000
	가야금 B	7. 9 - 9.10	매주 화(10회)	19:30-21:00	레슨실	140,000
	라인댄스(초급)	7. 9 - 9.17	매주 화(10회)	11:00-12:00	연습실	100,000
	라인댄스(중급)	7. 4 - 9.19	매주 목(10회)	13:00-14:00	연습실	100,000
	한국무용(이매방류 입춤)	7. 9 - 9.10	매주 화(10회)	15:00-16:00	연습실	100,000
	한국무용(기초)	7.10 - 9.11	매주 수(10회)	15:00-16:00	연습실	100,000
	한국무용(부채춤)	7. 4 - 9.19	매주 목(10회)	15:00-16:00	연습실	100,000
	슬림 업 스트레칭 발레	7.10 - 9.18	매주 수(10회)	10:30-11:30	연습실	100,000
	프리미엄 발레	7.12 - 9.20	매주 금(10회)	14:00-15:00	연습실	100,000
	지휘자 클래스	7.10 - 9.11	매주 수(10회)	19:00-21:00	합창단연습실	360,000
	해금(초급)	7. 4 - 9.19	매주 목(10회)	17:30-19:00	레슨실	120,000
	클래식기타(입문)	7. 5 - 9. 6	매주 금(10회)	10:30-12:00	강의실	120,000
	클래식기타(중급)	7. 5 - 9. 6	매주 금(10회)	14:00-15:30	레슨실	120,000
	클래식기타(초급)	7. 5 - 9. 6	매주 금(10회)	16:00-17:30	강의실	120,000
	첼로 A	7.20 - 9.28	매주 토(10회)	11:00-12:30	레슨실	240,000
	첼로 B	7.20 - 9.28	매주 토(10회)	13:00-14:30	레슨실	240,000

\* 강좌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원을 위한 로비음악회 성료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회원들을 위한 로비음악회가 지난 6월 1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로비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이날 로비음악회에서는 최수기 회장을 비롯해 윤영기 사무처장, 변원탄 양산병원 이사장, 도용복 사라토가 회장 등 후원회원 및 가족 70여명과 이용관 대표이사를 비롯한 (재)부산문화회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후원회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한 무대를 선사했다.



로비음악회에 앞서 열린 2019년 후원회 보고에서는 2019년 후원금 지정기부 보고 및 후원금 전달식이 있었으며, 올해 새로 가입한 신입회원들의 인사 및 회원패 전달식이 열렸다. 올해 지정기부액은 총 7천만원으로, 대극장 3층 로비에 조성되는 VIP라운지 물품구매(3천만원)과 (재)부산문화회관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창작공모전(2천5백만원), 공연감상문 공모전(1천5백만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 이날 임현경, 임현숙 부회장을 포함해 신규회원 14명이 새롭게 가입함에 따라 현재 후원회원 수는 모두 72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로비음악회가 끝난 후에는 후원회원간의 친목과 단합을 위한 리셉션이 펼쳐지기도 했다.

한편, (재)부산문화회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월 창립총회를 통해 정식발족한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회장 최수기)는 그동안 지속적인 후원회원 모집을 통해 후원활동 및 기부문화 조성에 힘써오는 한편,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이 품격 높은 문화공간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오고 있다. 후원회원들에게는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무료 주차혜택, 대극장 좌석 네이밍 등 다양한 예우가 제공된다. 후원회원들은 이번 로비음악회에 앞서 지난 4월에는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으로 열리고 있는 ‘노만 파킨슨’展을 단체관람하고 부산시민회관의 극장과 시설을 둘러보는 백스테이지 투어에 참석한 바 있다.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원 명단

### 회장

최수기 부일정보링크(주) 회장

### 부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주)사라도가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임현경 신주레약국  
 임현숙 사상온누리약국

### 사무처장

윤영기 (주)선광 대표이사

### 이사회원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광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신호 (주)덕신체인 대표이사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홍재 (전)연제구의회장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박영기 에스더블유팜 대표이사  
 박장호 (주)피에스제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임성국 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투체어지점 지점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 일반회원

강남주 (전)부경대총장  
 김 균 (주)선경화성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성수 (주)태영유니텍 대표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영욱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종식 주식회사 JJK 회장  
 김진동 원창에프론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철 춘해병원 의무원장  
 김형우 (주)천마 대표이사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노경원 인재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노은식 디케이락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재청 해운대 로드비치호텔 회장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박성환 세종기획 이사  
 박혜빈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박흥근 부일정보링크(주) 대표이사  
 성승모 (전)해운대 동백합창단 단장  
 신명희 리더스금융판매 워드컨설팅 대표  
 신상현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경철 성모안과병원 병원장  
 이경현 엘가 대표  
 이성임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에리카정애 SK증권(주) 이사  
 이정일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이진영  
 임은자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민섭 공연예술 전위 실장  
 정영희 (전)국회의장  
 정의화 속편한내과 원장  
 조성락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조종래 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조총영 세무법인 영지 대표이사  
 진경옥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하정태 법률사무소 담현 변호사  
 한원우 신세계 안과의원 대표원장  
 허 준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부장  
 현임숙

※ 2019년 6월 기준 가입자 명단(이후 추가 가입회원 다음호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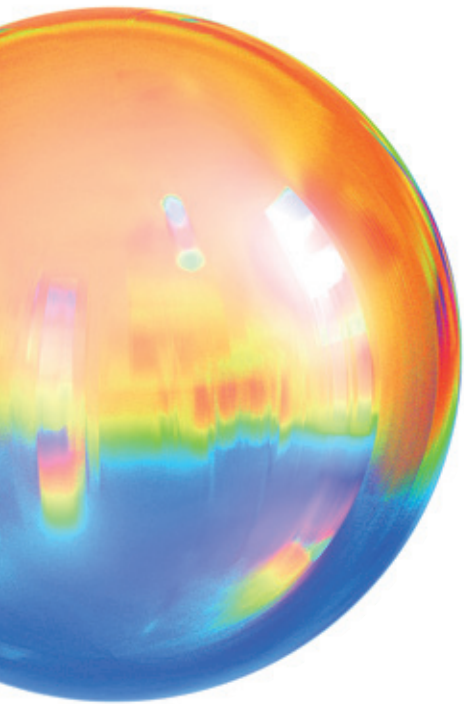


# VIP

(재)부산문화회관 VIP 회원에게만 드리는

## 특별한 혜택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회원을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 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 4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19년, 2020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이후 공연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2019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8월 14일(수)~30일(금)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회당 선착순 20매, 8월 14일, 20일 공연은 제외)

### 2019 마티네 콘서트

8월 28일(수), 10월 2일(수), 11월 20일(수)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당 선착순 40매)

### 샌드애니메이션과 함께하는 문학콘서트 '소나기'

8월 30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R석, 선착순 30매)

### 뮤지컬 '지하철 1호선'

9월 7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R석, 선착순 30매)

### 연극 '율리우스 카이사르'

9월 19일(목)~22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R석, 회당 선착순 20매)

### 유니크와 샌드아트가 들려주는 '어린왕자 이야기'

9월 28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R석, 선착순 30매)

### 영국 국립극장의 공연을 라이브로 만나다 'NT Live'

10월 6일(일), 11월 10일(일), 2020년 2월 15일(토),  
2월 29일(토) 오후 2:00, 6: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당 선착순 30매)

### 프렐조카주 발레단 '프레스코화'

11월 6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S석, 선착순 30매)

### 어린이 뮤지컬 '시아와 친구들 : 트레저헌터즈'

11월 16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R석, 선착순 30매)

### 백혜선 독주회

12월 3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R석, 선착순 30매)

### 2019 제야음악회

12월 31일(화) 오후 10: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R석, 선착순 40매)

### 빈필하모닉 앙상블 2020 신년음악회

2020년 1월 10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S석, 선착순 40매)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 홍보마케팅팀(607-6074~6, 6078)

# VIP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안전체험뮤지컬



# 도와줘요 안전맨

지진 · 화재편



2015년 국민안전 안전문화창작뮤지컬 우수상 수상



2017년 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문화공감 우수공연프로그램 선정

2019. 7.2(화) ~ 9.8(일) 오전 11시 (월요일 공연 없음)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주최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주관

극단조은사람들

협찬



티켓

2만원 (24개월 이상 입장가능)  
※단체 할인가:7,000원

문의 및 예매

- 부산문화회관 051)607-6053 www.bscc.or.kr - 인터파크 1544-1555 www.ticketpark.com  
- 정기회원, 도서기부 60% 할인 (당일 증빙서류 확인, 미지참시 차액 지불)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62  
SOO-HEAL CHO, ARTISTIC DIRECTOR & CHIEF CONDUCTOR

제553회 정기연주회

# 부지휘자의 첫 번째 음악회

WELCOME,  
NEW ASSOCIATE CONDUCTOR!

2019. **7.5** FRI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Main Theater, Busan Cultural Center

그리그 · 피아노 협주곡  
Grieg · Piano Concerto in A minor, Op.16

드보르작 ·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  
Dvořák · Symphony No.9 in E minor, "From the New World", Op.95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지휘 이민형 Min Hyung Lee, Conductor

피아노 박정희 Junghee Park, Piano  
2019 정기연주회 협연자 오디션 합격자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 A석 10,000원 · B석 5,000원 예매 [www.bscc.or.kr](http://www.bscc.or.kr) 문의 607-3111-3(교향악단), 6074-5(정기회원)

할인 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정 | 임신부 20% ▶ 정기회원 | 학생 (만24세이하) | 외국인 ※ 단체(10-30%할인) 및 학생단체(3,000원권) ▶ 전화문의  
셔틀버스 운행(무료) 출발지:대연지하철역 5번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앞 → 부산문화회관 출발시간:월-금, 공연 1시간전/30분전(2회 운행)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 2019 Summer Fantasy

## 여름을 떠나세요

지휘 전진 바이올린 박은경 기타 황보승 베이스기타 김대희 드럼 구명일 합창 부산시립합창단

2019년 7월 24일(수)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지휘 전진



특별출연 추가열

주최 부산문화회관 Sun&Fun Haejeon 해운대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입장료 전석 10,000원

예매 www.bscc.or.kr 인터파크 문의 607-3116 (시립합창단), 607-6074~5(정기회원), 749-7651(해운대문화회관)

할인 50%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임산부, 의사자 및 유족, 의상자 및 직계가족, 모범납세자  
30% 단체 (30명 이상), 해운대문화회관 누리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문화예술인패스 소지자, 대학생(학생증소지자), 초·중·고등학생



# 藝港大同

김정수 예술감독  
취임 축하연주회

예향대동

크게 하나되는 예술의 항구



해금 양경숙



각원지휘 김성경



해금 박환영



피리 강영근



거문고 허윤정



가야금 민익식



소리 박성희

이생강류 대금 산조를 위한 협주곡 [죽향]  
거문고 협주곡 [무영탑]  
메나리조 주제에 의한 피리 협주곡  
서용석류 해금산조 협주곡  
가야금 협주곡 [新 관동별곡]  
수궁가 中 가자가지자 어서가지자

2019

7. 24(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 | 부산문화회관

| 주관 | 부산시립예술단

| 입장료 | 1층 10,000원 2층 5,000원

| 예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051)607-3124

캘리그래피 : 이석인(KBS 보도그래픽부 제작위원) / 한글 : 다운폰트



## 노부스 콰르텟

Novus Quartett

8월 14일 (수)

김규현, 김영욱, 김재영, 문용휘



# 부산문화회관 챔버 페스티벌

## 8.14.수 - 30.금

평일 19:30, 주말 및 공휴일 17:0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 슈투트가르트 페가소스 현악 4중주

Stuttgart Pegasos String Quartett

8월 15일 (목)

슈투트가르트 페가소스 현악4중주단, 이윤수



PI. 이윤수

## 원더첼로

WonderCello

8월 16일 (금)

양욱진, 강주희, 김새로미, 김소영  
변은석, 유원욱, 임다영, 정유화, 정혜주  
조문경, 조원교, 진혜나, 최주원



## 김봄소리 바이올린 리사이틀

Violin Recital

8월 20일 (화)

김봄소리, 강형은



PI. 강형은

## 더 콰트로 4중주

The Quattro Quartett

8월 22일 (목)

이리나, 장은아, 조진영, 정서은



예술총감독. 김동욱

## 뮤즈 앙상블

Muse Ensemble

8월 26일 (월)

임병원, 김은정, 최영식, 윤민우, 이진성, 이동열



## 대학연합

8월 24일 (토)

경성대, 동아대, 동의대, 부산대, 인제대



## 아르스 현악 4중주

Ars String Quartett

8월 27일 (화)

조현미, 서은아, 이성호, 강수이, 하경희, 서성은, 장재혁



CI. 장재혁

## 비르투오조 앙상블

Virtuoso Ensemble

8월 29일 (목)

백재진, 김도경, 김은진, 이일세, 박지은  
홍영선, 우소라, 김미현



## 센토 앙상블

Sento Ensemble

8월 30일 (금)

이은옥, 박은경, 양은정, 성현희, 신호은, 서은아  
이현지, 김상미, 이은솔, 이상호, 조우태, 이윤하  
서성은, 김근혜, 윤민우, 김미현





발달릭

# 꼬드어

GGO DEUNG



GOD DESIGN  
산업자원부선정



it Award



Facebook



Insta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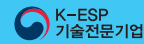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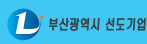
Twitter

## COMING SOON



올 여름 물놀이 핫템  
꼬드어 비치볼 7월 출시

꼬드어는 부산을 상징하는 시어(市魚), 고등어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www.designivy.com](http://www.designivy.com) [www.designbusan.kr](http://www.designbusan.kr)  
디자인부산 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65번길 90, 101호 [T]051)636.1216 [E]info@designbusan.kr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 내한공연  
St.Petersburg State Ballet on Ice

# 아이스발레

잠자는 숲속의 공주  
*Sleeping Beauty*



2019. 8. 8. thu - 8. 9. fri

thu 19:30 / fri 15:00,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일보사

주관.

서울예술기획  
Seoul Arts Management



|입장료|

VIP석 60,000원 R석 4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http://www.bscc.or.kr) / 인터파크 [www.ticketpark.com](http://www.ticketpark.com) (1544-1555)

문의. 051) 607-6000 / 6075 (정기회원)